

# 內病外治藥物에 관한 文獻的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情報學科<sup>2</sup> · 한국전통의학연구소<sup>3</sup>  
이석재<sup>2</sup>·맹학영<sup>2</sup>·금경수<sup>1,2,3</sup> \*·정현영<sup>1,3</sup>·조은희<sup>2,3</sup>·이시형<sup>1,2,3</sup>

## A Study on the External Treatment of Internal Diseases in Medical Classics

Lee Seok-jae<sup>2</sup> · Maeng Hack-young<sup>2</sup> · Keum Kyung-soo<sup>1,2,3</sup> \* ·  
Jeong Heon-young<sup>1,3</sup> · Cho Eun-hui<sup>2,3</sup> · Lee Si-hyeong<sup>1,2,3</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Professional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 external treatment of internal diseases was first recorded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and two hundred and fifty odd cases were found in the Bonchogangmok(本草綱目) and Oechisusebang(外治壽世方). Bonchogangmok(本草綱目) is a technical book devoted to explaining materia medica as well as the external treatment of internal diseases. Oechisusebang(外治壽世方) is also a technical book, which make 36 references to the disease patterns of internal medicine. The medicinals employed as external treatment of internal diseases are grouped into 300 classes. These medicinals do not set limits to trees and plants but also uses birds and beasts, reptiles, grains, feces and urine, soil, stone etc., applied to various disease patterns.

This study researched the medical texts in order to treat the disease patterns of internal medicine.

**Key words** : external treatment(外治), internal disease(內病), the disease patterns(病證), internal medicine

## I. 緒論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빈번히 外傷을 입게 되

는데, 外傷을 입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藥草들을 찢어서 감싸주거나 달여서 바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藥物로 外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外科적인 질환에 한정된다고 생각되나 內科질환도 外治法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內治는 藥物이 胃腸管을 통하여 흡수되는 것을 말하지만 外治療法은 그 경로가 다양하다. 피부로 스며들어 經絡을 통하여 傳導되거나 각 조직

\* 교신저자 :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Tel : 063-850-6846 E-mail : kskeum@wonkwang.ac.kr  
접수일(2009년 4월 24일), 수정일(2009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기관인 鼻腔、口腔、眼部、肺、氣管支、肛門 등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된다. 이러한 치법은 內科、婦人科、小兒科 등 다양한 病證에 널리 사용할 수 있다.

外治法에 대한 중국 최초의 기록은 『山海經』의 “育沛，佩之無瘕疾.”<sup>1)</sup> “薰草，佩之可以已癘.”<sup>2)</sup> 등의 내용들이다. 本草專門書籍인 『神農本草經』에는 藥物의 內病外治에 관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醫書로서는 『黃帝內經』의 『素問至真要大論』에 按摩法<sup>3)</sup>과 沐浴法<sup>4)</sup>, 『素問陰陽應象大論』에 熏蒸法<sup>5)</sup>, 『素問血氣形志論』에 藥熨法和 導引法<sup>6)</sup>, 『靈樞壽夭剛柔』에 藥熨法<sup>7)</sup>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傷寒論』에서는 “蜜煎導法” 혹은 “猪膽汁을 이용한 灌腸法”으로 변비를 치료하는<sup>8)</sup> 外治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金匱要略瘧濕喝病脈證并治』에 “콧속에 약물을 넣는 방법”<sup>9)</sup>,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并治』에 “약물로 陰部를 씻는 방법”<sup>10)</sup>, 『金匱要略婦

人雜病脈證并治』에 “陰部속에 약물을 넣는 방법”<sup>11)</sup> 등의 外治法이 기술되어 있다.

魏晉南北朝時期的 『肘後備急方』은 臨床에서의 응급처치법이 주로 기술되었으며, 책의 앞부분에 많은 外治의 약물을 실었다. 猝死를 구하는 데에는 皂莢이나 半夏 등의 약물을 콧속에 넣어 넣는 방법<sup>12)</sup>, 卒心痛에는 大豆를 찌서 熨하는 방법을 써서 치료한다.<sup>13)</sup> 『梅師集驗方』에는 鬢속의 癢癩를 다스리는 데에 吳茱萸를 찢어서 술로 끓여서 익혀서, 천으로 싸서 뜨겁게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唐代는 『新修本草』, 『本草拾遺』, 『藥性論』, 『食療本草』, 『海藥本草』, 『蜀本草』 등이 이어졌으니 本草의 전성기라 할 수 있으나 이 책들은 內病外治에 관한 내용이 드물다.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등에서는 熏法和 洗法을 다방면에 걸쳐서 응용하였다. 『外臺秘要』는 특히 眼科外治가 풍부한 반면, 『千金要方』은 부인과와 소아과의 外治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五物甘草生摩膏方으로 凶上和 手足心에 발라서 문질러 小兒의 身體壯熱을 예방하였다<sup>14)</sup>.

宋金元時期는 藥物外治에 있어서 진일보 발전하였다. 『本草圖經』에서는 瓜藤으로 熱毒惡瘡를 다스리는 내용<sup>15)</sup>이 실려 있다. 『日華子本草』는 많은

1) 鄭在書 譯註.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85. p.44.  
 2) 鄭在書 譯註.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85. p.66.  
 3)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卷九). 대구.金星印刷社. 2001. p.559.  
 “摩之浴之，薄之劫之，開之發之，適事爲故”  
 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卷一). 대구.金星印刷社. 2001. p.213.  
 “其標悍者，按而收之”  
 5)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卷一). 대구.金星印刷社. 2001. p.213.  
 “其有邪者，漬形以爲汗”  
 6)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卷三). 대구.金星印刷社. 2001. p.125.  
 “形樂志苦，病生於筋，治之以熨引，…”  
 7)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170.  
 “刺布衣者 以火焯之 刺大人者 以藥熨之”  
 8) 傷寒論研究會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鼎談. 1997. p.425.  
 “陽明病，自汗出，若發汗，小便自利者，此爲津液內竭，雖硬不可攻之，當須自欲大便，宜蜜煎導而通之，若土瓜根及猪膽汁，皆可爲導.”  
 9)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66.  
 “病在頭中寒濕. 故鼻塞. 內藥鼻中則愈”  
 10)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88.  
 “蝕於下部則咽乾. 苦蓼湯洗之.”

11)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430.  
 “蛇床子散方. 溫陰中坐藥.  
 [蛇床子散方]: 蛇床子仁 以上一味. 末之. 以白粉少許. 和合相得. 如棗大. 綿裹內之. 自然溫.”  
 12) 蔡鐵如 主編. 中華醫書集成·肘後備急方.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1.  
 “救卒死, 或先病痛, 或常居寢臥, 奄忽而絕, 皆是中死, 救之方.  
 又方 取皂莢如大豆, 吹其兩鼻中, 嚏則氣通矣.  
 又云 半夏末如大豆, 吹鼻中.”  
 13) 蔡鐵如 主編. 中華醫書集成·肘後備急方(第八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8.  
 “治卒心痛. …  
 又方 蒸大豆, 若煮之, 以囊貯. 更番熨痛處, 冷復易之.”  
 14)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96.  
 “治少小新生肌膚幼弱, 喜爲風邪所中, 身體壯熱, 或中大風, 手足驚掣, 五物甘草生摩膏方  
 甘草 防風各一兩 白朮二十銖 雷丸二兩半 桔梗二十銖  
 小兒雖無病, 早起常以膏摩凶上及手足心, 甚避寒風”

부분이 藥物外治에 대해서 논술하고 있어 外治文獻의 중요참고서가 된다. 葛麻를 手足心에 붙여서 催生에 쓰이는 것<sup>16)</sup> 등 內病外治에 관한 내용도 몇례가 등장한다. 『丹溪心法』에서는 火를 다스릴 때에 附子를 가루 내어 湧泉穴에 붙여서 치료한다고 하였다.<sup>17)</sup> 『聖濟總錄』에서는 外治하는 機轉에 대해서 탐구한 것을 보면, 이 시기는 外治法의 연구를 한층 깊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明代에는 藥物外治에 있어서 宋元시대보다 더 큰 발전이 있었다. 이 시기에 본초서적으로는 『本草綱目』이 대표적인데 많은 고대 문헌을 취합하였고 外治약물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수십 종의 外治法이 기술된 가운데 穴位에 약을 붙이는 방법이 많이 기술되었으며, 풍부한 外治의 經驗 單方이 실려 있다. 『幼幼集成』은 明代以前까지의 소아과의 저술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서 효과가 탁월한 민간요법과 외치법을 풍부하게 수집하였다.<sup>18)</sup> 『串牙內篇』은 400餘首의 方, 『串牙外篇』은 600餘種의 方중에 外治法의 자료가 아주 많이 수록되었다. 이 두 醫書는 약값이 저렴하고 효과가 빠르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sup>19)20)</sup> 『本草經疏』, 『本草匯言』, 『本草正』 등은 外治의 機轉에 대해 모두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普濟方』은 明代이전의 方書들을 가장 많이 수집하여 총 61739首의 方이 기술되었으며 明代 李時珍의 『本草綱目』에 采錄된 附方이 이 책에서 극히 많이 인용되었다. 특히 眼目門에 外治方이 많이 실려 있다.<sup>21)</sup>

清代에는 本草정리가 성행하였는데, 본초서중에서 外治에 대해 공헌을 한 것은 趙學敏의 『本草綱目拾遺』이다. 『急救廣生集』은 사용법이 간편하고 치료효과가 확실한 清代嘉慶前의 外用경험방을 수집한 것으로 400여종의 病證이 기술되어 있다. 疝證에 棉子仁을 달여서 씻거나<sup>22)</sup>, 遺精에 五倍子를 가루 내어 침으로 반죽해서 배꼽에 붙인다거나<sup>23)</sup>, 尿血에 葛苳菜를 찢어 배꼽에 붙이는<sup>24)</sup>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清代에서 가장 유명한 外治전문서는 『理瀾駢文』이다. 수십 종에 달하는 外治方法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膏藥으로 病을 치료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內病外治에 대해서도 실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外治에 대한 이론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後代의 사람들이 『理瀾駢文』을 ‘外治之宗’으로 불릴 만큼 外治法을 발전시켰다.<sup>25)</sup> 이외에도 『外治壽世方』이 있는데 內病外治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外治法 가운데 內病外治에 관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散在되어 있다. 明清代에 가서야 外治法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內病外治에 관한 내용도 病症별로 많아지게 된다. 현대에 와서는 內病外治藥物이 다른 분야에 비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內病外治藥物에 관한 역대 醫書들의 내용이 종합정리 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外治療法은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적응증이 넓으며 禁忌사항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고 사용하기가 안전하여 研究發展 시켜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15) 蘇頌 撰. 本草圖經. 安徽省.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671.  
“瓜藤：用甘草水調貼，治諸熱毒惡瘡。”  
16) 尙志鈞輯釋. 日華子本草·蜀本草 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05.  
“葛麻，催生，傳產人手足心，產後速拭去”  
17) 朱震亨. 新編丹溪心法附餘(上卷). 서울. 대성문화사. 1993. p.369.  
“蓋火起於九泉之下 多死 一法 用附子末 津調塞湧泉穴”  
18) 魯兆麟 等 點校. 中國醫學名著珍品全書(中券).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5.  
點校說明  
19) 蔡鐵如 主編. 中華醫書集成·串牙內篇(第九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1.  
20) 蔡鐵如 主編. 中華醫書集成·串牙外篇(第九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1.

21) 周定王 朱楠 撰. 普濟方. 서울. 翰成社. 1981.  
22)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3.  
“疝氣偏墜小腸氣痛 … 一方, 用棉子仁煎湯洗之. 《斗門方》”  
23)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6.  
“遺精治法 … 一方, 用五倍子研細末, 以女兒津調, 貼臍內立止. 《種福堂方》”  
24)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小便尿血 葛苳菜搗敷臍上即止. 《海上方》”  
25) 吳師機 撰. 理瀾駢文.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6.  
內容提要

그래서 著者は 지금까지의 醫書에서 內病外治하는 藥物과 관련한 内容を 總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1. 內病外治하는 藥物에 관하여서는 『內經』 이후 清代까지의 諸 문헌을 조사하였다.

2. 本 연구는 內科病證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3. 本草書중에서는 『本草綱目』을 제외하고는 內病外治에 관한 藥物이 많지 않아서 韓醫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른 종합서적과 外治서적을 함께 조사하였다. 총27권의 醫書를 조사하였는데 최종적으로 9권을 선정하였다. 표 1.

4. 本 研究에서는 內科의 病證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病證의 분류는 『中醫內科學』<sup>26)</sup>을 참고하였으며 脚氣、 疝證과 陰腫을 추가하였다.

5. 本論은 원문을 해석한 것이며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6. 本論의 내용이 비슷한 문장에 있어서 사용한 藥物과 方法에 큰 차이가 없으면 한데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7. 內病外治하는 處方중에서 藥物의 種數가 많은 경우 분석이 어려우므로 處方중 藥物이 3종이 하인 것으로 한정하였다.

8. 迷信적인 내용이나 病證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9. 藥物의 통용되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문장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10.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 文獻에 대한 原文과 說明은 脚註로 處理하였다.

11.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로는 引用 文獻은 『』로 표시하였으며, 인용한 文句는 “ ”로 표시하였다.

	문헌자료목록	실제사용문헌	출판사	출판년도
1	『黃帝內經』	『素問研究集成』	金星印刷社	2001
2	『傷寒論』	『傷寒論講義』	圖書出版鼎談	1997
3	『金匱要略』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2004
4	『備急千金要方』	『備急千金要方』	中醫古籍出版社	1999
5	『東醫寶鑑』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6	『本草綱目』	『本草綱目』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華佗神醫秘傳』	『華佗神醫秘傳』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8	『急救廣生集』	『急救廣生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9	『外治壽世方』	『外治壽世方』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표 1. 문헌자료목록

## III. 本論

### 1. 內科病證別 분류

#### (1)感冒

- 寒邪를 感受 받아서 땀이 없는 感冒에 걸렸을 경우에는 물에 芥菜子 가루를 개어서 배꼽에 채워 넣은 후에 뜨거운 물건을 옷 위에 대고서 熨하여 땀을 내면 효과가 뛰어나다.<sup>27)</sup>

- 寒邪를 發散시키는 경우에는 胡椒、 丁香 각각 7알을 갈아서 부수고 蔥白 찢은 것을 섞어서 膏를 만든다. 이것을 양쪽 손 가운데에 바른 다음 합장하여 大腿部 안쪽에 낀 다음, 따뜻하게 덮어서 땀을 내면 낫는다.<sup>28)</sup>

#### (2)咳嗽

- 기침이 오래되어 그치지 않으면 罌粟殼을 가루 내거나 五倍子를 가루 내어 膏를 만들어서 배꼽위에 붙인다.<sup>29)</sup>

27)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3.

“感冒 感寒無汗, 水調芥子末填臍內, 以熱物隔衣熨之, 取汗出妙”

2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0.

“發散寒邪, 胡椒、 丁香各七粒, 碾碎, 以蔥白搗膏和, 塗兩手心, 合掌握定, 夾于大腿內側, 溫覆取汗則愈. 《傷寒蘊要》”

29)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9.

“久嗽不止 罌粟殼末, 或五倍子末摻膏, 貼臍上.”

26) 主編 張伯輿. 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 마른기침은 火鬱이다. 생강즙을 꿀과 섞어서 등에 바르면 좋다.<sup>30)</sup>
- 胸膈이 脹滿하고 기침으로 불안한 경우에는 宮粉、香油를 찹 그릇 속에 넣고 몇 차례 솟아오를 정도로 졸인 후 머리카락 한 뭉치를 담가서 胸膈을 여러 차례 문지르면 낫는다.<sup>31)</sup>
- 기침이 오래되어 멎지 않는 경우에는 款冬花 2냥을 바람이 없는 곳에서 태우고 筆管으로 들어 마시고 바로 음식을 먹어서 약기운을 누른다.<sup>32)</sup>
- 기침이 오래되어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두꺼운 느낌나무껍질을 크기는 손가락 정도로, 길이는 한자 남짓한 정도로 깎아서 喉中에 넣어놓고 자주 넣었다 뺀다 하여 膿血을 토해야 낫는다.<sup>33)</sup>
- 上氣咳嗽로 腹滿하며 수척해지는 경우에는 楸葉 3斗를 물 3斗에 30번 정도 끓여오르면 찌꺼기는 버리고 달여서 대추씨 크기 정도로 알약을 만든 후, 筒을 사용해서 下部에 넣으면 바로 낫는다.<sup>34)</sup>
- 小兒寒嗽에 생강을 湯으로 달여서 몸을 씻는다.<sup>35)</sup>
- 肺가 虛해서 기침이 오래된 경우에는 木鱉子를 款冬花와 함께 태워서 대나무 통으로 연기를 마신다.<sup>36)</sup>

3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0.  
“乾咳嗽 火鬱也. 姜汁和蜜擦背佳.”

3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0.  
“胸膈脹滿, 咳嗽不安 宮粉、香油入鐵器內, 熬數滾離火, 用頭髮一團蘸粉, 擦胸膈數次即愈.”

32)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7.  
“久嗽不止 款冬花二兩于無風處燒之, 以筆管吸煙咽下, 即用食物壓下. 《證治匯補》”

33)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8.  
“久嗽欲死 用厚榆皮削如指大, 長尺餘, 納喉中, 頻出入, 當吐膿血而愈. 《古今彙驗》”

3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8.  
“上氣咳嗽 腹滿羸瘦者, 楸葉三斗、水三斗, 煮三十沸, 去滓, 煎至可丸如棗大, 以筒納入下部立愈. 《海上方》”

3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4.  
“咳嗽【風寒】生薑 :小兒寒嗽, 煎湯浴之.”

3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哮喘

- 寒哮喘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白果、麻黃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찢어서 코를 막는다.<sup>37)</sup>
- 痰實氣喘에는 紫蘇子、白芥子、蘿卜子를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炒해서 熨한다.<sup>38)</sup>
- 痰喘上氣에는 南星이나 白芥子에 생강즙을 고루 섞어서 足心에 貼 바른다.<sup>39)</sup>
- 巴豆霜을 생강즙으로 알약을 만든 후에 桔皮로 싸서 코를 막는다.<sup>40)</sup>

(4) 項強

- 風濕으로 뒷목이 뻣뻣한 것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蓖麻葉을 찢어서 貼 바르면 효과가 있다.<sup>41)42)</sup>
- 項強에는 黑豆를 蒸熟하여 자루에 담아 베개를 댈다.<sup>43)44)</sup>
- 項強에는 生桃葉을 蒸熟하여 자루에 담아 목에 대고서 熨한다.<sup>45)46)</sup>

p.84.  
“咳嗽【外治】木鱉子 :肺虛久嗽, 同款冬花燒煙, 筒吸之.”

3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0.  
“治寒哮喘 白果、麻黃各等分 搗, 塞鼻.”

3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痰實氣喘 紫蘇子 白芥子 蘿卜子各等分 炒熨.”

3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痰喘上氣 南星或白芥子, 用姜汁調敷足心.”

4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定喘方 巴霜, 薑汁爲丸, 桔皮裹塞鼻.”

41)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642.  
“蓖麻葉: 治風濕項強, 常傳之爲妙. 『俗方』”

4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75.  
“項強 … 又, 蓖麻葉搗敷效.”

43)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641.  
“黑豆: 治頭項強, 不得顧視, 豆蒸熟, 納袋中枕之. 『本草』”

4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75.  
“項強 黑豆蒸熟, 納袋中枕之.”

4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641.  
“桃葉: 治風項強不得回顧. 生桃葉蒸熟入袋, 着項上熨之, 『本

- 목덜미가 뻣뻣하고 몸이 당기는 사람은 살아 있는 귀의 배를 갈라 五臟을 제거하고 뜨거운 상태로 붙이면 낫는다.<sup>47)</sup>

(5)癩證

- 驚風癩疾로 喉閉牙緊하는 경우에는 鉛白霜(鉛粉霜) 1字와 蟾酥 약간을 가루 낸 것을 烏梅肉에 묻혀서 잇몸 위를 문지른다. 그리고 나서 통관시키는 약을 붙여넣으면 머지않아 곧 열린다.<sup>48)</sup>

- 驚癩發熱에는 丹蔘摩膏를 사용: 丹蔘과 雷丸 각 반냥, 猪膏 2냥을 함께 달여서 끓였다 식히기를 7번 하여 이것을 걸러서 찌꺼기는 버린 후 용기에 가득 담는다. 매번 아이의 몸에 하루에 세 번 비벼댄다. 痰涎이 모두 흘러나오기를 기다렸다가 脂麻餅 한 덩어리를 먹으면 痰涎이 다 나오면 바로 낫는다.<sup>49)</sup>

- 風癩諸痰에는 五癩膏를 사용: 諸風을 다스리고 痰을 다스리는 것이 神과 같다. 곱질과 씨를 제거한 大皂角 半斤을 꿀 4냥을 위에 바르고서 약한 불로 구워서 두들겨 부순다. 이것을 뜨거운 물에 잠시 浸한 다음 주물러서 汗을 내어 약한 불로 끓여 膏를 만든다. 여기에 麝香 약간을 넣고 이증으로 된 綿紙위에 펼쳐놓고 햇볕에 쬐어 말린 다음, 잘라서 종이꽃을 만든다. 3~4조각을 사용하여 묽은 漿水가 담긴 하나의 작은 접시에 넣고 방울져 떨어지게 하여 통으로 그 즙을 콧속에 붙여 넣는다.<sup>50)</sup>

- 癩症이 막 생기는 경우에는 皂角즙을 콧속에 따르면 風涎이 코와 입속의 콧물과 침을 따라서 나온다. 만약 깨어난 뒤에도 風涎이 멎지 않으면 서둘러 소금 끓인 물을 마시면 저절로 멎는다.<sup>51)</sup>

- 虎骨을 삶은 물로 소아를 씻기면 瘡疥, 鬼疔와 驚癩을 물리친다.<sup>52)</sup>

(6)傷寒

- 粉甘草와 頂上梅花冰片을 함께 갈아서 아주 곱게 가루를 낸다. 무릇 病이 발생한지 하루에서 6일이 된 경우에는 이 藥을 眼角內에 點眼하는데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 쪽에 點眼하고서 瞼을 내면 낫는다. 만약에 7일이 지나면 男女를 불문하고 양쪽 눈 모두에 點眼하면 효과가 탁월하다.<sup>53)</sup>

- 傷寒으로 瞼이 안 나는 경우에는 紫蘇를 진하게 달여서 頭面과 다리의 곱은 곳에 熏한다.<sup>54)</sup>

- 傷寒으로 瞼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마디를 제거한 麻黃과 甘草를 함께 갈아 가루 낸다. 여기에 冰片을 加하여 양쪽 眼角에 넣고서 따듯하게 덮고 조용히 앉아 바람을 피하면 저절로 瞼이 난다.<sup>55)</sup>

- 傷寒으로 瞼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胡椒, 丁香, 蔥白을 찧어서 양쪽 掌心에 바르고서 다리 안쪽

以蜜四兩涂上, 慢火炙透搗碎, 以熱水浸一時, 掇取汁, 慢火熬成膏. 入麝香少許, 攤在夾綿紙上, 晒乾, 剪作紙花. 每用三四片, 入淡漿水一小盞中洗淋河, 以筒吹汁入鼻內. 待痰涎流盡, 吃脂麻餅一個, 涎盡即愈, 立效. 《普濟方》”

草》”  
4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75.  
“項強 … 又, 生桃葉蒸熟, 入袋中, 著頭上熨之.”  
47)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642.  
“活鼠:項強, 身中急者, 取活鼠破腹, 去五臟, 就熱傅之即差. 『本草』”  
4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9.  
“驚風癩疾, 喉閉牙緊. 鉛白霜一字, 蟾酥少許, 爲末, 烏梅肉蘸藥于齦上搽之, 仍吹通關藥, 良久便開. 《普濟方》”  
4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28.  
“驚癩發熱. 丹蔘摩膏:用丹蔘、雷丸各半兩, 猪膏二兩, 同煎七上七下, 濾去渣盛之. 每以摩兒身傷, 日三次. 《千金方》”  
5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59.  
“風癩諸痰. 五癩膏:治諸風, 取痰如神. 大皂角半斤去皮、子,

5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8.  
“癩症初發 用皂角汁灌鼻內, 其風涎即從鼻口中涕唾而出. 若蘇後, 其涎不止, 急以鹽湯, 服之自止. 《醫宗金鑒》”  
52)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960.  
“虎骨:水煮作湯, 浴小兒, 去瘡疥, 鬼疔, 驚癩.”  
5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7.  
“傷寒 點眼角法 粉甘草、頂上梅花冰片, 共研極細末. 凡病起一日至六日, 用此藥點眼角內, 分男左右, 出汗即愈. 如過七日, 不論男女兩眼并點, 神效.”  
5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  
“傷寒無汗 紫蘇煎濃湯, 熏頭面及腿彎.”  
5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  
“傷寒無汗 … 又, 麻黃去節, 同甘草研末, 加冰片點兩眼角, 暖蓋靜臥, 避風自汗.”

에 끼고 땀을 낸다. 陰寒症을 치료하는 데에도 적합하다.<sup>56)</sup>

- 傷寒으로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代赭石과 乾薑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 내어 뜨거운 醋를 고루 섞어서 양쪽 手心에 바른다. 그리고 두 손을 붙이고서 大腿안쪽에 넣은 후 따뜻하게 덮고서 땀을 내면 낫는다.<sup>57)</sup>

- 傷寒으로 蛔蟲을 토하는 경우에는 花椒와 烏梅肉을 찢어 餅을 만들어서 胸口를 마찰한다.<sup>58)</sup>

- 傷寒感冒에는 생강을 문드러지게 찢어 綿에 싸서 天庭을 마찰한다.<sup>59)</sup>

- 傷寒으로 코피가 흐르는 경우에는 우물물에 黃芩과 白芨을 갈아 山根에 바른다.<sup>60)</sup>

- 傷寒으로 코피가 흐르는 경우에는 白芨을 본인의 코피에 갈아서 山根에 바른다.<sup>61)</sup>

- 傷寒으로 코피가 흐르는 경우에는 종이를 白芨水에 적셔서 眉心에 붙인다.<sup>62)</sup>

- 傷寒으로 코피가 흐르는 경우에는 茶에 決明子를 개어 가슴에 붙이는데, 이는 肺熱을 식한다.<sup>63)</sup>

- 傷寒으로 코피가 흐르는 경우에는 延胡索으로 귀를 막는데, 왼쪽 코에서 피가 흐르면 오른쪽 귀를 막고, 오른쪽 코에서 피가 흐르면 왼쪽 귀를 막는다.<sup>64)</sup>

- 傷寒으로 코피가 흐르는 경우에는 醋와 黃土를 섞어서 陰囊에 바른다.<sup>65)</sup>

- 傷寒으로 코피가 흐르는 경우에는 黃酒에 발을 담근다.<sup>66)</sup>

- 傷寒으로 피를 토하는 경우에는 醋에 大黃을 고루 섞어서 배꼽을 덮어서 가린다.<sup>67)</sup>

- 傷寒으로 피를 토하는 경우에는 白芷와 黑山樞를 달여서 胸口에 붓하여 胃熱을 식한다.<sup>68)</sup>

- 傷寒으로 피를 토하는 경우에는 韭汁과 童便에 鬱金을 갈아서 보드랍게 문혀서 등에 바른다.<sup>69)</sup>

- 傷寒으로 피를 토하는 경우에는 마늘을 짓이겨서 발을 감싸서 熱을 끌어 下行시킨다.<sup>70)</sup>

- 傷寒으로 소변이 通하지 않는 경우에는 生蔥을 찢어서 배꼽아래 가로무늬에 피 바르는데 마르면 바꾸어준다.<sup>71)</sup>

- 傷寒으로 땀이 나는 경우에는 眞丹(鉛丹)가루를 술에 개어 온몸에 바른 후에 불을 마주보고 앉아서

5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

“傷寒無汗 … 或用胡椒、丁香、蔥白搗塗兩掌心，夾腿內側，取汗，治陰寒症皆宜。”

5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

“傷寒無汗 … 又代赭石、乾薑等分爲末，熱醋調塗兩手心，合掌握定，夾于大腿內側，溫覆汗出乃愈。”

5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

“傷寒吐蛔 花椒、烏梅肉搗餅，擦胸口。”

5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感冒 生薑搗爛，綿裹擦天庭。”

6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衄血 井水磨黃芩、白芨塗山根。”

6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衄血 … 又，白芨磨本人鼻血，塗山根。”

6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衄血 … 又，紙浸白芨水，貼眉心。”

6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衄血 … 又. 茶調決明貼胸，以淸肺熱。”

6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衄血 … 又，延胡索塞耳，左鼻塞右，右鼻塞左。”

6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衄血 … 又，醋和黃土，塗腎囊。”

6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衄血 … 又，黃酒浸足。”

6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吐血 醋調大黃掩臍。”

6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吐血 … 又，白芷、黑山樞煎髮胸口，淸胃熱。”

6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吐血 … 又. 韭汁、童便磨鬱金，細蘸擦背。”

7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傷寒吐血 … 又. 蒜泥裹足，引熱下行。”

7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3.

“傷寒小便不通 搗生蔥敷臍下橫紋中. 燥則易之.”

땀을 내면 낫는다.<sup>72)</sup>

- 傷寒으로 혀가 나오는 경우에는 바豆 한 알을 기름을 제거하고 바豆霜으로 하여 종이에 비틀어 말아 콧속에 넣으면 혀가 곧 제자리로 돌아온다.<sup>73)</sup>

- 傷寒咳逆으로 약을 복용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雄黃 2錢을 술 한 잔에 7분이 되게 달여서 식기 전에 그 열기를 말으면 멈춘다.<sup>74)</sup>

- 陰證傷寒으로 腹痛厥逆하는 경우에는 芥菜子를 갈아서 가루 낸 후에 물에 개어 배꼽위에 붙인다.<sup>75)76)</sup>

- 陰毒傷寒에는 生草烏頭를 가루 내어 葱頭に 묻혀서 항문 속에 넣는데, 이것을 提盆散이라 한다.<sup>77)</sup>

- 陰毒傷寒으로 四肢가 逆冷하는 경우에는 吳茱萸一升到 술을 축축하게 버무리고 絹袋 두 개로 싸서 蒸하여 아주 뜨겁게 해서 心에 熨한다. 熱氣가 안으로 전달되면 통증이 멎는데 여러 번 효과를 보았다.<sup>78)</sup>

- 傷寒脫陽으로 소변이 不通한 경우에는 小茴香가루를 생강의 自然汁에 개어 배위에 붙인다. 이외에 小茴香가루를 益元散에 넣어 복용한다.<sup>79)</sup>

- 傷寒狐惑으로 蟲이 下部를 좀먹어 아픔과 가려움이 멎지 않는 경우에는 雄黃 반량을 병속에 태워서 그 下部를 熏한다.<sup>80)</sup>

- 狐惑蟲匿으로 환자의 이빨이 색이 없으며 혀 위가 하얗고, 혹은 잠을 좋아해서 통증과 가려움을 모르거나, 혹은 下痢하거나 하면 서둘러 下部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단지 상부만을 공격할 뿐이니 下部에 蟲이 생겨서 항문을 좀먹고 五臟이 썩으면 곧 죽는다. 썩을 관속에 태워서 下部를 熏하여 나온 연기를 들어가게 하며, 혹은 雄黃을 약간만 추가하면 더욱 좋다.<sup>81)</sup>

- 傷寒遺毒으로 손발이 끊어질 것 같이 붓고 아픈 경우에는 黃蘗 5斤을 물 3升으로 삶아서 적신다.<sup>82)</sup>

- 傷寒毒攻으로 손발이 붓고 아픈 경우에는 羊桃를 삶아서 즙을 내어 약간의 梅주를 넣고 적신다.<sup>83)</sup>

- 結胸傷寒에는 大黃 七寸과 바豆 14알을 함께 가루 내어 침에 개어 餅을 만들어서 배꼽위에 붙이고서 썩으로 뜸을 뜬다. 熱氣가 안으로 스며들어가면 멈춘다. 이 처방은 건장한 자와 수척한 자, 虛한 자와 實한 자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sup>84)</sup>

7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3.

“傷寒發汗 肘後: 用真丹末酒調, 遍身涂之, 向火坐, 得汗愈.”

7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6.

“傷寒舌出 巴豆一粒. 去油取霜, 以紙捻卷, 內入鼻中, 舌即收上. 《普濟方》”

7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0.

“傷寒咳逆 服藥無效. 雄黃二錢, 酒一盞, 煎七分, 趁熱嗅其氣, 即止. 《活人書》”

7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1.

“陰證傷寒 腹痛厥逆. 芥菜子研末, 水調貼臍上. 《生生編》”

76)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6.

“陰症傷寒 腹痛厥逆, 芥菜子研末, 水調, 貼臍上. 《生生編》”

7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0.

“陰毒傷寒 生草烏頭爲末, 以葱頭蘸藥納穀道中, 名提盆散. 《主海藏陰證略例》”

7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2.

“陰毒傷寒 四肢逆冷. 用茱萸一升, 酒拌濕, 絹袋二個, 包蒸極熱, 更互熨足心. 候氣透, 痛亦即止, 累有效. 《聖惠方》”

7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93.

“傷寒脫陽 小便不通. 用茴香末, 以生薑自然汁調傳腹上. 外用茴香末, 入益元散服之. 《摘玄方》”

8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0.

“傷寒狐惑 蟲蝕下部, 痛痒不止. 雄黃半兩, 燒于瓶中, 熏其下部. 《聖惠方》”

8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08.

“狐惑蟲匿 病人齒無色, 舌上白, 或喜睡不知痛痒處, 或下痢, 宜急治下部. 不曉此者, 但攻其上, 而下部生蟲, 食其肛, 爛見五臟, 便死也. 燒艾于管中, 熏下部令烟入, 或少加雄黃更妙. 《肘後方》”

8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44.

“傷寒遺毒 手足腫痛欲斷. 黃蘗五斤, 水三升煮, 漬之. 《肘後方》”

8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1.

“傷寒毒攻 手足腫痛. 羊桃煮汁, 入少鹽豉漬之. 《肘後》”

84)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6.

“結胸傷寒 大黃七寸 巴豆十四粒 共爲末, 用唾調作餅, 蓋在臍上, 以艾團灸之. 候有熱氣透內方住. 此方不拘壯瘦虛實人俱

- 傷寒目翳에는 燒豆豉 27枚를 갈아서 가루 내어 분다.<sup>85)</sup>
- 傷寒으로 혀가 한 치 이상 나온 경우에는 梅花片腦 절반을 가루 내어 뿌리면 즉시 낫는다.<sup>86)87)</sup>
- 傷寒으로 혀에 芒刺가 생기고 씹가 검은 경우에는 새로 길어온 물에 靑布를 담가 혀를 씻고 생강조각으로 혀를 긁으면 저절로 없어진다.<sup>88)</sup>
- 黃耳傷寒에는 苦蓼을 물에 갈아서 컵속에 떨어뜨려 넣는다.<sup>89)</sup>
- 黃耳傷寒에는 苦薄荷즙과 土木香즙을 컵속에 떨어뜨려 넣는다.<sup>90)</sup>
- 傷寒으로 昏迷하고 인사불성인 경우에는 皂莢을 가루 낸 것을 종이로 말아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코로 들어가게 하는데 재채기를 하면 치료할 수 있고 재채기를 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으니, 이는 肺氣가 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sup>91)</sup>

(7)汗證

- 自汗에는 五倍子和 枯礬을 같은 양으로 하여 칩

可用.《同壽錄》”

85)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7.  
“傷寒目翳 燒豆豉二七枚, 研末吹之.《肘後方》”

86)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7.  
“傷寒舌出過寸 梅花片腦半分. 爲末摻之, 隨手而愈.《夷堅志》”

8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38.  
“傷寒舌出過寸者. 梅花片腦半分. 爲末, 摻之, 隨手即愈.《洪邁夷堅志》”

88)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7.  
“傷寒舌生芒刺黑苔 新汲水浸靑布洗其舌. 以姜片刮舌, 自退.《類編》”

89)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7.  
“黃耳傷寒 用苦蓼磨水, 滴入耳中, …《醫寶說》”

90)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7.  
“黃耳傷寒 …, 或用苦薄荷汁, 土木香汁滴入耳中.《醫寶說》”

91)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137.  
“自莢:傷寒, 昏迷, 不省人事, 自莢末, 以紙燒燒烟入鼻, 有嚏可治, 無則不治, 肺氣上絕也.『回春』”

에 개어서 배꼽을 채우고 천으로 감아서 고정시키면 효과가 있다.<sup>92)</sup>

- 盜汗에는 五倍子を 갈아서 가루 내어 사람 젖에 갠 다음 蒸熟시켜서 龍眼肉 크기로 丸을 만든다. 매번 한 알을 배꼽위에 붙이고 곁에는 核桃殼(胡桃殼)을 위에 덮고 천으로 묶어서 고정시킨다. 24시간 만에 다시 바꿔 붙이는데 십일 후가 되면 盜汗이 멎는다.<sup>93)</sup>
- 自汗이 그치지 않은 경우에는 何首烏가루를 칩에 개어 배꼽을 봉한다.<sup>94)95)96)97)</sup>
- 自汗과 盜汗에는 五倍子を 갈아서 가루 내고 칩에 개어 배꼽 속을 채운다.<sup>98)99)100)101)102)</sup>

92)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5.  
“自汗 … 又, 五倍子, 枯礬各等分爲末, 口水調勻, 填臍中, 用布縛定, 亦效.”

9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5.  
“盜汗 五倍子研末, 用人乳調, 蒸熟, 丸如龍眼大, 每用一丸貼臍上, 外以核桃殼蓋上, 用布捆定, 一周時取下再換貼, 至十日後, 即止.”

9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56.  
“自汗不止 何首烏末, 津調, 封臍中.《集簡方》”

95)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9.  
“自汗不止 何首烏末, 津調, 封臍中.《集簡方》”

9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諸汗【氣虛】何首烏貼臍.”

97)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5.  
“自汗 … 又, 何首烏末津涎調塗臍中, 用布捆定, 即止.”

9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49.  
“自汗盜汗 常出爲自汗. 睡中出爲盜汗. 用五倍子研末, 津調填臍中, 傳定, 一夜即止也.《集靈》.”

99)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9.  
“自汗盜汗 隨時出汗爲自汗. 屬陽虛. 睡中出汗爲盜汗, 屬陰虛. 用五倍子研末, 津調, 填臍中縛定, 一夜即止也.《集靈》”

100)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9.  
“盜汗 五倍子去蛀末, 炙乾研末, 男用女唾, 女用男唾, 調厚糊, 填臍中, 用膏藥貼之, 勿令泄氣, 兩次即愈.《種德堂方》”

101)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5.  
“盜汗 … 又. 五倍子焙研細末, 以自漱口調敷臍上.”

- 自汗과 盜汗에는 麻黃根, 蛤粉, 粟米를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내어 자루에 담아서 두드리면 좋다.<sup>103)</sup>

- 脚汗에는 白礬과 乾葛을 달여서 씻는다.<sup>104)</sup>

- 牡蠣粉은 땀을 그치게 하는데, 杜冲과 함께 복용하면 盜汗을 멈춘다. 또 麻黃根과 함께 가루를 내어 몸에 바르면 盜汗을 멎게 한다.<sup>105)</sup>

- 自汗에는 鬱金가루를 꿀이나 침으로 개어서 누운 상태로 양쪽 젖 위에 바른다.<sup>106)107)108)109)</sup>

- 氣가 虛해서 흘리는 모든 땀에는 五倍子를 蕎麥粉과 함께 餅을 만들어서 煨해서 먹고, 또 이를 침을 섞어서 배꼽 속을 채운다.<sup>110)</sup>

- 汗血에는 胎髮을 태운 재를 바른다.<sup>111)</sup>

(8)胸痛

- 中惡心痛에는 白烏骨鷄를 죽여서 가슴을 두드리면 낫는다.<sup>112)</sup>

- 투명한 雄黃과 火硝를 같은 양으로 하고 약간의 麝香을 더하여 함께 가루를 내어 새로 길어온 물에 갠다. 이것을 內眦에 위치한 精明穴에 點眼하는데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點眼하고서 여러 걸음을 걸으면 낫는다.<sup>113)</sup>

- 心痛腹疝과 絞腸痧를 다스리는 경우에는 雄黃과 焰硝를 같은 양으로 하여 깨끗이 해서 아주 곱게 가루를 내는데 매번 조금씩 小眼角에 點眼한다.<sup>114)</sup>

- 心痛腹疝과 絞腸痧를 다스리는 경우에는 마늘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足心에 바르면 편안해진다.<sup>115)</sup>

(9)血證

- 吐血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好酒 4斤을 데워서 두 발을 담그면 멎는다.<sup>116)</sup>

- 吐血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藕汁을 胸口에 바른다.<sup>117)</sup>

- 一切 失血로 眩暈이 있는 경우에는 生地黃으로 귀와 코를 막는다.<sup>118)</sup>

102)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43.  
“治盜汗法 用川五倍子一兩炒黃色研末, 水調爲餅, 貼臍上縛之即止汗. 或以乳調, 蒸熟入臍, 用核桃殼蓋縛更妙.”

103)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9.  
“自汗盜汗 … 一方. 用麻黃根, 蛤粉, 粟米各等分爲末. 袋盛撲之. 佳. 《本草從新》”

10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9.  
“脚汗 白礬, 乾葛煎湯洗. 《濟生編》”

10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96.  
“牡蠣粉: 止汗. 和杜冲服止盜汗, 又和麻黃根爲末, 粉身, 止盜汗. 『本草』”

10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諸汗【氣虛】鬱金塗乳.”

10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5.  
“自汗 鬱金研末, 臨臥時蜜調塗兩乳上, 即止.”

10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83.  
“自汗不止 鬱金末, 臥時調塗于乳上. 《集簡方》”

109)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9.  
“塗乳止汗 川鬱金研細末, 臨臥以津調, 塗乳上自止. 《醫宗必讀》”

11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諸汗【氣虛】五倍子同蕎麥粉作餅, 煨食, 仍以唾和填臍中.”

11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汗血 胎髮燒灰撲之. 《濟生編》”

112)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7.  
“中惡心痛 殺白烏骨鷄, 拍心即瘥. 《廣利方》”

113)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7.  
“心痛點眼法 透明雄黃, 火硝各等分, 加麝香少許, 共爲末, 新汲水調, 點眼內眦精明穴, 男左女右, 扶行數步立愈. 《乾坤生意》”

11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  
“火龍丹治心痛腹疝, 絞腸痧 雄黃, 焰硝各等分, 淨爲極細末, 每用些, 小點小眼角.”

115)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  
“火龍丹治心痛腹疝, 絞腸痧 … 一方. 用大蒜搗爛, 塗足心, 即安. 《易安方》”

11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5.  
“吐血不止 好酒四斤燉滾, 浸兩足, 即止.”

11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5.  
“吐血不止 … 又, 用藕汁, 塗胸口.”

11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5.

- 九竅에서 出血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길어온 물로 발을 씻으면 멎는다.<sup>119)</sup>
- 피를 토하는 경우에는 石榴花를 따다가 바람에 말려서 가루를 내고 콧속에 붙어 넣으면 바로 낫는다.<sup>120)</sup>
- 코피가 멎지 않는 경우에는 薄荷즙을 떨어뜨린다. 혹은 薄荷 말린 것을 물에 끓여서 천으로 싸서 코를 막는다.<sup>121)</sup>
- 코피가 멎지 않는 경우에는 껌질을 제거한 마늘 1枚를 갈아서 銅錢크기 만하게 餅을 만든다. 왼쪽 코에서 코피가 나면 왼쪽 足心에 붙이고 오른쪽 코에서 코피가 나면 오른쪽 足心에 붙인다. 左右에서 모두 피가 흐르면 양쪽 足心에 붙이면 바로 낫는다.<sup>122)123)</sup>
- 코피가 멎지 않는 경우에는 좋은 三白酒를 뜨겁게 달여서 발바닥을 씻으면 바로 멎는다.<sup>124)</sup>
- 코피의 神方: 태워서 재를 낸 甲魚頭(鱉甲의 머리) 七錢과 胎髮灰 三錢을 瓦上에서 炙하여 가루를 내어 붙어 넣으면 바로 낫는다.<sup>125)</sup>

- 舌衄과 齒衄에는 炒한 蒲黃과 소라 각 一錢씩을 가루 내어 혀 위에 두드리고서 소금 끓인 물로 헹군다.<sup>126)</sup>
-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牙瀉라고 하는데, 草決明을 물로 달여서 머금으면 바로 낫는다.<sup>127)</sup>
- 잇몸에서 一錢정도 피가 나는 경우에는 약간 炒한 槐花를 가루 내어 손가락으로 가루를 문혀서 이를 닦으면 된다.<sup>128)</sup>
- 齒縫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梧桐淚를 갈아서 가루 내어 마른 것을 齒縫에 붙이는데 만약에 멎지 않으면 다시 바꾸어 준다.<sup>129)</sup>
- 齒縫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紙紮子에 마른 蟾酥 약간을 출혈이 있는 곳에 묻히고서 누르면 곧 멎는다.<sup>130)</sup>
- 콧속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약간의 麝香을 藥性이 남게 煨하여서 火毒을 빼낸 人牙와 함께 곱게 가루 내어 약간만 붙어 넣으면 멎는다.<sup>131)</sup>
- 小便에 피가 섞인 경우에는 蒿苳菜를 찢어 배꼽에 찢어 붙이면 된다.<sup>132)133)134)</sup>

“一切失血眩暈 生地塞耳鼻”  
 119)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5.  
 “九竅出血 新汲水洗足. 卽止.”  
 12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1.  
 “吐血 采石榴花風乾作末, 吹鼻中立瘥. 《吳瑞本草》”  
 12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1.  
 “衄血不止 薄荷汁滴之, 或以乾者水煮, 綿裹塞鼻. 《許學士本事方》”  
 122)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05.  
 “鼻血不止 用蒜一枚去皮, 研泥作餅, 如銅錢大. 左鼻出貼左足心, 右鼻出貼右足心, 左右俱出, 貼兩足心, 立瘥. 《簡要濟衆方》”  
 12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吐血衄血【從治】 胡蒜貼足心. 并主衄血.”  
 12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30.  
 “鼻血不止 用好三白酒煎熱, 洗足底心立止.”  
 125)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30.  
 “鼻血神方 用甲魚頭燒灰七錢、胎髮灰三錢、瓦上炙爲末, 吹之立愈.”

12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1.  
 “舌衄齒衄 蒲黃炒 螺青各一錢 爲末, 搽舌上, 鹽湯漱. 《明醫指掌》”  
 127)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1.  
 “牙齦出血名牙瀉 草決明煎水, 嚙之立止. 《奇方類編》”  
 128)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1.  
 “牙關出血如一錢 槐花略炒爲末, 以指頭蘸末搽牙, 以止爲度. 《奇方類編》”  
 129)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齒縫出血 梧桐淚研末, 乾貼齒縫, 如血不止, 另易之. 《准繩》”  
 13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齒縫出血 … 一方, 用紙紮子蘸乾蟾酥少許于出血處, 按之立止. 《准繩》”  
 13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耳中出血 麝香少許, 人牙煨存性, 出火毒, 共爲細末, 用少許吹之卽止. 《秘方集驗》”  
 132)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小便尿血 蒿苳菜搗敷臍上卽止. 《海上方》”  
 13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지나친 性交로 인해 생긴 女人의 性器出血에는 五倍子を 가루 내어 뿌리면 좋다.135)
- 白礬을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36)
- 珊瑚를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37)
- 불에 쪼여서 간 蝸牛를 烏賊骨과 함께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38)
- 蠹蟲、水蛭、五倍子 가루를 물로 복용하고 아울러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39)
- 납거미집을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40)
- 龍骨을 복용하면 吐血이 멎고,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41)
- 五賊骨을 가루 내어 복용하면 갑작스러운 吐血을 다스리고,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42)
- 鱗血을 코에 떨어뜨리면 코피가 멎는다.143)

p.90.  
“小便血【尿血】菖菝貼臍.”  
13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出血. 菖菝搗敷臍上.”  
135)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女人陰血因交接傷動者 五倍子末摻之良. 《熊氏方》”  
13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白礬吹鼻, 止衄.”  
13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珊瑚吹鼻, 止衄.”  
13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蝸牛焙研, 同烏賊骨吹鼻, 鼻衄.”  
13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蠹蟲 水蛭 五倍子末水服. 并吹鼻. 止衄.”  
14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壁錢窠塞鼻, 止衄.”  
14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龍骨服, 止吐血, 吹鼻, 止衄.”  
14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烏賊骨末服, 治卒吐血; 吹鼻, 止衄.”  
14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鱗血, 滴鼻, 止衄.”

- 고슴도치껍질 태운 재를 코에 붙어 넣으면 피가 멎는다.144)
- 흰말의 오줌을 먹고 코를 막으면 吐血과 衄血이 멎는다.145)
- 소의 귀지로 귀를 막으면 코피가 멎는다.146)
- 髮灰는 瘀血을 흘리지게 한다.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47)
- 人爪甲을 깎아서 가루 내어 코에 붙면 코피가 멎는 것이 신묘하다.148)
- 人中黃을 가루 내어 복용하면 嘔血을 다스리는 데 태워서 재를 만들어 코에 붙어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49)
- 白芷는 宿血을 破하고 新血을 補한다. 山根에 바르면 코피가 멎는다.150)
- 玄胡索으로 귀를 막으면 코피가 멎는다.151)
- 입이나 코에서 피가 심하게 나면 태워서 재를 낸 折弓弦과 白礬을 함께 붙어 넣는다.152)
- 酥、酪、醍醐을 코에 흘려 넣으면 코피가 멎는다.153)

14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猬皮灰吹鼻止衄.”  
14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白馬通服汁, 塞鼻, 并止吐衄.”  
14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牛耳垢塞鼻, 止衄.”  
14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髮灰散瘀血. …, 吹鼻, 止衄.”  
14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吐血衄血【逐瘀散滯】人爪甲刮末吹鼻, 止衄妙.”  
14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吐血衄血【滋陰抑陽】人中黃末服. 主嘔血. 燒灰, 吹鼻衄.”  
15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吐血衄血【理氣導血】白芷破宿血, 補新血. 涂山根, 止衄.”  
15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吐血衄血【理氣導血】玄胡索塞耳. 并止衄.”  
15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吐血衄血【理氣導血】折弓弦口鼻大衄, 燒灰同白礬吹之.”

- 吐血衄血에는 생강즙을 복용하고 코에 떨어뜨린다.<sup>154)</sup>

- 吐血衄血에는 정수리에芥菜子를 바른다.<sup>155)</sup>

(10)嘔吐

- 嘔吐하며 얼굴이 붉고手心과足心에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竹茹와生薑을 즙을 내어 천에 적셔서胸口를 마찰한다.<sup>156)</sup>

- 吐가 심하여 멎지 않는 경우에는附子를 달여서 발에 문지른다.<sup>157)</sup>

- 藥 냄새만 맡아도 吐하는 것을 갖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집안의灶心土(伏龍肝)를 물로 丸을 만들어 양쪽 콧구멍을 막으면 吐하지 않게 되니 아주 효과가 좋다.<sup>158)159)</sup>

- 吐泄이 멎지 않는 경우에는醋에南星가루를 고루 섞어足心에 붙인다.<sup>160)</sup>

- 약을 복용해도 嘔吐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硫黃과乳香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내어 술로 달이는데, 서둘러 환자로 하여금 냄새를 맡으라고 하면

멎는다.<sup>161)</sup>

- 嘔吐에는雄黃二錢을酒 한잔에 7분이 되게 달여서 식기 전에 吐하려는 환자가 냄새를 맡게 하면 멎는다.<sup>162)</sup>

(11)呃逆

- 陰寒으로 딸꾹질을 하는 경우에는外用의 목적으로生薑으로 가슴 앞을 비비면 아주 효과가 크다.<sup>163)</sup>

- 陰寒으로 딸꾹질을 하는 경우에는黃蠟을 태워서 연기를 내어 두 세 차례 씌면 멎는다.<sup>164)</sup>

- 虛寒으로 딸꾹질을 하는 경우에는麻黃을 태워서 나는 연기를 마신다.<sup>165)</sup>

- 오래된病으로 딸꾹질을 하는 경우에는生강즙과白蜜을 고르게 섞어서 등을 비빈다.<sup>166)</sup>

- 咳逆으로 인한 딸꾹질에는硫黃을 태워서 나는 연기를 마시면 바로 멎는다.<sup>167)</sup>

- 陰證으로 인한 딸꾹질에는乳香과硫黃을 함께 태워서 나는 연기를 마신다.<sup>168)</sup>

15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吐血衄血【調中補虛】酥酪 醎糊灌鼻, 止涕血.”  
15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吐血衄血【從治】姜汁服汁, 仍滴鼻.”  
15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吐血衄血【從治】芥子涂函.”  
15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嘔吐面赤, 手足心熱者 竹茹, 生薑絞汁, 綿浸擦胸口.”  
157)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大吐不止 附子煎湯抹足.”  
158)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聞藥即吐, 百治不效 取家中灶心土. 水爲丸, 塞兩鼻孔即不吐, 極效.”  
159)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0.  
“塞鼻丸 聞藥即吐, 百藥不效. 伏龍肝爲末, 水丸, 塞兩鼻孔, 遂不再吐, 如神. 《經驗廣集》”  
16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4.  
“吐泄不止, 醋調南星末, 貼足心. 《普濟方》”

161)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0.  
“鼻嗅散 服藥不效, 用硫黃、乳香各等分爲末酒煎, 急令病人嗅氣即住. 《衛生易簡方》”  
162)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0.  
“入效丹 雄黃二錢、酒一盞煎至七分, 乘熱令吐者嗅氣即止. 《普濟方》”  
16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陰寒呃逆 外用生薑擦胸前, 最效.”  
16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陰寒呃逆 … 又, 黃蠟燒煙, 熏二三次, 即止.”  
16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虛寒呃逆 燒麻黃煙嗅.”  
16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1.  
“久病呃逆 薑汁 白蜜 和勻擦背.”  
16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7.  
“咳逆打呃 硫黃燒煙, 嗅之立止. 《醫方摘要》”  
16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33.  
“陰症呃逆 乳香同硫黃燒煙, 嗅之. 《傷寒蘊要》”

- 딸꾹질이 멎지 않는 경우에는 黃蠟을 태워서 나는 연기를 두세 번 쪼뼀 맞는다.169)170)

(12)泄瀉

- 寒泄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胡椒가루와 밥을 섞어서 餅을 만들어 배꼽위에 펴서 붙인다.171)

- 寒泄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뜨거운 柴灰를 천으로 싸서 펴 바른다.172)

- 寒泄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炒하여 펴서 바른다.173)

- 寒泄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糯米酒糟와 炒한 소금을 함께 펴 바른다.174)

- 寒泄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酒炒한 艾絨으로 餅을 만들어서 펴 바른다.175)

- 寒泄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胡椒와 大蒜을 餅을 만들어서 펴 바른다.176)

- 寒泄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車前子와 肉桂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내어 배꼽에 넣는다.177)

- 熱泄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車前子를 찢어 즙을

내고 같은 양의 甘草가루와 滑石가루를 개어서 배꼽에 펴 바른다.178)

- 氣가 虛해서 暴泄한 경우에는 硫黃、枯礬、朱砂를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를 만들고서 丸을 만들어 배꼽에 넣는다.179)

- 泄瀉가 오래되어 멎지 않는 경우에는 大蒜을 찢어서 足心에 붙이거나 배꼽에 붙인다.180)181)

- 泄瀉가 오래되어 멎지 않는 경우에는 大蒜에 銀朱를 가해 찢어 녹이고서 배꼽 속에 펴 바르면 귀신같이 바로 멎는다.182)

- 泄瀉가 오래되어 낫지 않는 것은 生葱을 문드러지게 찢고 黃丹을 넣어서 大豆만 하계 丸을 만든다. 이것을 배꼽 속에 채워 넣고 곁에는 膏藥을 붙이면 바로 멎는다.183)

- 泄瀉에는 田螺를 배꼽에 붙인다.184)

- 泄瀉가 오래되어 멎지 않는 경우에는 土木鱉子、丁香、麝香을 곱게 갈아서 침에 개어 黃豆크기 정도의 丸을 만들어서 배꼽 속에 넣는다.185)186)187)

16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43.  
 “呃逆不止 黃蠟燒煙熏, 二三次卽止. 《醫方摘要》”  
 170)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1.  
 “呃逆不止 黃蠟燒煙, 熏二三次卽止. 《醫方摘要》”  
 171)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治寒泄 胡椒末和飯作餅, 敷貼臍上.”  
 172)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治寒泄 … 又, 熱柴灰布包敷.”  
 17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治寒泄 … 又, 炒鹽敷.”  
 17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治寒泄 … 又, 糯米酒糟和鹽炒敷.”  
 17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治寒泄 … 又, 酒炒艾絨作餅敷.”  
 17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治寒泄 … 又, 胡椒、大蒜作餅敷.”  
 177)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治寒泄 … 又, 車前子 肉桂各等分 研末納臍.”

178)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治熱泄 車前子搗汁, 調甘草末、滑石末, 各等分. 敷臍”  
 179)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氣虛暴泄 硫黃 枯礬 朱砂各等分 研細末丸. 納臍.”  
 180)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久泄不止 大蒜搗貼足心, 或貼臍中.”  
 18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  
 “泄瀉【外治】大蒜貼兩足心, 亦可貼臍.”  
 182)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久泄不止 … 又, 大蒜須加銀朱搗融, 敷臍眼內, 立止如神.”  
 183)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久瀉不痊 生葱搗爛, 入黃丹爲丸, 如豆大. 填臍中, 外用膏藥貼之, 立止. 《十便良方》”  
 18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  
 “泄瀉【外治】田螺傳臍.”  
 18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  
 “泄瀉【外治】木鱉子同丁香、麝香貼臍上, 虛泄.”  
 18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2.  
 “久泄不止 … 又, 土木鱉半個 母丁香四粒 麝香一分 共爲細末,

- 泄瀉에는 蛇床子와 熟艾 각각 1냥, 木鱉子 4개를 고르게 갈고 천으로 싸서 배꼽위에 놓고 다리미 같은 물건으로 눌러서 찌른다.<sup>188)</sup>
- 泄瀉에는 蓖麻仁 7개를 熟艾 반냥, 硫黃 2錢과 함께 고르게 갈고 천으로 싸서 배꼽위에 놓고 다리미 같은 물건으로 눌러서 찌른다.<sup>189)</sup>
- 小兒의 泄瀉에는 巴豆紙를 꽃모양으로 오려서 양眉間에 붙인다.<sup>190)</sup>
- 泄瀉에는 赤小豆를 술에 고루 섞어서 足心에 붙인다.<sup>191)</sup>

**(13)痢疾**

- 痢疾을 다스리는 처방: 환자의 나이 수만큼의 胡椒를 가루를 내고, 꼬리머리·가시·내장을 제거한 붕어 1마리의 속에 胡椒가루를 넣고 짓찧어서 나온 즙을 배꼽에 바르면 효과가 매우 좋다.<sup>192)</sup>
- 痢疾을 다스리는 처방: 茜草 한 움큼을 물로 달여서 양쪽 足底를 씻으면 낫는다.<sup>193)194)</sup>

口水調爲丸, 如黃豆大, 納臍中, 外用不拘, 小膏藥貼之立止.”

187)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水瀉不止 木鱉仁 母丁香各五個 麝香一分 研末, 米湯調作膏. 納臍中貼之, 外以膏藥護住. 《吳旻扶壽精方》”

18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  
 “泄瀉【外治】蛇床子同熟艾各一兩, 木鱉子四個, 研勻, 綿包安臍上, 熨斗熨之.”

18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  
 “泄瀉【外治】蓖麻仁七個. 同熟艾半兩, 硫黃二錢, 如上法用(研勻, 綿包安臍上, 熨斗熨之).”

19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  
 “泄瀉【外治】巴豆紙小兒泄, 剪作花, 貼眉心.”

19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  
 “泄瀉【外治】赤小豆酒調, 貼足心.”

19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治痢方 胡椒一歲一粒, 打碎 大鯽魚一介, 去頭尾骨腸 入椒末搗濃, 敷臍上, 甚效.”

19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治痢方 … 又, 茜草一握 煎水浸兩足底.”

19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 痢疾을 다스리는 처방: 梧桐葉 3~4근을 물에 달여서 발을 씻으면 저절로 낫는다.<sup>195)196)</sup>
- 痢疾을 다스리는 처방: 갈아서 가루 낸 川椒 五錢, 麝香 一分, 皮核을 제거한 大棗肉 一枚. 앞의 川椒와 麝香을 가루 내어 대추 살 위에 놓고 섞어서 배꼽에 놓은 다음, 어떠한 膏藥으로든지 덮는다.<sup>197)</sup>
- 痢疾點眼法: 막 태어난 태아의 糞을 기와위에서焙乾한 것 一錢, 雄黃 四分, 梅花冰片 五釐를 아주 곱게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양쪽 눈 內角에 點眼하는데, 紅白痢와 위독한 噤口痢를 막론하고 모두 神效하다.<sup>198)</sup>
- 紅白痢에는 물 없는 곳에서 자란 수염이 달린 蔥 24뿌리를 천으로 닦아서 진흙을 제거한 것, 眞麻油 24냥, 鉛粉 4냥을 사용하는데, 파를 眞麻油에 넣고 끓여서 찌꺼기는 제거하고 鉛粉을 넣어膏를 만들어서 기름종이를 배꼽과 배에 퍼서 고약을 붙인다. 24시간 만에 한번 바꾸는데 3장을 바꾸면 다 낫는다. 임신부는 붙이는 것을 금기한다.<sup>199)</sup>
- 痢疾 뒤의 脫肛에는 五倍子 가루 三錢과 白礬 한 덩어리를 물로 달여서 씻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sup>200)201)</sup>

p.54.  
 “治痢仙方 茜草一握煎水, 洗兩足底即愈. 《奇方類編》”

19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治痢方 … 又, 梧桐葉三四斤 煎水洗足.”

19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治痢仙方 … 一方. 用梧桐葉三四斤, 煎水洗足自愈. 《奇方類編》”

19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治痢方 … 又, 川椒五錢, 研末 麝香一分 大棗一枚去皮核 將二藥末摻棗上, 放入肚臍, 不拘何等膏藥蓋之.”

19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痢疾點眼法 初胎小兒糞瓦上焙乾, 一錢 雄黃四分 梅花冰片五厘 爲極細末, 水調點兩眼內角, 無論紅白痢及噤口痢危篤者, 皆神效.”

19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紅白痢 蔥二十四根連須, 不見水, 用布拭去泥 眞麻油二十兩 鉛粉四兩 將蔥入油熬, 去渣, 入鉛粉收膏, 油紙攤貼肚臍, 一周時一換, 三張全愈. 孕婦忌貼. 又, 吳茱萸 黃蓮 木香各等分 研細末敷臍.”

- 痢疾 후의 脫肛에는 서리 맞은 浮萍草를 새 기와에 焙乾하여 가루를 내어 뜨겁게 달군 신바닥 위에서 熨한다.<sup>202)203)</sup>

- 噤口痢에는 찢어 뺀 田螺 1개에 약간의 麝香을 넣고 배꼽을 덮어씌우는데 이는 熱을 끌어 下行시키니 효과가 있다.<sup>204)</sup>

- 噤口痢에는 새로운 큰 附子 1개를 조각을 내어 새 石灰위에 붙여서 물을 뿌린다. 뜨거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곧 附子조각을 배꼽위에 붙이고 식으면 다시 바꾸는데 서너 번 붙이면 낫는다.<sup>205)</sup>

- 噤口痢에는 서리 맞은 黃瓜藤이 아주 효과가 좋은데, 藥性이 남게 태워서 香油에 고루 섞어서 배꼽에 퍼 바른다.<sup>206)</sup>

- 噤口痢에는 吳茱萸를 갈아 가루를 내어 醋에 고루 섞어 양 足心에 퍼 바르면 효과가 아주 좋다.<sup>207)</sup>

- 疳을 다스리는 방법: 남자, 부인, 소아의 오래된 痢疾이 온갖 방법에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이 처방이

가장 효험이 있다. 丁香, 麝香, 黃蓮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찢어서 가루를 내어 살구 씨 크기 정도를 대나무 통을 사용하여 下部에 넣는다.<sup>208)</sup>

- 下痢로 향문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볶은 소금을 싸고 앉아서 熨한다.<sup>209)210)</sup>

- 胃寒으로 下痢하는 경우에는 羊肉 1片和 菘菹子 가루 1냥을 섞어 천으로 싸서 향문에 넣는다. 두 번 이면 낫는다.<sup>211)</sup>

- 虛寒으로 下痢하는 경우에는 硫黃반냥, 蓖麻仁7개를 가루 내어 배꼽 속에 채워 넣고 옷으로 덮은 뒤 熱湯으로 熨한다.<sup>212)213)</sup>

- 虛寒으로 下痢하여 腸滑을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鍼砂 七錢半, 官桂 一錢, 枯礬 一錢을 가루 내어 시원한 물에 개어 배꼽위아래로 퍼고 천으로 감는다. 너무 뜨겁다고 느끼면 물로 적신다. 3~4차례 사용할 수 있으며 玉胞肚라고 이름 한다.<sup>214)215)</sup>

- 噤口痢와 小兒의 泄瀉에는 大蒜을 찢어서 양 足

20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痢後脫肛 五倍子三錢, 研末 白礬一塊 水煎洗, 并可研末, 塗少許于肛門四旁.”

20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痢後脫肛 … 一方, 用五倍子末三錢、白礬一塊水煎, 洗之立效. 《三因方》”

20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痢後脫肛 … 又, 經霜浮萍草, 新瓦焙乾爲末, 熱鞋底上熨之.”

203)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痢後脫肛 經霜浮萍草, 瓦焙乾爲末, 熱鞋底上熨之. 《馮氏錦囊》”

20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44.  
“噤口痢 田螺一介 搗碎, 入麝香少許 罨臍中, 引熱下行, 卽效.”

20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44.  
“噤口痢 … 又, 新大附子一介 切片, 貼于新石灰上, 洒之以水, 俟熱卽取附子片貼臍上, 冷再換, 貼三四次愈.”

20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44.  
“噤口痢 … 又, 黃瓜藤經霜者更效, 燒存性 香油調敷臍上.”

20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3, 44.  
“噤口痢 … 又, 吳茱萸研末醋調, 敷兩足心極效.”

20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4.  
“療疳法 男婦小兒久痢, 百方不效, 此方最驗. 用丁香 麝香 黃蓮各等分 搗爲末, 似杏核大, 取竹筒取入下部.”

20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2.  
“下痢肛痛 不可忍者. 熬鹽包坐熨之. 《肘後方》”

21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腹中絞痛痢下窘迫 炒鹽二包. 互相熨之. 《世效單方》”

21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25.  
“胃寒下痢 羊肉一片, 菘菹子末一兩和, 以綿裹納下部. 二度瘥. 《外台方》”

21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7.  
“下痢虛寒 硫黃半兩. 蓖麻仁七個, 爲末. 填臍中, 以衣隔, 熱湯熨之, 止乃已. 《仁齋方》”

21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  
“痢【外治】 蓖麻同硫黃搗, 貼臍.”

21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7.  
“虛寒下痢 腸滑不禁. 鍼砂七錢半, 官桂一錢, 枯礬一錢, 爲末, 以涼水調攤臍上下, 縛之. 當覺大熱, 以水潤之. 可用三四次, 名玉胞肚. 《仁存方》”

21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  
“痢【外治】 鍼砂同官桂、枯礬, 水調貼臍.”

心에 붙이는데 배꼽에 붙어도 곧 낫는다.<sup>216)217)</sup>

- 噤口痢에는 木鱉子 6개를 가루 내어 두 개로 나눈다. 麪을 익혀서 만든 餅 1개를 반으로 자르고 그중 반개에만 하나의 구멍을 내어 속에 藥을 넣는다. 熱이 식기 전에 배꼽위에 덮고서 잠시 후에 다시 나머지 반개를 바꾸어 붙이면 이질이 멎는다. 痢疾이 멎으면 음식생각이 난다. <sup>218)219)220)</sup>

- 毒痢噤口에는 水蛙 1개를 내장과 함께 찢어서 질그릇에 烘熱한 다음, 麝香 5분을 넣고 餅을 만들어 배꼽에 붙인다. 이렇게 하여 氣가 通하면 밥을 먹을 수 있다.<sup>221)</sup>

- 老少瘰癧로 밤낮으로 백여 차례 설사하는 경우에는 마른 楮葉3냥을 찢어서 가루를 낸다. 매번 方寸匕(사방 한 치 크기의 양)를 복용하는데 하루에 2번을 烏梅湯으로 복용한다. 양고기로 닳나무 잎의 가루를 싸서 항문 속에 넣으면 이질이 멎는다.<sup>222)</sup>

- 泄瀉와 暴痢에는 大蒜을 찢어서 양쪽 足心에 붙

이며 배꼽에 붙이기도 하는데, 바로 낫는다.<sup>223)</sup>

- 赤白痢에는 양에 상관없이 새로운 巴豆를 같은 것과 깨끗한 것을 곱게 갈은 雄黃으로 膏를 만든다. 환자의 眉心을 물로 깨끗이 씻고 膏를 기름종이 위에 펴고서 眉心に 붙인다.<sup>224)</sup>

- 오래된 痢疾로 大腸이 滑脫한 경우에는 訶子, 赤石脂, 龍骨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낸다. 臘茶약간을 앞의 약들과 함께 섞어서 항문 위를 絹帛으로 비벼 넣는다.<sup>225)</sup>

- 痢疾에는 芥菜子와 생강을 함께 찢어서 膏를 만들어 배꼽을 封한다.<sup>226)</sup>

- 痢疾에는 黃丹과 마늘을 찢어서 배꼽을 封하고 足心에 붙인다.<sup>227)</sup>

- 痢疾에는 水蛙에 麝香을 넣고 찢어서 배꼽에 붙인다.<sup>228)</sup>

- 痢疾에는 田螺에 麝香을 넣고 찢어서 배꼽에 붙인다.<sup>229)</sup>

#### (14)霍亂

- 霍亂으로 배가 아프며 轉筋하는 경우에는 芥菜子를 곱게 가루 내어 배꼽 속에 채워 넣으면 효과가

21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8.

“下痢噤口及小兒泄瀉, 大蒜搗貼兩足心, 亦可貼臍中. 《千金方》”

217)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泄瀉暴痢 大蒜搗, 貼兩足心, 亦可貼臍中, 即愈. 《千金翼》”

21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39.

“痢疾噤口 木鱉仁六個研泥, 分作二分. 用麵燒餅一個, 切作兩半. 只用半餅作一竅, 納藥在內, 乘熱覆在病人臍上, 一時再換半個熱餅. 其痢即止, 遂思飲食. 《邵真人經驗方》”

219) 彭靜山點校. 華陀神醫秘傳.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90.

“華佗治噤口痢神方: 用木鱉子六枚, 去殼取淨仁研泥. 分作二分, 用麵燒餅一枚, 切作兩半. 以半餅作一竅, 內藥其中, 乘熱覆患者臍. 約炊許, 再換其半. 痢止即思食.”

22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

“痢【外治】木鱉子六個研, 以熱麵餅挖孔, 安一半, 熱貼臍上, 少頃再換即止.”

22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89.

“毒痢噤口 水蛙一個, 并腸肚搗碎, 瓦烘熱, 入麝香五分, 作餅, 貼臍上, 氣通即能進食也.”

22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83.

“老少瘰癧 日夜百餘度者. 取乾楮葉三兩, 搗爲末. 每服方寸匕, 烏梅湯下, 日再服. 取羊肉裘末, 納肛中, 利出即止. 《楊炎南行方》”

223)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泄瀉暴痢 大蒜搗, …, 亦可貼臍中, 即愈. 《千金翼》”

224)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赤白痢 巴豆新者不拘多少(研如泥) 雄黃明淨者研極細 共成爲膏. 將病人眉心中穴用水洗淨, 以膏攤油紙上, 每用. 《內府秘方》”

225)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4.

“久痢大腸滑脫 訶子 赤石脂 龍骨各等分 爲末, 以蠟茶少許和藥, 搽腸頭上, 用絹帛揉入. 《景岳全書》”

22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

“痢【外治】芥子同生姜搗膏封臍.”

22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

“痢【外治】黃丹同蒜搗封臍, 仍貼足心.”

22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

“痢【外治】水蛙入麝搗, 貼臍.”

22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

“痢【外治】田螺入麝搗, 貼臍”

있다.<sup>230)231)</sup>

- 霍亂으로 배가 아픈 경우에는 蒜과 鹽을 배꼽에 퍼 바른다.<sup>232)</sup>

- 霍亂으로 배가 아픈 경우에는 짓쫄은 蒜에 黃蠟을 넣어서 足心에 바른다.<sup>233)</sup>

- 霍亂으로 배가 아픈 경우에는 皂角 가루를 콩알 크기 정도의 양을 코에 붙여 넣고서 재채기를 하면 편안해진다.<sup>234)</sup>

- 霍亂으로 배가 아픈 경우에는 南星을 醋에 고루 섞어 양쪽 足心에 바른다.<sup>235)</sup>

- 乾濕霍亂으로 轉筋하는 경우에는 大蒜을 찢어 足心에 붙이면 바로 낫는다.<sup>236)237)</sup>

- 霍亂으로 轉筋하고 몸이冷하며 心下가 微溫한 경우에는 朱砂 간 것 2냥과 蠟 3냥을 섞어서 丸을 만든다. 이것을 火籠속에 넣고 熏하는데 주위를 두텁게 덮고서 연기가 새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床아래에 불을 놓아 배를 약간 따뜻하게 하면 조금 후에 땀이 나면서 살아난다.<sup>238)239)240)</sup>

230)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3.

“霍亂腹痛, 兩腿轉筋 芥菜子研細末, 填臍內入效.”

23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

“霍亂【寒濕】芥子搗末敷臍.”

232)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3.

“霍亂腹痛, … 又, 蒜、鹽敷臍.”

23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3.

“霍亂腹痛, … 又, 蒜泥加黃蠟塗足心.”

23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3.

“霍亂腹痛, … 又, 皂角末吹一豆大入鼻, 取嚏即安.”

23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3.

“霍亂腹痛, … 又, 南星醋調, 塗兩足心.”

23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8.

“乾濕霍亂 轉筋. 用大蒜搗塗足心, 立愈.《永類鈴方》”

23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

“霍亂【寒濕】胡蒜轉筋, 搗貼足心.”

23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3.

“霍亂轉筋 身冷, 心下微溫者. 朱砂研二兩, 蠟三兩, 和丸著火籠中熏之, 周圍厚覆, 勿冷煙泄. 兼床下着火, 令腹微暖, 良

- 霍亂으로 轉筋하며 배까지 땅기는 경우에는 生薑 3냥을 찢고 술 1升으로 끓이되 두세 번 정도 솟아 오르게 끓은 뒤에 복용한다. 아물러 생강을 찢어 아픈 곳에 붙인다.<sup>241)</sup>

- 霍亂으로 轉筋하고 배가 아픈 경우에는 苦酒를 끓이고 솜으로 싸낸다.<sup>242)</sup>

- 霍亂으로 轉筋하며 배까지 땅겨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米醋를 끓여서 푸른 천으로 胸腹에 바른다.<sup>243)244)245)246)</sup>

- 吐瀉厥逆으로 人事不省인 경우에는 南星을 가루 내어 생강, 대추와 함께 달여서 복용하고 南星가루를 醋에 섞어서 足心에 붙인다.<sup>247)</sup>

久當汗出而蘇.《外台秘要》”

23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0.

“霍亂【濕熱】朱砂霍亂轉筋已死. 心下微溫者, 以二兩和蠟三兩燒煙, 熏之汗出而蘇.”

240)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9.

“霍亂轉筋身冷心下微溫者, 朱砂二兩(研) 蠟三兩 和丸着火, 籠中熏之, 周圍厚覆, 勿冷煙泄. 兼床下着火, 令腹微暖, 良久, 當汗出而蘇.《外台秘要》”

24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7.

“霍亂轉筋 入腹欲死. 生薑三兩搗, 酒一升, 煮三兩沸服. 仍以薑搗貼痛處.《外台秘要》”

242)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9.

“霍亂轉筋腹痛 以苦酒煮絮裹之.《聖惠方》”

243)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9.

“霍亂轉筋入腹無可奈何者 以米醋煮青布搽之, 冷即易.《千金方》”

24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3.

“霍亂腹痛, … 又, 熱醋煮青布, 抹胸腹.”

24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300.

“醋: 治轉筋. 取衣絮漬醋, 煮令溫, 裹患處, 冷則易即愈.『千金』”

246) 唐·孫思邈撰. 備急千金要方.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30.

“霍亂轉筋入腹, 不可奈何者方: … 又方: 以醋煮青布之, 冷復易之.”

24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0.

“霍亂【寒濕】南星: 吐瀉厥逆, 不省人事, 爲末, 姜、棗同煎服, 仍以醋調貼足心.”

- 霍亂으로 배가 아픈 경우에는 炒한 소금으로 가슴과 배를 熨하여 熱氣가 투과하게 한다.248)249)250)
- 霍亂으로 轉筋하며 배가 아픈 경우에는 炙한 銅器로 따뜻하게 熨한다.251)
- 霍亂으로 轉筋한 것을 다스리는 처방: 수레바퀴 통 속의 기름을 足心에 바르면 낫는다.252)
- 霍亂으로 轉筋하며 배까지 땅겨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주 짜게 소금물을 끓여서 지게미속에 넣고 따뜻하게 적신다.253)

(15) 腹痛

- 腹痛厥逆한 경우에는 芥菜子를 가루 내어 따뜻한 물에 개어서 배꼽위에 붙인다.254)
- 寒證腹痛에는 炒한 蔥과 생강으로 熨한다.255)
- 寒證腹痛에는 炒한 소금으로 熨한다.256)257)258)

- 熱證腹痛에는 銅鐵이나 시원한 물건으로 熨한다.259)
- 蟲疾腹痛인 경우에 川棟肉을 술에 담근 후에 綿으로 싸서 항문을 막는다.260)
- 蟲疾腹痛인 경우에 小兒은 煨한 大蒜으로 항문을 막는다.261)
- 尸疰腹痛으로 脹急하여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위로는 心胸으로 치밀어 오르고 옆으로는 양쪽 옆구리를 치밀어서 脇痛이 발생하거나, 혹은 瘰癧가 솟아오르는 경우에는 商陸根을 끓여서 주머니에 담아 고대로 熨하면 효과가 있다.262)
- 갑자기 배가 黑色을 띠면 鉛粉와 소금을 볶아서 펴 바르면 즉시 효과가 있다.263)
- 氣滯로 腹脹하고 손등·다리·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大麥과 醋지게미를 炒하여 뜨겁게 한 다음 천으로 싸서 熨하는데 2~3번 바꾸어주면 낫는다.264)
- 갑자기 배가 아프면 본인의 머리카락 30개를 태워서 술로 복용한다. 곧 이어서 물에 芥子가루를 고투 섞어 배꼽 속을 封하고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 편안해진다.265)

24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  
“霍亂【寒濕】炒鹽: 霍亂腹痛, 熨之. 轉筋欲死者, 填臍灸之.”  
24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1.  
“霍亂腹痛 炒鹽一包, 熨其心腹, 令氣透; 又以一包熨其背. 《救急方》”  
250)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9.  
“霍亂腹痛甚者 炒食鹽一包, 熨其心腹, 令氣透. 《簡易方》”  
25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  
“霍亂【寒濕】銅器: 霍亂轉筋腹痛, 炙熱熨之.”  
252) 唐·孫思邈撰. 備急千金要方.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30.  
“治霍亂轉筋方: 車轂中脂涂足心下, 瘥.”  
253) 唐·孫思邈撰. 備急千金要方.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630.  
“霍亂轉筋入腹, 不可奈何者方: 極鹹作鹽湯, 于槽中暖漬之.”  
25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  
“腹痛厥逆. 用芥菜子末, 溫水調貼臍上.”  
25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9.  
“寒症腹痛 或炒葱姜熨之; ….”  
25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9.  
“寒症腹痛 … 或炒鹽熨之.”  
257)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  
“腹急痛, 一切男婦腹痛緊急, 不知何病, 只用鹽微炒, 或布或絹包, 熨痛處, 立止. 《傳家寶》”

258)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  
“腹痛危篤 黑鹽四兩炒極熱, 以絹包鹽置臍上, 用錫壺注滾水于包上, 熨之即愈. 《經驗良方》”  
259)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9.  
“熱症腹痛 用銅鐵冷物熨之.”  
260)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9.  
“蟲疾腹痛 川棟肉酒浸, 綿裹塞肛門.”  
261)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9.  
“蟲疾腹痛 小兒用煨大蒜塞.”  
262)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9.  
“尸疰腹痛, 脹急不得喘息, 上攻心胸, 旁攻兩脅痛, 或瘰癧涌起 煮商陸根囊盛, 更互熨之, 取效.”  
26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0.  
“忽然肚黑 鉛粉和鹽炒焦, 敷之立效.”  
26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0.  
“氣滯腹脹, 手背脚膝疼痛 大麥醋糟炒熱, 布裹熨之, 三兩換愈.”  
26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陰毒腹痛으로 厥逆하고 입술은 푸른빛을 띠고 음낭이 오그라들며 六脈이 끊어지려고 하는 경우에는, 과 한 다발을 뿌리와 파란 잎을 제거하고 흰 부분 2寸만을 남긴 상태로 말려서 배꼽위에 놓고 다리미로 찻하는데 蔥이 말라버리면 바꾼다. 얼마 지나지 않아 熱氣가 투입되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면 낫는다. 그리고 나서 四逆湯을 복용한다. 만약에 찻해도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다.<sup>266)</sup>
- 腹痛에 효과 있는 처방: 紅棗 2개와 巴豆 3알을 함께 짓찧어 헝겊에 싸서 배꼽위에 붙이면 즉시 통증이 멎는다.<sup>267)</sup>
- 心腹冷痛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아궁이의 뜨거운 재를 식초에 타서 찻한다. 식으면 바꾸어준다.<sup>268)</sup>
- 心腹冷痛한 경우에는 천으로 蜀椒를 싸서 아픈 곳에 놓고 熨斗(다리미)로 蜀椒를 찻하여 뜨겁게 해서 땀이 나면 통증이 멎는다.<sup>269)</sup>

(16)便秘

- 陽明病에서 自汗出하는데 만약 發汗시킨 후에 소변이 自利하면 진액이 속에서 고갈된 것이다. 비록 便이 굳었다 하더라도 攻下시켜서는 안 된다. 변의를 느낄 때 蜜煎을 이용한 導法을 써서 소통시키게 해야 한다. 변의를 느낄 때 土瓜根과 大猪膽汁도 이용할 수 있다<sup>270)</sup>

p.1193.  
 “急肚疼病 用本人頭髮三十根，燒過酒服。卽以水調芥子末，封在臍內，大汗如雨，卽安。《談野翁方》”  
 26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2.  
 “陰毒腹痛 厥逆唇青脚縮，六脈欲絕者。用葱一束，去根及青，留白二寸，烘熱安臍上，以熨斗火熨之，葱壞卽易。良久熱氣透入，手足溫有汗卽瘥，乃服四逆湯。若熨而手足不溫，不可治。《朱肱南陽活人書》”  
 267)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  
 “腹痛效方 紅棗二個 巴豆三粒 同搗爛，裹縛臍上立止。《文竹山堂方》”  
 268)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699.  
 “竈中熱灰：治心腹冷痛。和醋熨之。冷則易。”  
 26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87.  
 “心腹冷痛 以布裹椒安痛處，用熨斗熨令椒出汗，卽止。《孫眞人方》”

- 대소변이 막혀서 通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桶위에 앉아서 皂角을 태워서 나는 연기에 熏하면 저절로 통한다.<sup>271)</sup>
- 대변이 막혀서 通하지 않는 경우에는 雄鼠糞 양쪽 끝을 갈아서 배꼽에 넣거나 물에 개어서 배꼽에 붙인다.<sup>272) 273)</sup>
- 대소변이 막혀서 通하지 않는 경우에는 食鹽을 뜨겁게 볶아서 식으면 배꼽에 채우고서 썩뚝을 7장을 뜨면 즉시 통한다.<sup>274)</sup>
- 대변이 通하지 않는 경우에는 麝香을 싸서 배꼽속에 넣으면 2~4시간이면 통한다.<sup>275)</sup>
- 대변이 通하지 않는 경우에는 猪膽汁을 항문에 관장시키면 통한다.<sup>276)</sup>
- 대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棗절반 크기 정도의 白膠香과 鼠糞 2개를 고르게 갈아서 물로 혼합하여 挺을 만들어 항문 속에 넣는데 얼마 후에 스스로 통한다.<sup>277)</sup>
- 二便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금과 苦酒를 섞

270) 傷寒論研究會. 傷寒論講義.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7. p.425.  
 “陽明病，自汗出，若發汗，小便自利者，此爲津液內竭，雖硬不可攻之，當須自欲大便，宜蜜煎導而通之，若土瓜根及大猪膽汁，皆可爲導。”  
 271)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9, 100.  
 “大小便閉塞不通 以病人坐桶上，燒皂角煙熏自通。”  
 272)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9, 100.  
 “大小便閉塞不通 … 又，雄鼠糞兩頭尖者是 研末，納臍中。”  
 27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大便燥結【導氣】 雄鼠尿二便不通，水調傳臍。”  
 27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9, 100.  
 “大小便閉塞不通 … 又，食鹽炒熱候冷，填臍中，艾灸七壯，立通。”  
 27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0.  
 “大便不通 用麝香包肚臍內，一二時卽通。”  
 27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0.  
 “大便不通 … 又，猪膽汁灌入肛門卽通。”  
 27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32.  
 “大便不通 白膠香半棗大，鼠糞二枚，研勻，水和作挺，納入肛內，良久自通。《普濟方》”

어 배꼽에 붙이는데 마르면 바꾼다. 그리고 소금물로 향문 속을 관장하고 아울러 종이로 소금을 싸서 물속에 넣고 나서 그것을 마신다.<sup>278)</sup>

- 二便이 通하지 않는 경우에는 白礬가루를 배꼽 속에 가득 채우고 새로 길어온 물을 떨어트린다. 冷氣가 배속에 통하는 것이 느껴지면 便은 자연히 通한다. 배꼽이 움푹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로 주위를 에워싼다.<sup>279)</sup>

- 二便이 通하지 않는 경우에는 生草烏頭를 가루 내어 蔥頭에 묻혀서 향문 속에 넣는다.<sup>280)</sup>

- 關格으로 脹滿하여 대소변이 不通한 경우에는 獨頭蒜을 태워서 익혀 껍질을 제거하고 숨에 싸서 下部에 넣으면 氣가 즉시 通한다. <sup>281)</sup>

- 二便關格의 聖惠方: 皂莢을 통속에서 태워 연기가 날 때 그 위에 앉아서 熏하면 바로 通한다.<sup>282)</sup>

- 대변이 通하지 않으면 藥性이 남게 태운 猪糞에 皂角가루를 加하여 고르게 버무린다. 그리고 나서 먼저 竹筒을 향문 속에 넣고 약을 붙여 넣으면 순식간에 通한다.<sup>283)</sup>

- 대변이 秘結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昏迷한 경우에는 猪膽 1개에 약간의 好醋를 넣고서 거위 깃털관 위에 끼워 넣은 후 향문 속에 넣는

다.<sup>284)</sup>

- 甘遂는 水飲을 내리고 대소변이 不通한 것을 다스린다. 꿀물로 甘遂를 복용하고 또한 배꼽에 붙인다.<sup>285)</sup>

- 大便燥結에는 田螺를 배꼽에 붙인다.<sup>286)</sup>

- 大腸의 虛閉에는 蔥白을 소금과 함께 찢어서 배꼽에 붙인다.<sup>287)</sup>

- 大便燥結에는 生薑에 소금을 묻혀서 향문에 삽입한다.<sup>288)289)</sup>

- 대변이 通하지 않아 氣奔으로 죽을 것 같은 경우에는 씨를 뺀 烏梅 10개를 향문 속에 넣는다.<sup>290)291)</sup>

- 大便燥結에는 瓜蒂를 가루 내어 향문을 막는다.<sup>292)293)294)</sup>

27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2.

“二便不通 鹽和苦酒傳臍中, 乾即易. 仍以鹽汁灌肛內, 并內用紙裹鹽投水中飲之. 《家藏方》”

27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90.

“二便不通 白礬末填滿臍中. 以新汲水滴之, 覺冷透腹內, 即自然通, 臍平者, 以紙圍環之. 《經驗方》”

28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0.

“二便不通 生草烏頭爲末, 以蔥頭藥納谷道中. 《主海藏陰證略例》”

28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8.

“關格脹滿 大小便不通. 獨頭蒜燒熟去皮, 綿裹納下部, 氣立通也. 《外台秘要》”

28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60.

“二便關格 聖惠方: 用皂莢燒煙于桶內, 坐上薰之, 即通.”

283)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5.

“大便不通 猪糞燒灰存性, 加皂角末拌勻. 先用竹筒入肛門內, 將藥吹入, 頃刻即通. 《茶竹堂方》”

284)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5.

“大便秘結至極昏不知人 猪膽一枚. 入好醋少許. 扎鵝毛管上. 灌入糞門內. 《同壽錄》”

28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大便燥結【通利】甘遂下水飲, 治二便關格, 蜜水服之, 亦傳臍.”

28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大便燥結【養血潤燥】田螺傳臍.”

28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大便燥結【導氣】蔥白大腸虛閉, 同鹽搗貼臍.”

28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大便燥結【導氣】生薑薰臍, 插肛內.”

289)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0.

“大便不通 … 又, 生薑削長二寸, 涂鹽納下部, 即通.”

29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大便燥結【導氣】烏梅大便不通, 氣奔欲死, 十枚納入肛內.”

291)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0.

“大便不通 … 又, 氣分欲死者, 烏梅十介湯浸去核, 丸如棗大納下部, 少時即通.”

29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大便燥結【導氣】瓜蒂末, 塞肛內.”

29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0.

“大便不通 … 又, 搗瓜蒂七枚研末, 綿裹塞下部即通.”

29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0.

- 便閉에는 皂莢을 蒜과 함께 찢어서 배꼽에 붙인다.<sup>295)</sup>

(17) 癩證

- 癩蟲을 치료하는 법: 鳳仙根으로 潮腦(樟腦)를 묻혀서 등을 문지른다.<sup>296)</sup>

- 棟實을 淳苦酒에 하룻밤을 담갔다가 숨으로 싸서 향문에 3寸 정도를 막아 넣는데 하루에 두 번 바꾼다.<sup>297)</sup>

(18) 脇痛

- 脇痛에는 白芥子를 가루 내어 물에 개어서 아픈 곳에 퍼 바른다.<sup>298)</sup>

- 脇痛에는 吳茱萸를 醋로 반죽해서 퍼 바른다.<sup>299)</sup>

- 脇痛에는 식초로 炒한 靑皮로 熨한다.<sup>300)</sup>

- 脇痛에는 뿌리를 포함한 菘菜를 醋로 炒해서 熨한다.<sup>301)</sup>

- 脇痛에는 枳殼과 小茴香을 소금으로 炒해서 熨한다.<sup>302)</sup>

- 대체로 心胸과 脇下에 邪氣가 結實하여 硬痛脹滿한 경우에는 생강 1斤을 찢어 즙을 남겨서 서서히 炒하여 축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絹으로 환부를 싸서 정성껏 熨한다. 식으면 다시 즙을 炒하여 熨하는데 머지않아 확연하게 좋아진다.<sup>303)</sup>

- 病後의 脇脹과 天行病後에 양쪽 옆구리가 脹滿한 경우에는 소금을 뜨겁게 볶아서 熨한다.<sup>304)305)</sup>

(19) 黃疸

- 黃疸에는 苦丁香을 곱게 가루 내어 콧속에 잠시 넣어 놓으면 코에서 노란색 물이 나오며 이 물이 나오지 않으면 黃疸이 멎는다. 3일 후에 다시 한 번 코에 넣어 놓으면 완전히 낫는다.<sup>306)</sup>

- 黃疸에는 신선한 天南星葉을 짓뭉어 찻잔 속에 넣고 배꼽 위 1촌쯤 위에서 수건으로 고정시킨다. 하루밤낮을 지낸 후에 풀면 배위에 하나의 큰 기포가 저절로 일어나는데 銀鍼으로 아랫면을 따라 찢어서 터트리면 점차적으로 노란 물이 흐르는데 물이 다하면 낫는다.<sup>307)</sup>

- 단 참외씨를 가루 내어 大豆 크기정도를 콧속에 약간만 넣어놓는데 病이 가벼운 것은 반나절, 病이重的 것은 하루면 노란 물이 흐르는데 하루를 건너 띄고 다시 넣어 놓으면 낫는다.<sup>308)</sup>

“大便不通 瓜蒂七枚. 研末, 綿裹, 塞入下部即通. 《必效方》”  
29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  
“大便燥結【導氣】皂莢便閉, 同蒜搗, 傅臍內.”  
29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4.  
“治癩蟲法 鳳仙根蘸潮腦擦背.”  
29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54.  
“腹中長蟲 棟實以淳苦酒漬一宿, 綿裹, 塞入穀道中三寸許, 日二易之. 《外台秘要》”  
298)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6.  
“治脇痛 白芥子爲末, 水調敷痛處.”  
299)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6.  
“治脇痛 … 又, 吳茱萸醋調敷.”  
300)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6.  
“治脇痛 … 又, 靑皮醋炒熨.”  
301)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6.  
“治脇痛 … 又, 菘菜連根醋炒熨.”  
302)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6.  
“治脇痛 … 又, 枳殼 小茴香鹽炒熨.”

30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7.  
“胸脇滿痛 凡心胸脇下有邪氣結實, 硬痛脹滿者. 生薑一斤, 搗渣留汁, 慢炒待潤, 以絹包子患處, 款款熨之. 冷再以汁炒再熨, 良久豁然寬快也. 《陶華傷寒槌法》”  
30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1.  
“病後脇脹, 天行病後, 兩脇脹滿, 熬鹽熨之. 《外台秘要方》”  
30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6.  
“兩脅脹痛 炒鹽, 布裹熨之.”  
30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2.  
“黃疸 苦丁香爲細末, 嚙鼻內一時, 鼻出黃水, 水盡即止. 三日後再嚙一次全愈.”  
307)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2.  
“黃疸 … 又, 鮮虎掌草(即天南星葉)搗爛, 放茶鍾內, 平口扣在臍上一寸許, 汗巾縛住, 越一晝夜解下, 腹上自起一大泡, 用銀針從下面刺破, 漸漸流出黃水, 水盡自愈.”  
308)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온몸이 노랗게 붓는 경우에는 신선한 野天門冬(百部)을 씻어서 찢어 배꼽위에 붙이고 다시 糯米밥 반가에 물과 술 반반씩을 버무려서 부드럽게 주물러 약 위에 덮고서 비단으로 싸다. 1~2일후에 입속에서 술 냄새가 나면 물이 소변을 통해 나오면서 부기가 저절로 사라진다.<sup>309)</sup>

- 온몸이 누렇게 부으면 燒酒에 白芥子 가루 2錢을 타서 小腹위에 퍼 붙이는데 기포가 생기게 해야 한다.<sup>310)</sup>

- 온몸의 黃疸에는 茵陳蒿 한 움큼과 生薑 한 덩어리를 짓찧어 胸前과 四肢에 날마다 문지른다.<sup>311)312)</sup>

- 濕熱로 인한 黃疸에는 생강을 자주 온몸에 문지르면 黃疸이 저절로 물러간다. 茵陳蒿를 추가하면 더욱 좋다.<sup>313)314)</sup>

- 陰黃에는 瓜蒂, 丁香, 赤小豆 각 7개를 가루 내어 콩알크기 정도를 콧속에 붙여 넣으면 조금 후에 노란 물이 흘러나온다. 격일로 한번 사용하며 病이 나오면 중지한다.<sup>315)316)</sup>

- 黃疸腫滿한 경우에는 大棗만한 크기의 苦葫蘆瓢을 童便 2수에 잠시 담그고 酸棗크기만하게 2개를 취하여 양쪽 콧속에 넣고 깊이 들어 마신 다음, 노란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좋다.<sup>317)</sup>

- 黃疸로 水腫이 생긴 경우에는 綠豆 1升을 달여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sup>318)</sup>

- 黃疸의 通治에는 오래된 鯨肉(양에 상관없이)과 태워서 재를 낸 稻草 한 움큼에 계란 흰자위를 섞어서 膏藥처럼 만든 다음 배꼽에 붙인다. 하루에 한번 바꾸어주는데 6~7번이면 낫는다.<sup>319)</sup>

- 濕熱黃疸에는 百條根(百部)을 참쌀밥과 함께 찧어서 배꼽위에 덮으면 黃腫이 소변과 함께 나온다.<sup>320)</sup>

- 黃疸에는 苦瓠를 달인 즙을 콧속에 떨어트리면 노란 물이 나오면서 낫는다.<sup>321)322)323)</sup>

- 黃疸에는 瓜蒂를 가루 내어 콧속에 붙여넣으면

p.800.

“黃疸癰黃 并取瓜蒂, 丁香, 赤小豆各七枚, 爲末, 吹豆許入鼻, 少時黃水流出, 隔日一用, 瘥乃止. 《孟詵食療》”

31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3.

“黃疸癰黃 并取瓜蒂, 丁香, 赤小豆各七枚爲末, 吹豆許入鼻, 少時黃水流出, 隔日一用, 瘥乃止. 《孟詵食療》”

31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8.

“黃疸腫滿 苦葫蘆瓢如大棗許. 以童子小便二合, 浸之一時, 取兩酸棗大, 納兩鼻中, 深吸氣, 待黃水出. 《傷寒類要》”

318)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3.

“黃疸水腫 綠豆一升煎湯, 洗浴即愈. 《吳仲衡傳方》”

319)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3.

“黃疸通治 陳年自鯨肉不拘幾塊, 稻草一把燒灰, 鷄子淸調如膏藥樣, 貼臍上, 一日一換, 六七次即愈. 《活人心法》”

32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

“黃疸【濕熱】百條根同糯米飯搗, 罨臍上, 黃腫自小便出.”

32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

“黃疸【濕熱】苦瓠嚙鼻, 去黃水.”

322)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476.

“苦瓠·去黃疸. 煎取汁, 滴鼻中, 出黃水差. 『本草』”

323)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急黃病 苦瓠一枚開孔. 以水煮之. 攪取汁. 滴入鼻中去黃水. 《本草拾遺》”

p.22.  
“貼瓜蒂爲末, 以大豆許嚙入鼻中, 輕則半日, 重則一日, 流出黃水, 隔一日再吹, 乃愈.”

309) 淸程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2.

“遍身黃腫 握新鮮百條根(一名野天門冬)洗, 搗敷臍上, 再以糯米飯半升, 拌水酒半合, 揉軟蓋藥上, 用帛包住, 一二日後, 口內作酒氣, 則水從小便出, 腫自消.”

310) 淸程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2.

“遍身黃腫 … 又, 燒酒調白芥子末二錢攤貼小腹上, 起泡爲度.”

31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10.

“遍身黃疸 茵陳蒿一把, 同生薑一塊, 搗爛, 于胸前四肢, 日日擦之.”

312)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濕熱發黃 … 一方, 用茵陳蒿一把, 同生薑一塊搗爛, 于胸前四肢, 日日擦之有效. 《本草類方》”

31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7.

“濕熱發黃 生薑時時周身擦之, 其黃自退也. 一方: 加茵陳蒿, 尤妙. 《傷寒槌法》”

31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濕熱發黃 生薑時時周身擦之, 其黃自退也. 《傷寒槌法》”

31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노란 물이 흐르면서 낫는다.<sup>324)325)326)327)</sup>

(20)積聚

- 腹中의 癥塊에는 吳茱萸 3냥을 찧어서 술에 반죽해서 煮熟하여 천으로 싸서 환부를 찧한다. 식으면 다시 炒해서 뜨겁게 하여 번갈아 찧한다. 癥塊가 옮겨 다니면 쫓아가서 찧하며 癥塊가 사라지면 찧하는 것을 멈춘다.<sup>328)</sup>

- 腹內癥瘕에는 오랫동안 쌓여 절인 가지를 藥性이 남게 태운 것에 麝香과 輕粉 약간을 넣고 기름에 개어서 붙인다.<sup>329)</sup>

- 腹中의 痞積에는 水紅花나 水紅花子 한 그릇을 물 세 그릇으로, 뽕나무 껍질을 사용하여 센 불과 약한 불에 달여서 膏를 만들어 痞의 크기에 맞게 펴 붙인다. 그리고 술에 이 膏를 타서 복용한다. 비린내 나는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르한다.<sup>330)</sup>

- 腹脇의 痞塊에는 雄黃 1냥과 白礬 1냥을 가루내어 밀가루 풀로 膏를 만들어서 펴 붙이면 효과가

나타난다. 효과가 없으면 다시 붙이는데 수백 근이나 되는 것 같은 대변을 보면 낫는다. 비방이다.<sup>331)</sup>

- 腹脇의 積塊에는 風化石灰가루 반근을 瓦器에 炒하여 아주 뜨겁게 하고 大黃가루 1냥을 넣어 불게 炒한다. 여기에 桂末 반냥을 넣어 약간 燒한 다음 米醋를 넣고 膏를 만들어 絹위에 펴 발라서 환부에 붙인다.<sup>332)</sup>

- 腹脇痞塊에는 大黃 2냥과 朴硝 1냥을 가루내어 大蒜으로 함께 찧어 膏를 만들어 붙인다. 혹은 阿魏 1냥을 더하면 더욱 좋다.<sup>333)334)</sup>

- 痞塊硬痛에는 吳茱萸를 뜨겁게 볶아서 천으로 싸서 찧한다.<sup>335)336)</sup>

- 痞를 다스리는 처방: 水紅花子를 끊어서 膏를 만들어 麝香 약간을 넣어서 붙인다.<sup>337)</sup>

- 모든 積氣와 氣血食의 3鼓를 다스리는 경우에는 白馬糞을 大蒜과 함께 찧어 붙인다.<sup>338)</sup>

- 積塊龜癭瘕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白馬尿를 白蠟

32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

“黃疸【濕熱】瓜蒂嗅鼻取黃水, 或揩牙追涎.”

32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475.

“聒瓜蒂:治黃疸初發, 及時氣急黃. 瓜蒂爲末, 搗兩鼻中, 出黃水. 又取一錢, 調溫水服, 得吐黃水便差. 『本草』”

32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黃疸痧 香瓜蒂七杭以瓦焙乾, 研末入鼻內, 候流鼻涕即愈. 《三十六黃方》”

327)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2.

“熱病發黃 瓜蒂爲末, 以大豆許. 吹鼻中. 輕則半日. 重則一日. 流出黃水乃愈. 《千金翼》”

32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2.

“腹中癥塊 茱萸三升搗, 和酒煮熟, 布裹熨腹上, 冷更炒熱, 更熨之. 癥移走, 逐熨之, 消乃止. 《姚僧垣集驗方》”

32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6.

“腹內癥瘕 陳醬茄兒燒存性, 入麝香, 輕粉少許, 脂調貼之. 《壽域方》”

33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5.

“腹中痞積, 水紅花或子一碗, 以水三碗, 用桑柴文武火煎成膏, 量痞大小攤貼, 仍以酒調膏服. 忌腥葷油膩之物. 《劉松石保壽堂方》”

33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0.

“腹脅痞塊 雄黃一兩, 白礬一兩, 爲末, 面糊調膏攤貼, 卽見功效. 未效再貼, 待大便數百斤之狀乃愈, 秘方也. 《集玄方》”

33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6.

“腹脅積塊 風化石灰半斤, 瓦器炒極熱, 入大黃末一兩, 炒紅取起, 入桂末半兩, 略燒, 入米醋和成膏, 攤絹上貼之. 《丹溪心法》”

33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85.

“腹脇積塊 大黃二兩, 朴硝一兩, 爲末, 以大蒜同搗膏和貼之. 或加阿魏一兩, 尤妙. 《外台秘要》”

33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8.

“腹中痞塊 皮消一兩, 獨蒜一個, 大黃米八分, 搗作餅. 貼于患處, 以消爲度. 《鄧氏經驗方》”

33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治痞方 吳茱萸酒炒布包走逐熨之.”

33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1.

“痞塊硬痛 吳茱萸炒熱, 布裹熨之. 《宣良李氏刊方》”

33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7.

“治痞方 … 又, 水紅花子熬膏, 入麝香少許貼之.”

33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7.

“治諸積氣及氣血食三鼓 白馬糞, 同大蒜搗敷.”

蠶과 함께 찢어 붙인다.<sup>339)</sup>

- 痞塊硬痛이 칼로 자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商陸根을 양에 관계없이 빵아 부수어서 蒸하고 새로운 천으로 싸서 아픈 곳에 熨하는데 식으면 다시 바꾸어준다.<sup>340)</sup>

(21) 鼓脹

- 水鼓로 소변이 不通한 경우에는 殼을 제거한 大田螺 4개, 楸楸를 벗긴 大蒜 5개, 車前子 3錢을 갈아 가루 낸 것을 함께 찢어서 餅을 만든 다음, 배꼽에 붙이고서 비단으로 묶어서 고정시키면 물이 소변을 통해 나가며 2~3번 바꾸어주면 낫는다.<sup>341)</sup>

- 水鼓로 소변이 不通한 경우에는 商陸根과 蔥白을 찢어서 배꼽에 채워 넣으면 소변이 이로워지고 부기가 저절로 사라진다.<sup>342)</sup>

- 血鼓로 小腹이 脹하고 실핏줄이 생기는 경우에는 술로 荷葉을 달여서 씻는다.<sup>343)</sup>

- 부인의 血鼓에는 劉寄奴나 馬鞭草를 달여서 熏洗한다.<sup>344)</sup>

- 食鼓로 트림하고 신물이 올라오며 飽脹한 경우에는 蘿卜子를 뜨겁게 볶아서 熨한다.<sup>345)</sup>

(22) 頭痛

- 頭風摩散方: 炮한 大附子 1개와 같은 양의 鹽을 散劑로 하고, 머리를 감은 다음에 한 손갈의 양으로 환부를 잘 문질러 약력이 스며들게 한다.<sup>346)</sup>

- 偏正頭痛에는 蕎麥粉을 뜨겁게 볶고 醋를 하여 다시 볶아서 식기 전에 환부위에 붙이는데 천으로 꼭 싸서 바람을 쏘이게 해서 안 된다.<sup>347)</sup>

- 偏正頭痛에는 硫黃 1錢, 씨를 제거해서 가루 낸 붉은 색의 川椒 3分. 이 두 가지를 고르게 버무려 녹여서 작은 餅을 만드는데, 왼쪽의 통증에 왼쪽 코를 막으면 콧물이 오른쪽 코에서 나오며, 오른쪽 통증은 오른쪽 코를 막으며, 한 가운데의 통증은 좌우를 모두 막는데 콧물이 다 흐르면 낫는다.<sup>348)</sup>

- 날씨가 흐리고 비오는 날에 頭痛이 생기면 桂木을 술에 개어서 정수리와 이마에 바른다.<sup>349)350)</sup>

- 偏正頭痛에는 決明子 3錢을 가루 내어 물에 타서 太陽穴에 붙이면 효과가 좋다.<sup>351)352)353)</sup>

- 偏正頭痛에는 穀精草 1냥을 가루 낸 것을 흰 밀

“食鼓，暖氣作酸，飽脹 蘿卜子炒熱熨。”

346) 李東建 編著. 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1996. p.94.

“頭風摩散方：大附子一枚(炮) 鹽等分

以上二味. 爲散. 沐了. 以方寸匕. 已摩疾上. 令藥力行.”

34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

“偏正頭痛 用蕎麥粉炒熱, 加醋再炒, 乘熱敷上, 用布包緊, 勿令見風.”

34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

“偏正頭痛 … 又, 硫黃一錢, 川椒取色紅者, 去子爲末三分 二味拌勻, 溶成小餅, 左疼塞左鼻, 清涕從右鼻出, 右疼塞右鼻, 正疼左右俱塞, 清涕流盡即愈.”

34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

“頭痛【外治】桂木陰雨即發痛, 酒調, 塗頂額.”

35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

“偏正頭痛 … 又, 用桂心末一兩, 酒調塗額上, 頂上.”

35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

“偏正頭痛 … 又, 決明子三錢研末, 水調貼太陽穴, 甚妙.”

35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

“頭痛【外治】決明子并貼太陽穴.”

353)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467.

“決明子:偏頭痛, 作末水調, 貼太陽穴, 甚妙. 『本草』”

33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8.

“治積塊龜蟹癥 白馬尿同白殭蠶搗敷.”

34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1.

“痞塊硬痛如刀刺者 商陸根不拘多少, 搗碎蒸之, 以新布裹, 熨痛處, 冷再換. 《孫真人方》”

34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5.

“水鼓小便不通 大田螺四介, 去殼 大蒜五介, 去衣 車前子三錢, 研末 共搗成餅, 貼臍中, 以帛束定, 水從小便出, 換二三次全愈.”

34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5.

“水鼓小便不通 … 又, 商陸根、蔥白搗填臍中, 小便利, 腫自消.”

34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5.

“血鼓小腹脹有血絲 酒煎荷葉洗.”

34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5.

“婦人血鼓 劉寄奴, 或馬鞭草煎湯熏洗.”

34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5.

가루 풀로 반죽하여 종이위에 발라서 아픈 곳에 붙인다. 마르면 바꾼다.<sup>354)355)</sup>

- 偏正頭痛에는 川芎 5錢, 晚蠶沙 2냥, 환자 나이 수만큼의 蠶蠶과 물 5그릇을 砂鍋 속에 넣고 두터운 종이로 붙이고서 가운데에 동전크기 정도의 구멍 한 개를 뚫고 매일 한 차례 藥氣로 아픈 부위를 熏蒸시키게 한다. 비록 病이 오래되었을지라도 3~5번이면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다.<sup>356)</sup>

- 偏正頭痛에는 生牛蒡子梗葉(梗葉이 없으면 뿌리를 사용)의 자연즙 2그릇, 오래된 술 1그릇, 食鹽 8분을 모두 끓여서 膏를 만들어 바르는데, 반드시 온 힘을 다해서 열이 날 정도로 문질러야 효과가 있다.<sup>357)358)</sup>

- 偏頭痛에는 생강 3조각을 桑皮紙로 잘 싸서 물로 축축하게 한 다음, 잣불 속에 넣고 煨熟하여 열이 식기 전에 印堂과 양쪽 太陽에 각각 한 조각씩을 붙인 후에 띠로 묶으면 곧 낫는다.<sup>359)360)</sup>

35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

“偏正頭痛 … 又, 穀精草一兩, 爲末, 白面糊調攤紙上, 貼痛處, 乾易.”

35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9.

“偏正頭痛 集驗方:用穀精草一兩爲末, 以白面糊調攤紙花上, 貼痛處, 乾換.”

35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

“偏正頭痛 … 又, 川芎五錢, 晚蠶沙二兩, 蠶蠶如患者年歲之數, 水五碗, 就砂鍋中, 以厚紙糊滿, 中開錢大一孔, 取藥氣熏蒸痛處, 每日一次, 雖年久者, 三五次永不再發.”

35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

“偏正頭痛 … 又, 生牛蒡子梗葉, 無梗葉用根 取自然汁兩碗, 陣酒一碗, 食鹽八分, 共熬成膏, 塗之, 須極力搽熱, 乃效.”

35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0.

“頭風掣痛 不可禁者, 摩膏主之. 取牛蒡莖葉, 搗取濃汁二升, 無灰酒一升, 鹽花一匙頭, 燻火煎稠成膏, 以摩痛處, 風毒自散. 摩時須極力令熱, 乃效. 冬月用根. 《篋中方》”

35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 47.

“偏頭痛 … 又, 生薑三片 將桑皮紙包好, 水濕, 入灰火中煨熟, 乘熱將印堂, 兩太陽各貼一片, 以帶纏之, 立愈.”

36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0.

“太陽痛 生薑三片皮紙包, 水濕, 入灰火煨熟, 以兩片貼太陽, 一片貼印堂中, 以帶縛之, 立愈. 《經驗秘方》”

- 頭痛에는 遠志를 가루 내어 코에 붙어 넣는다.<sup>361)</sup>

- 頭痛에는 크고 신선한 紅蘿菔皮를 太陽穴에 붙인다.<sup>362)</sup>

- 頭風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吳茱萸를 진하게 달인 것을 숨에 적서 머리카락의 毛根을 자주 닦는다.<sup>363)364)</sup>

- 頭痛에는 蕎麥粉을 차가운 물에 타서 붙이면 통증이 제거되고 바로 낫는다.<sup>365)</sup>

- 頭痛에는 柚葉을 蔥白과 함께 짓찧어 太陽穴에 붙인다. <sup>366)</sup>

- 頭風으로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葶藶子를 가루 내어 뜨거운 물로 즙을 우려내서 머리를 감는데 3~4 차례면 낫는다.<sup>367)368)</sup>

- 頭風沐方: 川椒 2升을 물로 달여서 즙을 내어 머리카락을 감으면 좋다.<sup>369)</sup>

- 虛火頭痛에는 大棗를 切片하여 太陽穴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sup>370)</sup>

36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頭痛 遠志末嗅鼻.”

36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頭痛 … 又, 大鮮紅蘿卜皮貼太陽穴.”

36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頭痛 … 又, 吳茱萸煎濃湯, 以綿染, 頻拭髮根.”

36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2.

“頭風作痛 茱萸煎濃湯, 以綿染, 頻拭髮根良. 《千金翼方》”

36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頭痛 … 又, 蕎麥粉冷水調敷, 痛去立愈.”

36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頭痛 … 又, 柚葉同蔥白搗爛, 貼太陽穴.”

36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頭風沐方 葶藶子煮沐, 不過三四度愈. …”

36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64.

“頭風疼痛 葶藶子爲末, 以湯淋汁沐頭, 三四度即愈. 《肘後方》”

36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頭風沐方 … 又, 川椒二升 以水煮取汁, 沐髮, 良.”

- 風氣頭痛으로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乳香과 蓖麻仁을 같은 양을 찧어서 餅을 만들어 病的 左右에 따라 太陽穴에 붙이고 머리를 풀고서 숨을 내쉬면 낫는다. 371)372)
- 頭皮腫痛에는 좋은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고르게 섞어서 붓는 곳에 바르면 낫는다.373)
- 頭皮腫痛에는 杏仁을 찧어서 膏가 되게 하여 바른다.374)
- 卒病頭痛에는 皂角가루를 코에 붙여넣으면 재채기를 한다.375)
- 時氣頭痛에는 朴硝가루 2냥을 生油에 섞어서 정수리에 바른다.376)
- 太陽頭痛에는 羌活、防風、紅豆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내어 코에 붙여넣는다.377)
- 風痰頭痛에는 苦瓠膜으로 즙을 내어 갈대의 대롱으로 콧속에 붙여 넣는다. 그 氣가 腦門에 上衝하여 잠시 후에 惡涎이 흘러내리니 病은 즉시 나아서 뿌리가 제거되며 昏運이 생기더라도 의심하지 말라. 다른 것을 浸해서 생긴 瘡도 효과가 있다. 씨앗을 가

- 루 내어 붙여넣어도 효과가 있다. 오래된 頭風도 모두 낫는다.378)379)
- 熱毒이 눈을 쳐서 頭痛과 眉痛이 있고 壯熱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地不容(解毒子)、木香、川大黃 각각 3分씩을 가루 내고 漿水에 개어서 膏를 만들어 퍼 붙인다. 마르면 바꾼다.380)
- 腦痛眉痛에는 穀精草 2錢、地龍 3錢、乳香 1錢을 가루 내어 매번 반 錢씩을 통속에서 태워 연기를 내어 病的 좌우에 따라 코를 熏한다.381)
- 濕家頭痛에는 瓜蒂가루 1字를 콧속에 붙여 넣고 입에 冷水를 머금는데 노란 물이 나오면 낫는다.382)383)
- 濕熱頭痛에는 黑牽牛 7알、砂仁 1알을 갈아 가루 내어 井華水에 타서 머리를 처든 상태에서 그 즙을 콧속에 부어넣고 기다렸다가 涎이 나오면 낫는다.384)385)

370)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虛火頭痛 用南棗切片, 貼太陽穴, 效.”

371)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8.  
“風氣頭痛甚者 乳香、蓖麻仁各等分 搗餅. 隨左右貼太陽穴, 解發出氣, 甚效.”

37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6.  
“風氣頭痛 不可忍者. 乳香、蓖麻仁等分, 搗餅隨左右貼太陽穴, 解發出氣甚驗.”

37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8.  
“頭皮腫痛 好鷄蛋白調勻, 塗腫處, 卽愈.”

37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8.  
“頭皮腫痛 … 又, 杏仁杵爲膏, 塗之.”

37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60.  
“卒病頭痛 皂角末吹鼻取嚏. 《斗門方》”

37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8.  
“時氣頭痛朴硝末二兩, 生油調塗頂上. 《聖惠方》”

37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5.  
“太陽頭痛 羌活、防風、紅豆等分, 爲末, 嚙鼻. 《玉機微義》”

37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8.  
“風痰頭痛 苦瓠膜取汁, 以葦管灌入鼻中, 其氣上衝腦門, 須臾惡涎流下, 其病立愈除根, 勿以昏運爲疑. 乾者浸汁亦效, 其子爲末吹入亦效. 年久頭風皆愈. 《普濟方》”

379)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風痰頭痛 苦瓠膜取汁, 以葦筒灌入鼻中, 其氣上達腦門, 須臾惡涎流下, 其病立愈.”

38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61.  
“眉棱骨痛 熱毒攻眼, 頭痛眉痛, 壯熱不止. 解毒子、木香、川大黃各三分, 爲末. 漿水調膏攤貼. 乾卽易之. 《普濟方》”

38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9.  
“腦痛眉痛 穀精草二錢, 地龍三錢, 乳香一錢, 爲末. 每用半錢, 燒煙筒中, 隨左右熏鼻. 《聖濟泉》”

38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0.  
“濕家頭痛 瓜蒂末一字, 嚙入鼻中, 口含冷水, 取出黃水愈. 《活人書》”

38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濕氣頭痛 胝瓜蒂末嗅入鼻中, 口含冷水, 取出黃水愈.”

38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43.  
“濕熱頭痛 黑牽牛七粒, 砂仁一粒, 研末, 井華水調汁, 仰灌鼻中, 待涎出卽愈. 《聖濟泉》”

38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濕熱頭痛 黑牽牛七粒, 砂仁一粒研末, 井華水調汁, 仰灌鼻

- 頭痛에는 高良薑 생것을 갈아서 자주 냄새 맡는다.<sup>386)</sup>
- 頭腦가 좀 먹은 것 같이 울리는 것을 大白蟻라 한다. 茶子를 가루 내어 콧속에 붙여 넣으면 효과가 있다.<sup>387)</sup>
- 頭腦가 아픈 경우에는 片腦(水片) 1錢을 종이에 말아 꼬아가지고 태워서 연기를 내어 코를 熏하는데 痰涎을 吐하면 낫는다.<sup>388)389)</sup>
- 女人의 頭痛과 血風證에는 草烏頭와 梔子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낸다. 蔥汁을 섞어서 病的 좌우에 따라 太陽과 이마에 바르는데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며 바람을 피한다.<sup>390)</sup>
- 頭痛으로 죽을 것 같은 경우에는 消石가루를 콧속에 붙여 넣으면 낫는다.<sup>391)392)393)</sup>
- 頭痛이 고치지 않는 경우에는 楊梅가루 약간을 코로 맡으면 재채기하면서 신묘하게 낫는다.<sup>394)</sup>

中, 待涎出即愈.”

38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5.

“頭痛嗜鼻. 高良薑生研頻嚙. 《普濟方》”

38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7.

“頭腦鳴响狀如蟲蛀, 名大白蟻. 以茶子爲末, 吹入鼻中, 取效. 《楊摠醫方摘要》”

38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37.

“頭腦疼痛 片腦一錢, 紙卷作捻, 燒煙熏鼻, 吐出痰涎即愈. 《壽域方》”

389)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9.

“頭腦疼痛 片腦一錢, 紙卷作捻, 燒煙熏鼻, 吐出痰涎, 即愈. 《普濟方》”

39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1.

“女人頭痛血風證, 草烏頭、梔子等分, 爲末. 自然蔥汁, 隨左右調塗太陽及額上, 勿過眼. 避風. 《濟生方》”

39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1.

“頭痛欲死 消石末吹鼻內, 即愈. 《炮炙論》”

392)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464.

“偏正頭痛, 硝石末少許, 吹入鼻中, 入愈. 左痛吹右, 右痛吹左, 立愈. 雷公云, 腦痛欲亡, 鼻投硝末者, 是也. 『本草』”

393)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9.

“熱鬱腦中頭痛 硝石爲末, 吹入鼻中, 即止. 《證治匯補》”

39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오래된 頭痛에는 川烏頭와 天南星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낸다. 蔥汁을 섞어서 太陽穴에 바른다.<sup>395)</sup>

- 頭風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薑薑子 1分、大黃 3分을 가루 내어 코로 맡는다.<sup>396)</sup>

- 頭風으로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蚱蟬 2枚를 가루 낸 생것에 乳香과 朱砂 각각 半分을 넣어서 小豆 크기 정도의 丸을 만들어서 病的 좌우에 따라 콧속에 넣어서 노란 물이 나오면 효과가 있다.<sup>397)</sup>

- 頭風으로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龍珠丸: 5월5일에 蚯蚓을 잡아서 龍腦와 麝香을 섞어서 쪼개 梧子 크기 정도의 丸을 만든다. 매번 1丸을 病的 좌우에 따라 콧속에 넣는다. 먼저 生薑즙을 코에 바르면 바로 낫는다.<sup>398)</sup>

- 頭風腦痛에는 玄精石가루를 羊膽속에 넣고 응달에서 말린다. 이를 물에 1字를 타서 콧속에 붙면 바로 멎는다.<sup>399)</sup>

- 頭風苦痛에는 大蒜 7개를 皮를 제거하고 먼저 땅을 빨갛게 태워서 蒜을 그 땅위에서 1개씩 갈아서 膏藥을 만든다. 蠟蠟 1냥을 머리와 발을 제거하고 蒜 위에 놓고서 하룻밤을 그릇으로 덮어 氣가 透過되지 않게 한다. 단지 蠟蠟만을 꺼내서 가루를 만들어 콧속에 넣고 입속에 물을 머금으면 아주 효과가 있

p.763.

“頭痛不止 楊梅爲末, 以少許嚙鼻取嚏妙.”

39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4.

“年久頭痛 川烏頭、天南星等分, 爲末. 蔥汁調塗太陽穴. 《經驗方》”

39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0.

“頭風作痛 薑薑子一分, 大黃三分, 爲末, 嚙鼻.”

39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6.

“頭風疼痛 蚱蟬二枚生研, 入乳香、朱砂各半分, 丸小豆大. 每用一丸, 隨左右納鼻中, 出黃水爲效. 《聖濟總錄》”

39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3.

“頭風疼痛 龍珠丸: 用五月五日取蚯蚓. 和腦、麝杵, 丸梧子大. 每以一丸納鼻中, 隨左右. 先塗姜汁在鼻, 立愈. 《總錄》”

39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6.

“頭風腦痛 玄精石末, 入羊膽中陰乾. 水調一字, 吹鼻中, 立止. 《千金方》”

다.400)

- 頭風熱痛에는 우물속의 진흙에 大黃과 芒硝 가루 낸 것을 섞어서 붙인다.401)

- 頭風熱痛에는 山豆根가루를 기름에 개어 양쪽 太陽穴에 붙인다.402)

- 頭風으로 통증이 오래된 경우에는 莽草를 달여서 머리감는데 눈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403)

- 오래된 頭風에는 萊菔子和 生薑을 같은 양으로 하여 찢어서 즙을 낸 다음 麝香 약간을 넣어 콧속에 넣으면 바로 멎는다.404)405)

- 諸風頭痛에는 和州藜蘆 一莖을 양달에서 말려 가루 내어 麝香 약간을 넣어 코에 분다.406)

- 偏頭痛에는 礪砂 가루 1분과 물에 적신 歧心 1분을 찢어서 皂子 크기 정도의丸을 만든다. 숨에 싸서 일부분을 노출시키고 病의 좌우에 따라 콧속에 넣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 407)

- 偏頭痛에 葦撥을 가루 내고 환자로 하여금 입

에 따뜻한 물을 머금게 하여 좌우의 통증에 따라 좌우의 코로 1字를 들이마시면 효과가 있다.408)409)

- 偏正頭痛으로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玄胡索 7枚、靑黛 2錢、皮子를 제거한 牙皂 2개를 가루 낸 다음 물을 섞어 杏仁 크기 정도의丸을 만든다. 매번 물에 1丸을 물에 개어 환자의 콧속에 좌우에 따라서 부어 넣고서, 입에 동전 한 개를 물고 있으면 涎이 질그릇에 다 찰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낫는다.410)

- 偏正頭痛 聖濟方: 穀精草 가루、銅綠 각 1錢과 消石 半分을 통증의 좌우에 따라 코에 넣는다.411)

- 偏正頭痛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명한 날에 머리에 가르마를 타고서 麝香 5분과 皂角가루 1錢을 얇은 종이로 사서 환부에 놓는다. 천으로 炒한 소금을 싸서 그 위에다 뒹하는데 식으면 바꾸어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를 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412)

- 八般頭風에 세 번 효과를 본다. 半夏가루에 百草霜 약간을 넣고 종이로 비벼 꼬아 만든 다음 태워서 연기를 내어 콧속에 넣는다. 입에 물을 머금는데 涎이 있으면 吐하고 다시 머금는다.413)

40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8.

“頭風苦痛 用大蒜七個去皮. 先燒紅地, 以蒜逐個于地上磨成膏子. 却以蠟蠟一兩, 去頭足. 安蒜上. 碗覆一夜. 勿令透氣. 只取蠟研末, 嚥入鼻內. 口中含水, 甚效.”

40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5.

“頭風熱痛 井底泥和大黃, 芒硝末, 傅之. 《千金方》”

40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60.

“頭風熱痛 山豆根末, 油調, 涂兩太陽.”

40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27.

“頭風久痛 莽草煎湯沐之, 勿令入目. 《聖惠方》”

40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6.

“年久頭風 萊菔子、生薑等分, 搗取汁, 入麝香少許, 嚥入鼻中, 立止. 《普濟方》”

40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7.

“頭痛 … 又, 年久者, 用蘿卜子、生薑各四錢 搗取汁, 入麝香末四厘, 灌入鼻中立止.”

40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0.

“諸風頭痛 和州藜蘆一莖日乾研末, 入麝香少許, 吹鼻. 《聖惠方》”

40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3.

“偏頭痛 礪砂末一分, 水潤歧心一分, 搗丸皂子大. 綿包露出一頭, 隨左右內鼻中, 立效. 《聖惠方》”

40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9.

“偏頭痛葦撥爲末, 令患者口含溫水, 隨左右痛, 以左右鼻吸一字, 有效. 《經驗良方》”

409)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464.

“偏頭痛絕妙, 葦撥爲末, 令患者口中含溫水, 如左邊疼, 左鼻吸一字, 右邊疼, 右鼻吸一字. 『本草』”

41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9.

“偏正頭痛 不可忍者, 玄胡索七枚, 靑黛二錢, 牙皂二個去皮子, 爲末, 水和丸如杏仁大. 每以水化一丸, 灌入病人鼻內, 隨左右, 口咬銅錢一個, 當有涎出成盆而愈. 《永類方》”

41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9.

“偏正頭痛 聖濟方用: 穀精草末、銅綠各一錢, 消石半分, 隨左右嚥鼻.”

41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72.

“偏正頭痛 久不除者. 晴明時, 將髮分開, 用麝香五分, 皂角末一錢, 薄紙裹置患處. 以布包炒鹽于上熨之, 冷則易. 如此數次, 永不再發. 《簡便單方》”

41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8.

- 頭痛에는 蓖麻子 1알을 뺀아 부수고 大棗肉과 함께 고르게 찼어서 黃豆 크기 정도의 丸을 만든 다음 絲綿으로 싸서 窠구멍 속에 넣는다. 잠시 후에 반드시 맑은 窠물이 흐르면 丸을 꺼내는데, 통증이 멎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sup>414)</sup>

- 頭痛에는 藁本, 牙皂 각 1개씩을 모두 가루 내어 絹으로 말아 대워서 나는 연기를 窠구멍에 대고 말으면 효과가 있다.<sup>415)</sup>

- 頭痛으로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선한 蘿藦자 연즙에 龍腦와 薄荷 약간을 加하여 窠속에 떨어트린다. 왼쪽의 통증에는 오른쪽 코에 떨어트리고, 오른쪽의 통증에는 왼쪽 코에 떨어트리며, 좌우가 모두 통증이 있을 때는 양쪽 코에 모두 떨어트리면 낫는다.<sup>416)</sup>

- 偏正頭痛에는 蓖麻子 1개를 皮를 제거하고 문드러지게 갈아서 아픈 곳에 붙인다.<sup>417)</sup>

- 氣鬱로 인한 偏頭痛에는 蓖麻에 乳香과 食鹽을 함께 찼어서 太陽穴에 붙이면 즉시 멎는다.<sup>418)</sup>

- 偏正頭痛에는 蓖麻子와 乳香의 같은 양을 갈아서 환부에 바르면 바로 낫는다. <sup>419)</sup>

“八般頭風 三次見效. 半夏末, 入百草霜少許, 作紙捻燒煙, 就鼻內嚙之. 口中含水, 有涎, 吐去再含. 《衛生寶鑑》”

41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9.

“頭痛 蓖麻仁一粒搗碎同棗肉些, 須搗勻, 丸如黃豆大, 用絲綿裹之, 納鼻孔內, 少頃必有清涕流出, 即將丸取出, 痛即愈, 永不再發. 《岐天師別傳》”

415)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9.

“頭痛 … 一方, 用藁本, 牙皂各一個共爲末, 絹卷燒煙, 附鼻孔聞之, 效. 《壽域神方》”

41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9.

“頭痛不可忍 鮮蘿藦自然汁, 加龍腦, 薄荷少許, 滴入鼻中. 如左痛, 滴右鼻; 右痛, 滴左鼻; 左右皆痛, 兩鼻并滴, 立效. 《秘方集驗》”

417)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9.

“偏正頭痛 … 一方, 用蓖麻仁一兩去皮, 研爛貼痛處. 《單方全集》”

418)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9.

“氣鬱偏頭痛 蓖麻同乳香, 食鹽搗, 貼太陽穴, 立止. 《證治滙補》”

419)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 偏頭痛에는 가막조개껍질 하나만큼의 生蘿蔔즙을 환자를 눕힌 상태로 窠속에 넣는다. 왼쪽의 통증에는 왼쪽에, 오른쪽의 통증에는 오른쪽에, 좌우의 통증에는 좌우에 모두 주입하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수십 년 동안 앓는 것도 모두 1~2번만 주입하면 낫는다.<sup>420)421)422)423)</sup>

- 頭風頭痛을 다스리려면 綠豆 베개를 만들어 베면 좋다.<sup>424)425)</sup>

- 頭痛에는 艾葉을 비벼서 丸을 만들어 냄새를 맡으면 노란 물이 나온다.<sup>426)</sup>

- 頭痛에는 蓖麻仁을 大棗肉과 함께 종이로 말아서 窠속에 삽입한다.<sup>427)</sup>

- 吳茱萸잎을 썰서 뜨겁게 하여 베개를 베면 大寒이 침범해서 일으킨 腦痛을 치료한다. 머리를 감아도 좋다.<sup>428)</sup>

p.20.  
“偏正頭痛 蓖麻子, 乳香各等分研, 涂患處, 立愈. 《硤川沈氏方》”

420)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468.  
“蘿藦:治偏頭痛, 取汁嚙鼻中.”

421)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464.

“偏頭痛. 取生蘿蔔汁一靚殼, 仰臥注鼻中, 左痛注左, 右痛注右, 左右痛俱注之, 神效, 數十年患, 皆一二注而愈. 『本草』”

42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5.

“偏正頭痛 生蘿卜汁一靚殼, 仰臥, 隨左右注鼻中, 神效. 王荊公病頭痛, 有道人傳此方, 移時遂愈也. 以此治人, 不可勝數. 《如宜方》”

42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47.

“偏頭痛 鮮蘿卜搗爛. 絞自然汁. 加水片少許調勻, 昂頭灌入鼻孔, 左疼灌左, 右疼灌右, 少時即愈.”

424)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468.

“綠豆:治頭風頭痛. 作枕枕之佳. 『本草』”

42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

“頭痛 【外治】綠豆作枕去頭風. 決明, 菊花皆良.”

42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

“頭痛 【外治】艾葉揉丸嗅之, 取出黃水.”

42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

“頭痛 【外治】蓖麻仁同棗肉紙卷, 插入鼻內.”

- 熱痛에는 朴硝를 정수리에 바른다.429)
- 頭痛에는 訶子和 芒硝를 醋와 함께 문지른다.430)
- 頭痛에는 牛蒡根을 술과 함께 달여서 膏를 만들어 바른다.431)
- 頭皮가 虛腫하여 얇게 물을 싸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로 麥面을 씹어서 붙이면 좋다.432)
- 梔子를 꿀과 섞어서 혀 위에 붙이면 涎을 몰아내고 風을 제거하는 데는 아주 좋다.433)

**(23)中風**

- 中風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醋로 白芥子를 끓여서 목에 붙인다.434)
- 中風으로昏迷하여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강을 양에 상관없이 씹어서 부수어서 환자 얼굴의 天庭 등의 부위를 자주 문지른다.435)
- 中風으로昏迷하여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강즙을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의 눈 안쪽 모서리에 떨어뜨리면 곧 깨어난다.436)

- 中風으로 입이 틀어진 경우에는 桂心 3~4錢 정도를 술로 끓여서 즙을 내고 暈은 천으로 환부에 묻혀서 틀어진 입이 올바르게 돌아오면 멈춘다. 왼쪽이 틀어지면 오른쪽에 바르고, 오른쪽이 틀어지면 왼쪽에 바르는데 자주 사용하면 저절로 효과가 있다.437)438)

- 中風으로 입이 틀어지는 경우에는 皂角가루를 陳米醋에 타서 입 위에 바르는데 왼쪽이 틀어지면 오른쪽에 바르고, 오른쪽이 틀어지면 왼쪽에 바르며 마르면 바꾸어주고 여러 차례 하면 낫는다.439)

- 中風으로 입이 틀어지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鮮魚 한 가닥을 짓찧어서 왼쪽이 틀어지면 오른쪽에 붙이고, 오른쪽이 틀어지면 왼쪽에 붙이는데 입이 올바르게 돌아오면 鮮魚를 피와 함께 씻어낸다.440)

- 暗風으로 졸도하여 人事不省인 경우에는 細辛을 가루 내어 콧속에 넣어 넣는다.441)

- 牙關緊急으로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白礬과 鹽花를 같은 양으로 하여 바르면 涎이 나오면서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442)

- 中風口喎에는 巴豆 7개를 皮를 제거하고 가루를 내어 왼쪽이 틀어진 경우에는 오른쪽 手心に 바르고,

42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  
“頭痛【外治】茱萸葉蒸熱枕之, 治大寒犯腦痛, 亦浴頭.”

42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  
“頭痛【外治】朴硝熱痛, 塗頂上.”

43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  
“頭痛【外治】訶子同芒硝、醋摩之.”

43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  
“頭痛【外治】牛蒡根同酒煎膏摩之.”

43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  
“頭痛【外治】麥麵頭皮虛腫, 薄如裹水, 水嚼傅之良.”

43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  
“頭痛【外治】梔子蜜和傅舌上, 追涎去風甚妙.”

43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4.  
“中風不語 用醋煮白芥子敷頸.”

43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  
“中風昏迷不醒 生薑嚼碎, 不拘多少, 向患者面上天庭等處頻擦.”

43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  
“中風昏迷不醒 … 又, 以生薑汁滴男左女右眼內角, 即醒.”

437)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  
“中風口喎斜 桂心略言三四錢酒煮取汁, 旧布蘸搗患處, 正則止. 左喎搗右, 右喎搗左, 常用自效.”

43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22.  
“中風口喎, 面目相引, 偏僻頰急, 舌不可轉. 桂心酒煮取汁, 故布蘸搗病上, 正即止. 左喎搗右, 右喎搗左. 常用大效. 《千金方》”

439)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  
“中風口喎斜 … 又, 皂角末、陳米醋調塗口上, 左喎搗右, 右喎搗左, 乾則易之, 數次可愈.”

440)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  
“中風口眼喎斜 活鮮魚一條搗爛, 左斜敷右, 右斜敷左, 嘴正即將鮮魚并血洗淨.”

44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55.  
“暗風卒倒. 不省人事. 細辛末, 吹入鼻中.”

44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9.  
“牙關緊急不開者, 白礬、鹽花等分, 搽之, 涎出自開. 《集簡方》”

오른쪽이 틀어진 경우에는 왼쪽 手心에 바르고서 따뜻한 물 한잔을 藥 위에 놓는다. 잠시 후에 올바르게 돌아오면 씻어낸다.443)

- 中風歪斜에는 瓜蒌를 비틀어 짜서 낸 즙을 大麥面과 섞어서 餅을 만들고 구워서 뜨겁게 하여 熨한다. 올바르게 돌아오면 멈추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또 生鹿肉을 生椒와 함께 찢어서 붙이는데 올바르게 돌아오면 제거한다.444)445)

- 口眼歪斜에는 乳香을 태워서 나오는 연기에 熏함으로서 그 血脈을 순조롭게 한다.446)

- 口眼歪斜에는 生烏頭와 青礬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낸다. 매번 1字를 사용하여 콧속에 붙여넣으면 콧물이 흐르고 涎을 토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즉시 효과가 있으며 通關散이라고 이름한다.447)

- 口眼歪斜에는 天南星 생것을 가루 내어 자연의 생강즙에 타서 왼쪽의 歪斜에는 오른 쪽에 붙이고, 오른쪽의 歪斜에는 왼쪽에 붙인다.448)

- 口眼歪斜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天南星과 白附子의 두 가지 약을 곱게 가루 내어 鱈血에 타서 바르고 머리카락을 펴서 들어 올리면 낫는다.449)

- 石灰는 中風으로 인한 口眼歪斜를 다스린다. 石灰 1습을 식초에 볶아 진흙같이 만들고서 오른쪽의 歪斜에는 왼쪽에 바르고, 왼쪽의 歪斜에는 오른쪽에 바르는데 올바르게 돌아오면 씻어낸다.450)451)

- 鱈魚는 中風으로 인한 口眼歪斜를 다스린다. 鱈魚 큰 것을 침으로 머리를 찢어 피를 내어 왼쪽의 歪斜에는 오른쪽에 바르고, 오른쪽의 歪斜에는 왼쪽에 바르는데 올바르게 돌아오면 씻어내고서 물속에 놓아준다.452)

- 皂莢은 卒中風으로 입을 악물고 人事不省인 것을 다스리는데 皂莢을 가루 내어 코에 붙여서 채채기 하면 깨어난다.453)

- 中風口喎인 경우에는 皂莢을 가루 내어 식초에 타고서 오른쪽의 歪斜에는 왼쪽에 바르고, 왼쪽의 歪斜에는 오른쪽에 바르며 마르면 바꾸어준다.454)

- 巴豆熏法: 卒中風으로 입을 악물고 人事不省인 것을 다스린다. 巴豆를 껍질을 제거하고 종이에 싸서 기름이 빠지도록 두드리고서 그 종이를 길게 꼬아 말아서 콧속에 넣는데, 皂莢 가루를 넣어도 좋다. 혹은 앞의 종이 꼬아 만 것을 태워서 나온 연기로 콧속을 熏해도 좋다.455)

44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6.

“中風口喎 巴豆七枚去皮研, 左喎塗右手心, 右喎塗左手心, 仍以暖水一盞安藥上. 須臾即正, 洗去. 《聖惠方》”

44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47.

“中風歪斜 用瓜蒌絞汁, 和大麥麵作餅, 炙熱熨之. 正便止, 勿令太過. 《聖惠方》”

445)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

“中風口眼歪斜 … 又生瓜蒌絞汁, 和大麥面炙熟, 熨心頭, 一正便止, 勿令過分. 又, 生鹿肉同生椒搗貼, 正即去之.”

44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33.

“口目歪斜. 乳香燒煙熏之, 以順其血脈. 《證治要訣》”

44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4.

“口眼歪斜. 生烏頭、青礬各等分, 爲末. 每用一字, 嚙入鼻內, 取涕吐涎, 立效無比. 名通關散. 《廣中秘寶方》”

44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3.

“口眼歪斜. 天南星生研末, 自然薑汁調之, 左貼右, 右貼左. 《仁存方》”

449)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43.

“治口眼歪斜風症 天南星 白附子 右二味研爲細末. 用鱈血調塗, 扯頭髮吊之即愈.”

450)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39.

“石灰: 治中風, 口眼歪斜. 石灰一合醋炒, 調如泥, 右喎塗左, 左喎塗右, 候纔正即洗去. 『本草』”

45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6.

“中風口喎 新石灰醋炒, 調如泥, 塗之. 左塗右, 右塗左, 立便牽正. 《寇氏衍義》”

452)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41.

“鱈魚: 治中風, 口眼歪斜. 取魚大者, 以鍼刺頭上出血, 左斜塗右, 右斜塗左, 正則洗去, 鱈放水中. 『得效』”

453)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41.

“皂莢: 治卒中風, 口噤, 不省, 皂莢末, 吹鼻, 取嚏即甦.”

454)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41.

“皂莢: 中風口喎, 皂莢爲末, 醋調, 右喎塗左, 左喎塗右, 乾則易.”

45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997.

- 卒中風으로 눈이 침침하고 입을 악무는 것을 다스린다. 天南星 가루 5분과 龍腦 1字를 갈아서 섞고 中指로 약 가루를 묻혀 이빨을 20~30번 문지르면 입이 저절로 벌려진다. 매번 半錢에서 1字(2.5分)씩 사용하며 단오 날에 섞은 것이 더욱 좋다.<sup>456)</sup>

- 蓖麻子是 중풍으로 인한 口眼喎斜를 다스린다. 蓖麻子の 껍질을 제거하고 짓찧어서 오른쪽 喎斜에는 왼쪽을 바르고, 왼쪽의 喎斜에는 오른쪽을 바른다.<sup>457)</sup>

- 蓖麻子를 갈아서 手心에 바른다. 하나의 그릇을 手心에 있는 蓖麻子위에 놓고 끓인 물을 그 그릇 속에 넣는다. 입과 눈이 올바르게 돌아오면 서둘러 蓖麻子를 제거하고 오른쪽 喎斜에는 왼쪽을 바르고, 왼쪽의 喎斜에는 오른쪽을 바른다.<sup>458)</sup>

- 까치는 中風喎斜를 다스린다. 산 까치를 배를 갈라서 피가 뜨거울 때에 비틀어져서 늘어진 곳에 붙이면 돌아온다.<sup>459)</sup>

- 生鹿肉은 中風喎斜를 다스린다. 鹿肉을 生川椒와 함께 찧어서 붙이는데 올바르게 돌아오면 제거한다.<sup>460)461)</sup>

“巴豆熏法: 治卒中風, 口噤不省. 巴豆去殼, 紙包搥油去豆, 以紙作燃條, 送入鼻內, 或加皂角末尤良. 或以前紙燃, 燒煙熏鼻內亦可. 『回春』

456)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997.

“治卒中風, 目瞑牙噤. 天南星末五分, 龍腦一字, 右研和, 以中指蘸藥末, 搯齒二三十度, 其口自開. 每用半錢, 至一字, 端午日合尤佳. 『入門』

457)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40.

“蓖麻子: 治中風, 口眼喎斜. 取子去殼, 搥爛, 右喎塗左, 左喎塗右.”

458)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40.

“蓖麻子: 一方, 研塗手心, 以一孟子置在手心蓖麻子上, 用熟水置盂中, 候口眼正則急去之, 左右如上法用. 『本草』”

459)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43.

“鵲: 治中風喎斜. 取生鵲, 劈開腹, 及血熱, 貼喎緩處即正. 『俗方』”

460)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43.

“鹿生肉: 治中風, 喎斜, 取肉, 和生椒同搗付之, 正即去之.”

46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華佗의 각종의 癱瘓을 다스리는 神方: 川烏頭 炮한 것과 紅海蛤 각각 2냥을 가루 내어 매번 반냥을 蔥白을 짓찧어 즙을 낸 것과 함께 섞어 진흙 같은 餅을 만든다. 대략 직경 1촌쯤을 左右의 病에 따라 脚心에 붙이고 묶어서 고정시킨다.<sup>462)</sup>

(24) 癱疾

- 癱疾을 다스리는 처방: 胡椒와 硫黃 각 2釐를 가루 내어 膏藥위에 뿌려서 배꼽과 마주보고 있는 등에 붙이는데 기한을 넘기면 낫는다.<sup>463)</sup>

- 癱疾을 다스리는 처방: 明雄黃, 制附子, 眞潮腦(樟腦)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를 내고 癱疾이 발작하기 2시간 전에 약간의 棉花로 藥가루 3분을 싸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의 鬚구멍을 막는다.<sup>464)</sup>

- 癱疾을 다스리는 처방: 老生薑 4냥을 짓찧어 아직 癱疾이 나타나기 2시간 전에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의 무릎위에 붙이고, 기름종이와 藍布로 싸서 잘 묶고 汗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sup>465)</sup>

- 癱疾을 다스리는 처방: 斑蝥 1개를 膏藥으로 印堂에 붙이고 반드시 아침에 한번 붙이며 24시간이면 효과가 있다.<sup>466)</sup>

p.15.  
“中風口眼喎斜 … 又, 生鹿肉同生椒搗貼, 正即去之.”  
462) 彭靜山點校. 華佗神醫秘傳.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81.

“華佗治各種癱瘓神方: 川烏頭(炮), 紅海蛤各二兩爲末, 每用半兩, 搥蔥白爲汁, 和成泥餅, 徑約寸許, 隨左右貼脚心, 縛定.”

46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癱方 胡椒、硫黃各二釐研末, 摻膏藥上, 貼背脊之正對肚臍眼處, 過期即愈.”

46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癱方 … 又, 明雄黃 制附子 眞潮腦各等分 爲細末, 于癱未發前一時, 以棉花少許, 包裹藥末三分, 塞鼻孔中, 男左女右.”

46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癱方 … 又, 老生薑四兩搗爛, 于未發前一時敷膝上, 男左女右, 用油紙、藍布包裹緊扎好, 勿令汁流出, 立效.”

46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癩疾을 다스리는 처방: 馬齒莧을 찢어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손의 寸口에 묶어둔다. 467)
- 癩疾을 다스리는 처방: 川貝母 한 조각을 膏藥위에 놓고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대퇴부 오금의 부드러운 곳에 붙이는데 남에게 알리지 않으면 바로 낫는다. 468)
- 癩疾을 다스리는 처방: 綠礬 약간을 棉花위에 놓고 단단히 묶어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의 콧속을 막는다. 469)
- 癩疾을 다스리는 發汗법: 柴胡 한 움큼을 짓찧어서 건으로 싸서 온몸에 바르고 잠을 자면서 약간의 땀을 내면 낫는다. 470)
- 癩疾이 오래되어 사람이 虛해지는 경우에는 단肉桂를 냄새 맡거나 코를 막으면 곧 寒邪가 저절로 물러가니 熱은 저절로 가버리고 정신이 상쾌해지며 음식생각이 나면서 낫는다. 471)
- 脾寒癩疾 肘後方: 癩疾이 발작하려고 할 때에 식초에 附子가루를 타서 등에 바른다. 472)
- 癩癩寒熱에는 阿魏와 胭脂 각각 콩 한 알 크기 정도를 고르게 갈고 蒜膏로 섞어서 虎口위에 얹어놓는데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하다. 473)

p.27, 28.  
 “治癩方 … 又, 斑蝥一介用膏藥貼于印堂, 須早一日貼, 一周時即效.”  
 46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癩方 … 又, 馬齒莧搗, 扎手寸口, 男左女右.”  
 46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癩方 … 又川貝母一片放膏藥上, 男左女右, 貼大膀彎軟處, 不與人知, 立愈.”  
 46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癩方 … 又, 綠礬少許, 搽棉花上扎緊, 男左女右, 塞鼻內.”  
 47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8.  
 “治癩發汗法 柴胡一握搗爛, 絹包擦周身, 得睡有微汗解.”  
 47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9.  
 “久癩人虛 嗅牯肉桂, 或塞鼻, 即寒自退, 熱自輕, 神爽氣清, 思食而愈.”  
 47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6.  
 “脾寒癩疾 肘後方: 臨發時, 以醋和附子末涂于背上.”  
 47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鬼癩이 낮에 발작하는 경우에는 鬼箭羽와 穿山甲을 태운 재 각 2錢반을 가루 내어 매번 1字씩을 癩疾이 발작할 때에 코에 넣는다. 474)
- 癩疾을 끊는 宣明方: 큰 蜘蛛, 信砒(砒石) 1錢, 雄黑豆 49알을 가루 내어 물을 적셔서 완두콩크기 정도의 丸을 만든다. 전날 밤 한 알을 北斗七星 아래에 바쳤다가 다음날 아침 종이에 싸서 귓속에 넣으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1丸으로 2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475)
- 癩疾을 끊는 경우에는 魚腥草 한 움큼을 짓찧어서 絹으로 싸고서 全身을 마찰한 후에 잠을 자면서 땀을 흘리면 낫는다. 발작하기 2시간 전에 만든다. 476) 477) 478)
- 系臂截癩에는 旱蓮草를 문드러지게 해서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의 寸口위에 놓고서 古文錢으로 눌러 고정시키고 비단으로 묶어두면 한참 뒤에 작은 水泡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天灸라고 한다. 癩疾이 곧 멈추니 효과가 아주 크다. 479)

p.839.  
 “癩癩寒熱 阿魏、胭脂各一豆大, 研勻, 以蒜膏和, 覆虎口上, 男左女右. 《聖濟總錄》”  
 47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5.  
 “鬼癩日發 鬼箭羽、鯪鯉甲燒灰各二錢半, 爲末. 每以一字, 發時嚙鼻. 《聖濟總錄》”  
 47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64.  
 “止截癩疾 宣明方: 大蜘蛛三枚, 信砒一錢, 雄黑豆四十九粒, 爲末, 滴水爲丸豌豆大. 先夜以丸獻于北斗下, 次早紙裹插耳內, 立見神聖. 一丸可醫二人.”  
 47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06.  
 “斷截癩疾 紫葢一握, 搗爛絹包, 周身摩擦, 待睡有汗即愈. 臨發前一時作之. 《救急易方》”  
 47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  
 “癩【外治】魚腥草擦身, 取汗.”  
 47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癩方 … 又, 三次之後, 臨發前一時, 用魚腥草一握搗爛, 絹包, 周身摩擦, 得睡有汗, 即愈.”  
 47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69.  
 “系臂截癩 旱蓮草搗爛, 男左女右, 置寸口上, 以古文錢壓定, 帛系住, 良久起小泡, 謂之天灸; 其癩即止, 甚效. 《王執中資生經》”

- 癆瘡와 瘡瘡에는 野狐肝 하나를 응달에서 말리기를五日을 거둡하고 戌時에 북두칠성아래에서 氣를 받아 가루를 내어 粳米로 녹두 크기 정도의 丸을 만든다. 매번 1丸을 붉은 비단으로 싸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중지에 묶는다.<sup>480)</sup>
- 瘡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皮와 核을 제거한 大棗 3개와 焙乾한 斑蝥 2개를 함께 고르게 갈아서 삶은 돼지기름에 탄다. 이것을 指頭 크기만 하게 손으로 빻아서 餅을 만든다. 하루 밤 동안 印堂에 붙이면 낫는다.<sup>481)482)</sup>
- 瘡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5월 5일에 花蜘蛛를 햇볕에 말려서 絳囊에 담고 瘡疾이 나타나려고 할 때에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팔에 묶되 남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sup>483)</sup>
- 瘡疾에는 吳葵花(蜀葵花)를 손으로 주무른다.<sup>484)</sup>
- 瘡疾에는 烏頭를 가루 내어 瘡疾이 발작할 때에 술에 타서 등위에 바른다.<sup>485)</sup>
- 瘡疾에는 鬼箭羽를 鯪鯉와 함께 가루 내어 瘡疾이 발작할 때에 코에 넣는다.<sup>486)</sup>

- 瘡疾에는 燕屎를 술에 담가서 코에熏한다.<sup>487)</sup>
- 瘡疾에는 野狐糞와 夜明砂를 식초 풀로 丸을 만들어서 냄새 맡는다.<sup>488)</sup>
- 瘡疾에는 野狐肝를 풀로 丸을 만들고 붉은 비단에 사서 가운데 손가락을 묶는다.<sup>489)</sup>
- 瘡疾에는 蛇蛻로 귀를 막는다.<sup>490)491)</sup>

(25)水腫

- 갑자기 腫滿한 경우에는 蒴藿莖葉을 뜨거운 재속에 묻고서 아주 뜨겁게 하여 부은 부위의 위에 붙이는데, 식으면 다시 바꾸기를 하루 동안 하면 腫滿이 사라진다. <sup>492)</sup>
- 水腫으로 얼굴이 심하게 부은 경우에는 土狗 1개와 輕粉 2분 정도를 가루 낸다. 매번 귤속이 콧속에 조금 넣고서 노란 물이 나오면 낫는다.<sup>493)494)</sup>
- 水腫이 脚氣로부터 뱃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에는 赤豆 1升을 문드러지게 삶아서 즙을 내어 足膝을 따뜻하게 적신다.<sup>495)</sup>

48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6.  
 “癆瘡、瘡瘡 野狐肝一具陰乾，重五日，五更初北斗下，受氣爲末，粳米作丸綠豆大。每以一九，緋帛裹系手中指，男左女右。《聖惠方》”

48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6.  
 “截瘡 大棗三個(去皮核) 斑蝥二個(焙乾) 同研勻，以熟豬油調，捏成餅如指頭大，貼在印堂，一宿而愈。《上儀堂施送方》”

48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瘡方 … 又，大棗肉兩介，去皮核、斑蝥兩介，焙研同研勻，加熱豬油少許，搗成餅子指頭大，貼在兩眉中間印堂上，一周時卽止。”

483)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6.  
 “截瘡 … 一方，五月五日，取花蜘蛛曬乾，絳囊盛之，臨期男左女右系臂上，勿令知之。《善濟方》”

48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  
 “瘡【外治】吳葵花按手。”

485) 明李時珍. 本草綱目.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北京, 1999, p.75.  
 “瘡【外治】烏頭末發時，酒調塗背上。”

48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  
 “瘡【外治】鬼箭羽同鯪鯉甲末，發時噴鼻。”

48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  
 “瘡【外治】燕屎泡酒，熏鼻。”

48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  
 “瘡【外治】野狐糞同夜明砂，醋糊丸，把嗅。”

48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  
 “瘡【外治】野狐肝糊丸，緋帛裹繫中指。”

49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  
 “瘡【外治】蛇蛻塞耳。”

49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7, 28.  
 “治瘡方 … 又，蛇蛻塞兩耳，卽愈。”

49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卒患腫滿 以蒴藿莖葉埋熱灰中，令極熱，以敷腫上，冷再易，一日夜盡消。”

49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水腫面浮甚 土狗一介、輕粉二分五厘爲末，每嚙少許入鼻內，黃水出盡爲妙。”

49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9.  
 “噴鼻消水，面浮甚者。用土狗一個，輕粉二分許，爲末。每暗少許入鼻內，黃水出盡爲妙。《楊氏家藏方》”

49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水腫으로 두 발만이 붓는 경우에는 蔥葉을 꺾어 문드러지게 삶아서 담그는데 하루에 3~4차례 하면 좋다.<sup>496)</sup>

- 몸이 심하게 붓는 경우에는 巴豆 30枚를 꺾질 채 씹어서 물 5升으로 3升이 되도록 삶는다. 綿을 이 약즙 속에 넣고 나서 부은 부위를 닦으면 즉시 부기가 사라지며 하루에 5~6차례 닦되, 눈과 陰部에는 가까이 하지 않게 한다.<sup>497)</sup>

- 腹中이 脹滿한 경우에는 綿으로 煨姜을 싸서 下部에 넣되 식으면 바꾸어 준다.<sup>498)</sup>

- 上氣로 咳嗽하고 脹滿한 경우에는 楸葉 3升을 30차례 솟아오를 정도로 끓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서 丸을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달여서 작은 대추 씨크기만한 丸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竹筒으로 下部에 넣으면 바로 낫는다.<sup>499)</sup>

- 온 몸의 浮腫에는 杜蒺藜(刺蒺藜)를 달여서 날마다 씻는다.<sup>500)</sup>

- 여름철에 발가락이 부어서 걸을 수 없는 경우에는 9월에 茄根을 채취하여 담 밑에 매달아 두었다가 날마다 달여서 씻는다.<sup>501)</sup>

- 脚膝의 浮腫에는 荷葉心과 蘘本을 같은 양으로 하여 달여서 淋洗한다.<sup>502)</sup>

p.36. “水腫從脚氣，入腹能殺人 赤豆一升煮爛取汁，溫漬足膝。”

49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水腫但兩足腫 剉蔥葉煮令爛以漬之，日三四度，良。”

49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身體暴腫如吹 巴豆三十枚合皮咬咀，以水五升煮取三升，綿納汁中，以拭腫上，隨手減消，日五六拭，勿近目及陰。”

49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腹中脹滿 綿裹煨姜，納下部，冷即易之。”

49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上氣咳嗽，服滿體脹 楸葉三升煮三十沸，去滓煎，堪作丸，如小棗子大，以竹筒納下部，立愈。”

50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9.

“通身浮腫 杜蒺藜日日煎湯洗之。《聖惠方》”

50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7.

“夏月趾腫 不能行走者。九月收茄根懸檐下，逐日煎湯洗之。《簡便》”

(26)淋證

- 氣淋에는 製鍊한 소금을 뜨겁게 하여 小腹에 熨하되 식으면 다시 바꾸어준다.<sup>503)</sup>

- 石淋이나 沙淋에는 瓦松(즉 屋上의 無根草)을 진하게 달여서 식기 전에 小腹에 熏洗하는데 대략 4시간이면 소변이 통한다.<sup>504)505)506)</sup>

- 冷淋으로 寒戰후에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胡椒를 달여서 腰腹을 씻는다.<sup>507)</sup>

- 急淋陰腫에는 泥葱 半斤을 煨熱하고 절구에 찧어서 배꼽에 붙인다.<sup>508)509)510)</sup>

- 五淋에는 白礬을 곱게 갈아서 배꼽에 채워 넣고 우물물을 떨어트리는데 소변이 통하면 제거한다.<sup>511)</sup>

- 熱淋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소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膽汁을 제거한 猪膽 1개 약간에 麝香 3釐<sup>512)</sup>를 넣은 후, 陰莖을 이 속에 넣고서 걸을 실로

50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8.

“脚膝浮腫 荷葉心、蘘本等分，煎湯，淋洗之。《永類方》”

50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1.

“氣淋 又，熬鹽熱，熨小腹，冷復易。”

50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1.

“石淋 瓦松煎濃，乘熱熏洗小腹，約兩時即通。”

50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04.

“小便沙淋 瓦松即屋上無根草，煎濃湯趁熱熏洗小腹，約兩時即通。《經驗良方》”

50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6.

“小便沙淋 瓦松即生層上者煎濃湯，乘熱熏洗小腹，約兩時即通。《經驗單方》”

50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1.

“冷淋 寒戰後復，用胡椒煎湯浴腰腹。”

50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1.

“急淋陰腫 泥葱半斤煨熱，杵爛貼臍上。”

50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2.

“急淋陰腫 泥葱半斤，煨熱杵爛，貼臍上。《外台》”

51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6.

“急淋陰腫 泥葱半斤，煨熱杵爛，貼臍上。《外台秘要》”

51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6.

“五淋 以白礬爲細末，填臍中，滴以井水，通即去。《同壽彙》”

오랫동안 싸매두면 낫는다.<sup>513)</sup>

(27)癃閉

- 小便不通에는 甘遂 가루를 물에 타서 배꼽 밑 1寸3分되는 곳에 붙이고 甘草梢를 달여서 마신다.<sup>514)</sup>
- 小便不通에는 韭白을 진하게 달여서 나온 즙으로 배꼽 밑 1寸3分 되는 곳을 씻으면 소변이 통한다.<sup>515)</sup>
- 小便不通에는 萹苳菜를 찢어서 배꼽에 붙이는데 2~4시간이면 소변이 통하니 神效하다.<sup>516)517)</sup>
- 小便不通에는 猪膽 1개를 膽汁을 제거하지 않고서 陽物을 膽 속에 끼워 넣는데 약간 기울여서 膽汁이 들어가면 소변이 저절로 통한다. 婦人은 膽汁을 陰部속에 떨어트려 넣는다.<sup>518)</sup>
- 小便不通에는 皂角, 葱頭, 王不留行 각각 數냥을 하나의 대야에 달이고 여기에 앉아서 浸하면서 小腹과 下體를 熏洗하는데 오랫동안 熱氣가 안으로 透達되면 곧 소변은 통한다.<sup>519)</sup>

- 小便不通에는 白鳳仙花를 뿌리와 잎이 달린 상태로 물로 끓여서 식기 전에 陽物과 양쪽 사타구니를 씻으면 통한다.<sup>520)</sup>
- 小便不通에는 黃酒에 다리를 담근다.<sup>521)</sup>
- 小便不通에는 蝸牛를 찢어서 배꼽 밑 1寸 3分 밑에 붙이고서 손으로 비빈다.<sup>522)</sup>
- 小便이 熱結로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滯石 조각을 깎아서 물로 섞어 少腹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바르는데 마르면 다시 바른다.<sup>523)</sup>
- 小便閉脹에는 蔥白 3斤을 꺾어서 炒하여 띠에 2개로 나누어 담아서 교대로 小腹을 熨하는데 熱氣가 透過하면 소변이 통한다.<sup>524)525)</sup>
- 노인이 小便閉塞한 경우에는 上肉桂 5錢을 가루내어 배꼽 속에 넣고 枳와 면을 섞어서 餅을 만들어 단단하게 잘 묶어 놓으면 소변이 바로 통한다.<sup>526)</sup>
- 妊娠小便不通에는 葱管으로 소금을 陰部속에 붙여 넣으면 효과가 크다.<sup>527)</sup>
- 妊娠小便不通에는 錢으로 蒲黃을 싼 다음 腰背

512) 李相殷 監修. 漢韓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2. p.1263.  
“무계의 단위, 分의 십분지 일”

513)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6.  
“熱淋痛甚或不通者 猪膽一枚去汁. 少許, 入麝香三厘, 以陰莖納其中, 外線兜住于內, 良久即愈. 《證治匯補》”

51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又, 甘遂末水調敷臍下一寸三分, 內以甘草梢煎湯飲之.”

51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韭白煎濃汁, 洗臍下一寸三分即通.”

51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萹苳菜搗敷臍下, 一二時即通, 神效.”

51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04.  
“小便不通 萹苳菜搗傅臍上即通. 《衛生易簡方》”

51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猪膽一個留汁, 以陽物插入臍中, 少傾汁入自通. 婦人以膽汁滴入陰中.”

51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皂角 葱頭 王不留行各數兩 煎湯一盆, 坐浸其中, 熏洗小腹下體, 久之熱氣內達, 即通.”

52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白鳳仙花連根葉熬水, 乘熱洗腎囊陽物及兩膀內, 即通.”

52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黃酒浸脚.”

52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蝸牛搗貼臍下一寸三分, 以手摩之.”

52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熱結不通, 刮滑石屑水和塗少腹, 及繞陰際, 乾復塗之.”

52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閉脹 蔥白三斤剉炒, 帕包二介, 更互熨小腹.”

52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2.  
“小便閉脹 不治殺人. 蔥白三斤, 銼炒帕盛, 二個更互熨小腹, 氣透即通也. 《許學士本事方》”

52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老年小便閉塞 上肉桂五錢 爲末, 納入臍內, 以葱和麵, 作餅蓋之扎好, 小便立通.”

52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轉脬 葱管吹鹽入玉莖內, 甚效.”

를 감싸고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여러 차례 하면 소변이 통한다.528)529)

- 小便不通에는 熏雄黃을 가루 내어 콩알크기 정도의 양을 구멍 속에 넣으면 좋다.530)

- 小便不通에는 滑石 1升을 車前汁으로 섞어서 배꼽주위의 4寸정도에 바르고 마르면 바꾸어 준다. 겨울에는 車前汁이 아닌 물로 섞는다.531)

- 小便不通에는 濕紙로 흰 소금을 싸서 태우고 尿道 속에 약간만을 붙여 넣으면 바로 통한다.532)

- 小便不通에는 苧麻根을 씻어서 갈아 絹위에 펼치고 小腹에서 陰部에 이르기까지 붙이면 잠시 후에 통한다.533)534)

- 小便不通에는 蓖麻仁 3알을 곱게 갈아서 종이에 놓고 꼬아 만 것을 陰莖 속에 끼워 넣으면 바로 통한다. 婦人은 皂角을 달여서 陰戶 속을 씻는다.535)536)

528)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轉脬 … 又, 布包蒲黃, 裹腰背, 令頭至地, 數次取通.”

52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6.

“小便轉脬 以布包蒲黃裹腰背, 令頭至地, 數次取通. 《肘後方》”

53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1.

“小便不通 熏雄黃末豆許, 內孔中, 良. 《崔氏方》”

53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7.

“小便不通 滑石末一升, 以車前汁和, 塗臍之四畔, 方四寸, 乾即易之. 冬月水和. 《楊氏產乳》”

53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1.

“小便不通 濕紙包白鹽, 燒過, 吹少許入尿孔中, 立通. 《普濟方》”

53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5.

“小便不通 摘玄方: 用苧根洗研, 攤絹上, 貼小腹連陰際, 須臾即通.”

53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又, 苧根洗淨, 搗攤絹上, 貼小腹連陰際, 須臾即通.”

53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6.

“小便不通 蓖麻仁三粒, 研細, 入紙捻內, 插入莖中, 即通. 《摘玄方》”

536)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 小便不通에는 土瓜根을 찢어 즙을 낸 것에 약간의 물을 넣어 풀어서 통으로 下部에 붙여 넣는다.537)

- 小便不通에는 土狗(螻蛄) 뒷부분을 끊어서 麝香과 함께 찢은 다음 배꼽 속에 넣어 묶어서 고정시키면 통한다.538)

- 小便不通에는 蝸牛를 찢어 배꼽아래에 붙이고서 손으로 비빈다. 약간의 麝香을 가하면 더욱 좋다.539)

- 小便不通으로 복과 같이 腹脹한 경우에는 田螺 1枚와 소금 반 수저를 찢어서 배꼽 밑 1寸3分 거리에 붙이면 소변이 통한다.540)

- 婦人의 小便不通에는 生白礬 가루 五釐를 배꼽에 넣고 손가락으로 물을 떨어트린다.541)

- 婦人의 小便不通에는 皂角을 달여서 陰戶를 씻는다.542)543)

- 小便不通에는 獨囊大蒜 1개, 梔子 21개, 鹽 한 움큼을 모두 찢어서 배꼽에 오랫동안 붙이고 있으면 소변이 통한다. 만약 통하지 않으면 陰囊위에 붙이면 통한다.544)545)

“小便不通 … 又. 蓖麻仁三粒研細. 入紙捻內插入莖中, 即通. 婦人用皂角煎湯, 洗陰戶內.”

53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49.

“小便不通 土瓜根搗汁, 入少水解之, 筒吹入下部. 《肘後方》”

53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9.

“小便不通 唐氏經驗方: 用土狗後載, 和麝搗, 納臍中, 縛定, 即通.”

53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4.

“小便不通 蝸牛搗貼臍下, 以手摩之. 加麝香少許更妙. 《簡易》”

54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64.

“小便不通 腹脹如鼓. 用田螺一枚. 鹽半匙, 生搗, 傅臍下一寸三分, 即通. 《類編》”

541)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6.

“婦人小便不通 生白礬末五厘入臍, 以一指甲水滴之. 《嫻媛記》”

542)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6.

“婦人小便不通 … 一方, 用皂角煎湯, 洗陰戶. 《增訂達生編》”

54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1.

“小便不通 … 婦人用皂角煎湯, 洗陰戶內.”

- 小便不通에는 蒿苳子を 찢어서 배꼽에 붙이면 바로 낫는다.<sup>546)</sup>

- 熱邪를 받아서 대변이 막힌 것을 급히 구하는 처방: 熱을 받아서 소변이 여러 날 통하지 않고 小腹이脹痛하여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穀을 제거한 蝸牛 1~2마리를 환자의 배꼽위에 놓고 약간의 氷片을 넣으면 蝸牛가 곧 물이 되는데, 뱃속에서 한줄기 선이 시원하게 내려가면 소변이 곧 통한다.<sup>547)</sup>

**(28)腰痛**

- 腰痛에는 貼腰膏: 生薑 1斤으로 자연즙 4냥을 만들고 水膠(黃明膠) 1냥과 함께 달여서 膏를 만든 다음 두꺼운 종이에 퍼서 腰眼에 붙이면 효과가 크다.<sup>548)</sup>

- 風冷寒痺로 인한 腰痛에는 川烏 3개를 생것인 상태로 짓찧어서 소금물 약간을 가하여 紙帛위에 펼쳐놓고 환부에 붙이면 잠시 후에 통증이 멎는다.<sup>549)</sup>

- 허리에 瘀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桂心을 뺀가서 가루를 내고 苦酒로 섞어서 환부에 붙인다.<sup>550)</sup>

- 腰痛에는 白檀을 물로 갈아서 환부에 바른 다.<sup>551)</sup>

- 허리와 다리가 風濕冷痛한 경우에는 차 한잔 정도의 吳茱萸를 갈아서 가루를 내고 黃酒 한잔으로 고르게 섞는다. 이것을 뜨겁게 炒하여 기름종이위에 펼쳐놓고서 환부에 붙이고 천으로 잘 동여매면 즉시 통증이 멈춘다. 만약에 식으면 다시 炒하여 다시 붙인다.<sup>552)</sup>

- 허리에 갑자기 급박한 통증이 생겨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경우에는 단지 소금만을 뜨겁게 微炒하고 천으로 소금을 싸서 환부를 뜨겁게 熨하면 통증이 멎는다. 또 羌活 1냥, 蔥白 10뿌리, 老薑 2냥을 麥麵과 함께 섞고서 뜨겁게 볶아 천으로 싼 다음, 배를 감싸서 熨하는데 식으면 다시 炒하여 熨한다.<sup>553)</sup>

- 腰痛에 어금니를 문지름: 香附子 5냥, 生薑 2냥을 자연즙을 내어 하루밤을 놔두었다가 누렇게 炒해서 가루 낸 것에 靑鹽 2錢을 넣고서 여러 차례 이빨을 문지르면 통증이 멎는다.<sup>554)</sup>

- 腰痛이 멎지 않는 경우에는 絲瓜子를 곱게 炒하여 갈아서 술로 복용하고 찌꺼기는 붙인다.<sup>555)</sup>

- 腰脚이 힘이 없는 경우에는 2개의 蠶沙를 炒해서 뜨겁게 熨한다.<sup>556)</sup>

54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5.  
 “小便不通 獨囊大蒜一個 梔子二十一個 鹽一撮 共搗, 敷臍中, 良久即通. 若不通敷陰囊上立效. 《腫福堂方》”  
 54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87.  
 “小便不通 厄子仁十四個, 獨頭蒜一個, 滄鹽少許, 搗貼臍及囊, 良久即通. 《普濟方》”  
 54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5.  
 “小便不通 … 一方, 用蒿苳子搗, 貼臍中立愈. 《海上方》”  
 547)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5.  
 “急救受熱便閉方 因受熱, 小便數日不通, 小腹脹痛難忍者, 用蝸牛一二條去殼, 安放病人臍中, 入氷片少許, 蝸牛即化爲水, 腹內一線涼下, 小便即通. 《內府秘方》”  
 54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7, 88.  
 “腰痛 又 貼腰膏. 用生薑一斤, 取自然汁四兩, 水膠一兩 同煎成膏, 厚紙攤貼腰眼, 甚效.”  
 54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8.  
 “風冷寒痺腰痛 川烏三分生搗爛, 少加鹽水, 攤紙帛上, 貼痛處, 須臾止.”  
 55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8.  
 “墜腰有血, 痛不可忍 桂心搗末, 以苦酒和塗痛處.”  
 55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8.  
 “腰痛 白檀磨水, 塗患處.”  
 55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8.  
 “腰腿風濕冷痛 吳茱萸一茶杯, 研末 以黃酒一杯 拌勻, 炒熱攤油紙上, 敷患處, 用布捆好, 立時止痛. 如冷再炒再敷.”  
 55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9.  
 “腰痛驟然急痛, 不知何症, 只用鹽微炒熱, 以布包鹽熱熨痛處即止. 又, 羌活一兩 蔥白十根 老姜二兩 麥面和, 炒熱用布包裹熨腹, 冷再炒熨.”  
 55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87.  
 “腰痛揩牙 香附子五兩, 生薑二兩, 取自然汁浸一宿, 炒黃爲末, 入靑鹽二錢, 擦牙數次, 其痛即止. 《乾坤生意》”  
 55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2.  
 “腰痛不止 天羅布瓜子仁炒焦, 搗酒服, 以渣傅之. 《熊氏補遺》”  
 55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 腰脚痛에는 天麻、半夏、細辛 각 2냥을 명주 주머니 2개에 고르게 나누어 담아서 蒸熟하여 번갈아가면서 환부에 熨하는데 땀이 나오면 낫는다. 며칠 만에 다시 熨한다.<sup>557)</sup>

- 腰脚冷痛에는 烏頭 3개를 皮臍를 제거하고 갈아서 가루를 내어 식초에 개어 붙이면 잠시 후에 통증이 멎는다.<sup>558)</sup>

- 갑작스런 腰痛에는 黑豆 6개를 물로 축축할 정도로 버무린 다음 炒해서 뜨겁게 하여 천으로 감싸서 熨하는데 식으면 바꾸어준다.<sup>559)</sup><sup>560)</sup>

- 腰脊脹痛에는 芥菜子를 술에 타서 붙이면 바로 효과가 있다.<sup>561)</sup><sup>562)</sup><sup>563)</sup>

- 華佗의 虛寒腰痛을 다스리는 神方: 糯米를 炒하여 뜨겁게 해서 자루에 담아 환부에 熨한다.<sup>564)</sup>

(29)痺證

- 足躄筋急에는 桂枝가루를 白酒에 타서 하루에

p.38.  
 “腰脚軟 二蠶砂炒熱熨之。《保命集》”  
 557)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  
 “腰脚痛 天麻 半夏 細辛各二兩 絹袋二個, 各盛藥令勻, 蒸熟, 交互熨痛處, 汗出即愈. 數日再熨。《簡易方》”  
 558)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  
 “腰脚冷痛 烏頭三個去皮臍研末, 醋調貼, 須臾痛止。《十便良方》”  
 559)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  
 “卒然腰痛 黑豆六升水拌濕, 炒熱, 布裹熨之, 冷即易。《延年秘錄》”  
 56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7, 88.  
 “腰痛 又, 黑大豆一大碗 水拌令濕, 炒熱以布裹, 隔一重衣, 熨痛處, 令暖氣徹, 令即易之。”  
 56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02.  
 “腰脊脹痛 芥菜子末酒調, 貼之立效。《葉氏摘元》”  
 56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8.  
 “腰脊脹痛 芥子末調酒貼之, 入效。”  
 56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1.  
 “腰脊脹痛 芥子末調酒, 貼之立效。《摘玄方》”  
 564) 彭靜山點校. 華佗神醫秘傳.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10.  
 “華佗治虛寒腰痛神方 : 糯米炒熱袋盛之, 熨痛處.”

한번을 바른다.<sup>565)</sup><sup>566)</sup>

- 脚膝이 風濕으로 인해 虛汗하고 힘이 없고 많이 아프며 陰汗한 경우에는 태운 白礬가루 한 수저를 끓는 물에 던져 넣어 淋洗한다.<sup>567)</sup>

- 風濕脚痛에는 鍼砂와 川烏頭를 가루 내어 고르게 섞어서 炒하여 뜨겁게 한 것을 綿으로 싸서 熨한다.<sup>568)</sup>

- 風濕走痛에는 牛皮膠(黃明膠) 1냥, 姜汁 반잔을 함께 膏로 만들어서 종이위에 펼쳐놓고 뜨겁게 해서 붙이는데 식으면 바꾸어주며 효과가 아주 크다. 또 하나의 처방은 香油와 沒藥 1錢을 加한다.<sup>569)</sup>

- 筋骨疼痛에는 銀朱 3錢과 枯礬 4錢을 가루 내어 3개의 종이에 꼬아서 만든다. 매일 아침 이 종이 하나에 기름을 적시고 불을 댕겨서 배꼽을熏한 다음 담고 누워서 땀을 낸다.<sup>570)</sup>

- 身體麻木에는 芥菜子를 가루 내어 식초에 개어 바른다.<sup>571)</sup>

565)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427.  
 “其病 足中指支脛轉筋 脚跳堅 伏兎轉筋 髀前踵 瘻疝 腹筋急 引缺盆及頰 卒口僻 急者目不合 熱則筋縱 目不開 頰筋有寒 則急引頰移口 有熱則筋弛縱緩 不勝收故僻 治之以馬膏 膏其急者 以白酒和桂 以涂其緩者 以桑鉤鈎之 即以生桑灰置之坎中 高下以坐等 以膏熨急頰 且飲美酒 噉美炙肉 不飲酒者 自強也 爲之三拊而已 治在燔鍼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 名曰季春痺也”  
 56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22.  
 “足躄筋急 桂末, 白酒和涂之, 一日一上。《黃甫謚甲乙經》”  
 56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90.  
 “風濕膝痛 脚膝風濕, 虛汗, 少力多痛, 及陰汗. 燒礬末一匙頭, 投沸湯, 淋洗痛處。《御藥院方》”  
 56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7.  
 “風濕脚痛 鍼砂、川烏頭爲末, 和勻炒熱, 綿包熨之。《摘玄方》”  
 56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6.  
 “風濕走痛 牛皮膠一兩, 姜汁半杯, 同化成膏, 攤紙上, 熱貼之, 冷即易, 甚效. 一加香油、沒藥一錢。《鄧筆峰方》”  
 57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7.  
 “筋骨疼痛 猩紅三錢, 枯礬四錢, 爲末, 作三紙捻. 每旦以一捻 蘸油點火熏臍, 被覆臥之, 取汗。《纂要奇方》”  
 57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1.

- 手足麻木으로 아픔이나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리 내린 뒤의 뽕잎을 달여서 자주 씻는다.<sup>572)</sup>
- 白虎風毒에는 3년 된 진한 식초 5升을 5번 끓을 정도로 달이고, 蔥白 3升을 썰어서 한번 끓을 정도로 달여서 걸러낸다. 찬에 물들여서 식기 전에 감싸면 통증이 바로 멎는다.<sup>573)</sup>
- 膝風作痛에는 草烏、細辛、防風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내어 신과 양말 속에 뿌리고 또한 무릎 보호대를 만들어 사용하면 風濕을 제거하여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sup>574)</sup>
- 膝風疼痛에는 菊花와 오래된 艾葉으로 무릎보호대를 만들어 오랫동안 사용하면 저절로 제거된다.<sup>575)</sup>
- 丈夫가 脚冷하여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경우에는 醇酒 3斗와 물 3斗를 항아리 속에 넣고 잣불로 덥혀서 다리에서 무릎까지 담근다. 항상 잣불을 두어 식지 않게 하며 3일 만에 멈춘다.<sup>576)</sup>
- 腰脚疼痛에는 天麻、半夏、細辛 각 2냥을 명주보자기 2개에 균등하게 나누어 담아서 蒸熟하여 교대로 환부를 찧는다. 땀이 나면 닦는다. 수일 동안 계속해서 찧는다.<sup>577)</sup>

- 腰脚冷痺로 통증이 있는 것은 風이 있기 때문이다. 川烏頭 3개 생것을 皮臍를 제거하고 가루를 내어 식초에 개어서 비단위에 발라 붙인다. 잠시 후에 통증이 멎는다.<sup>578)</sup>
- 脚筋攣痛에는 木瓜 여러 개를 술과 물을 각각 반반씩으로 하여 푹 끓여서 찧어 膏를 만든 다음, 식기 전에 환부에 붙이고서 비단으로 감싼다. 식으면 바꾸어 주기를 하루에 3~5번을 한다.<sup>579)</sup>
- 寒濕氣痛에는 端午날 獨蒜을 채취하여 辰粉과 함께 찧어서 바른다.<sup>580)</sup>
- 脚肚轉筋에는 大蒜을 足心에 비벼서 뜨겁게 하면 편안해진다. 그 후에 冷水로 마늘 한쪽을 먹는다.<sup>581)</sup>
- 脚肚轉筋에는 蜈蚣 태운 것을 돼지기름에 섞어 바른다.<sup>582)</sup>
- 肝虛轉筋은 肝臟의 氣가 虛해서 風冷이 筋에 엉기니 全身이 轉筋하여 배로 들어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熱湯 3斗에 소금 半斤을 넣고 약간 뜨겁게 해서 담근다.<sup>583)</sup>
- 轉筋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식초에 담갔던 숨을 따뜻하게 데워서 환부를 감싸며, 식으면 바꾸어 주는데 곧 낫는다.<sup>584)585)</sup>

“身體麻木 芥菜子末, 醋調涂之。《濟生秘覽》”  
 57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81.  
 “手足麻木 不知痛痒. 霜降後桑葉煎湯. 頻洗。《救急方》”  
 57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1.  
 “白虎風毒 以三年醞醋五升, 煎五沸, 切葱白三升, 煎一沸瀝出, 以布染乘熱裹之, 痛止乃已。《外台秘要》”  
 57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0.  
 “膝風作痛 草烏、細辛、防風等分, 爲末, 搽靴袜中, 及安護膝內, 能除風濕健步。《扶壽方》”  
 57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05.  
 “膝風疼痛, 菊花、陳艾葉作護膝, 久則自除也。《吳曼扶壽方》”  
 57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3.  
 “丈夫脚冷不隨, 不能行者. 用醇酒三斗, 水三斗, 入瓮中, 灰火溫之, 漬脚至膝. 常着灰火, 勿令冷, 三日止。《千金方》”  
 57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16.  
 “腰脚疼痛 天麻、半夏、細辛各二兩, 絹袋二個, 各盛藥令勻,

蒸熱交互熨痛處. 汗出則愈. 數日再熨。《衛生易簡方》”  
 57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4.  
 “腰脚冷痺 疼痛, 有風. 川烏頭三個生, 去皮臍, 爲算, 醋調涂帛上, 貼之. 須臾痛止。《聖惠方》”  
 57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0.  
 “脚筋攣痛 用木瓜數枚, 以酒、水各半, 煮爛搗膏, 趁熱貼于痛處, 以帛裹之. 冷即換, 日三五度。《食療本草》”  
 58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8.  
 “寒濕氣痛 端午日收獨蒜, 同辰粉搗, 涂之。《唐瑤經驗方》”  
 58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8.  
 “脚肚轉筋 大蒜擦足心令熱, 即安. 仍以冷水食一瓣。《攝生方》”  
 58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1.  
 “脚肚轉筋蜈蚣燒. 猪脂和傅。《肘後》”  
 58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1.  
 “肝虛轉筋 肝臟氣虛, 風冷搏于筋, 遍體轉筋, 入腹不可忍. 熱湯三斗, 入鹽半斤, 稍熱漬之。《聖惠方》”

- 승냥이의 가죽(豺皮)은 冷濕痺를 다스린다. 삶아서 환부를 둘둘 휘감거나 힘없는 다리를 감싸면 좋다.586)

(30)痿證

- 身體麻木에는 芥菜子가루를 식초에 개어 바른 다.587)

- 手足麻木에는 뽕나무가지와 잎을 함께 달여서 담가서 씻는다.588)

(31)中暑

- 中熱로 갑자기 혼미한 경우에는 大蒜을 짓찧어 冷水 작은 반잔에 개어 차 수저로 콧속에 넣으면 깨어난다.589)

- 中熱로 口渴面赤하고 煩燥하여 죽을 것 같은 경우에는 땅을 1尺남짓 깊이로 파고 깨끗한 黃土를 채취해서 막 길어온 물에 개어 胸口와 배꼽에 붙인다.590)

- 中暑와 虛로 인한 昏絶을 겸한 경우에는 沉香과 檀香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고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게 하여 사람의 구멍에 도달하면 곧 깨어난다.591)

- 暑邪를 感受받아 대소변이 不通한 경우에는 田螺 3개를 짓찧고 青鹽 3分(일설에는 青黛 3分이라고 함)을 넣어 膏藥위에 펴서 배꼽 밑 1寸(일설에는 1寸 3分이라고 함) 거리에 붙이면 낫는다.592)

- 여름철 喝死에는 屋上의 瓦 2畔을 뜨겁게 하여 가슴과 머리를 찧하는데 식으면 바꾸어준다.593)

- 여름철에 目昏으로 눈곱과 눈물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龍腦와 薄荷잎을 짓찧어 生絹으로 汁을 짜내어 떨어트린다.594)

(32)耳鳴、耳聾

- 耳聾方: 石菖蒲 1寸, 巴豆 1寸을 기름을 제거한 것, 全蝎 1개를 모두 가루를 내어 蔥汁으로 대추씨 크기 정도의 丸을 만들어서 綿으로 감싸서 콧속을 막는다.595)

- 耳聾方: 蓖麻子 49알과 棗肉 10개에 乳香을 넣고 찧어서 膏를 만든다. 대추씨 크기 정도의 丸을 만들어서 햇볕에 약간 말려 綿으로 감싸서 귀를 막는다.596)

- 耳鳴에는 生地黃을 절단하여 종이로 싼 다음 불로 구어서 귀를 막는데, 여러 번 바꾸어준다. 597)598)599)

58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1.

“足上轉筋 以故縮浸醋中, 飪蒸熱裹之, 冷即易, 勿停, 取瘰疬. 《外台》”

58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300.

“醋: 治轉筋. 取衣絮漬醋, 煮令溫, 裹患處, 冷則易即愈. 『千金』”

586)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165.

“豺皮: 主冷濕痺. 熟之以纏病上, 或裹軟脚良. 『本草』”

58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5.

“身體麻木 芥子末醋調塗之.”

58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2.

“手足麻木 桑枝并葉煎湯浸洗.”

58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1.

“大蒜搗爛, 調冷水小半杯, 取茶匙挑灌于鼻孔中入蘇.”

59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2.

“中熱口渴面赤, 煩躁欲死 掘地深尺餘, 取淨黃土以新汲水調化, 敷胸口及臍上.”

59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2.

“中暑挾虛昏絶 沉香、檀香燒熏, 令香氣滿室, 以達其窺, 即醒.”

59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2.

“受暑大小便不通 用田螺三枚搗爛, 入青鹽三分, (一作青黛)攤膏, 貼臍下一寸, (一作一寸三分)即愈.”

59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7.

“夏月喝死 屋上兩畔瓦, 熱熨心頭, 冷即易之. 《千金方》”

59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02.

“暑月日昏 多眵淚生. 龍腦薄荷葉搗爛, 生絹絞汁, 點之. 《聖濟總錄》”

595)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28.

“耳聾方 石菖蒲一寸 巴豆一粒去油 全蝎一個 右共爲末, 葱汁爲丸, 如棗核大, 綿裹塞耳中.”

596)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29.

“耳聾方 … 一方, 用蓖麻子四十九粒, 棗肉十個 入乳香搗膏. 丸如棗核大, 略晒, 綿裹塞耳.”

- 耳虛鳴에는 麝香 약간, 全蝎 14개, 薄荷 14잎 (麝香과 全蝎을 싸서 기와 위에서 焙乾함)을 모두 가루를 낸 다음, 물을 떨어트려서 손으로 빗고 알약을 만들어서 귓속을 막으면 아주 효과가 크다.<sup>600)</sup>

- 耳聾에는 아주 좋고 새로운 鐵片 3덩어리를 입속에서 깨물고 좋은 磁石으로 귓속을 막고서 靜坐한다. 갑자기 이명이 뚫린다. 순식간에 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며칠을 앓아 있어야 통하는 경우도 있다.<sup>601)</sup>

- 耳聾에는 眞北細辛을 가루 내고 黃蠟를 녹여서 쥐똥 크기만 하게 丸을 만든 다음 綿으로 싸서 귓속을 막는데 2~3차례 하면 효과가 있다.<sup>602)</sup>

- 오래된 耳聾에는 斑蝥 3개를 炒한 것과 巴豆 2냥을 心皮를 제거한 것에 麝香약간을 넣고서 대추씨 크기 정도의 丸을 만들어서 綿으로 싸서 귓속을 막는다. 약간의 울림과 노란 물이 나오면 멈춘다.<sup>603)</sup>

- 오래된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甘遂 반寸을 綿에 싸서 귓속을 막고 甘草 반寸은 입으로 씹으면 통한다.<sup>604)</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甘遂가루를 왼쪽 귀에 붙어 넣고 甘草가루는 오른쪽 귀에 붙어넣으면 효과가 있다. 반드시 두 사람이 각각의 곳에서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sup>605)606)</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지렁이를 파 잎 속에 넣으면 물로 변하는데 이것을 찍어 바른다.<sup>607)</sup>

- 오래된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거북이의 소변을 받아서 푸른 파의 관에 담아 귓속에 떨어트린다.<sup>608)</sup>

- 氣閉로 인한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眞麝香을 가루 내어 蔥管으로 귓속에 붙어넣은 후에 파로 귓속을 막으면 귀가 저절로 밝아진다.<sup>609)</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뱀 기름을 귓속에 막으면 신호하다.<sup>610)611)</sup>

- 잉어의 腦髓를 솜으로 싸서 귀를 막아도 耳聾을 치료한다.<sup>612)</sup>

- 오래된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콩알크기의

597)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6.  
“耳常鳴 生地黃切斷, 紙包火煨, 塞耳, 數易之. 《奇方類編》”  
59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2.  
“耳鳴 生地黃截斷塞耳, 日十易之, 瘥.”  
599)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2.  
“生地黃:治耳鳴, 耳聾. 生地黃灰火煨, 綿裹塞耳, 數易之, 以差爲度. 『本草』”  
60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6.  
“耳虛鳴 … 一方, 用麝少許, 全蝎十四個, 薄荷十四葉 (裹麝、蝎、瓦上焙乾), 共研末, 滴水捏作錠子, 塞耳內極效. 《圖經》”  
60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6.  
“耳聾 上好新鐵片三塊咬口內. 用好磁石塞兩耳, 靜坐. 其耳忽鳴而通, 有傾刻通者, 有坐數日通者. 《秘方集驗》”  
602)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6.  
“耳聾 … 一方, 用眞北細辛研末, 熔黃蠟爲丸, 如鼠糞大, 綿裹塞耳內, 二三次即效. 《種福堂方》”  
603)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6.  
“耳久聾 斑蝥三枚炒 巴豆二兩去心皮 入麝香少許, 丸如棗核大, 綿裹塞耳中, 以微響、黃水出爲度. 《證治匯補》”

604)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2.  
“甘遂:治久聾. 甘遂半寸, 綿裹塞耳內, 甘草半寸, 嚙口中即通. 『綱目』”  
60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2.  
“甘遂:又甘遂末. 吹入左耳. 甘草末, 吹入右耳, 亦效. 須兩人各處, 修製乃效. 『丹心』”  
60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9.  
“治聾 … 又, 甘草末吹入左耳, 甘遂末吹入右耳, 即通.”  
607)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3.  
“蚯蚓汁:治耳聾. 取地龍, 納葱葉中化水, 點之. 『本草』”  
608)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3.  
“龜尿:治久聾. 取得尿, 盛青葱管中. 滴入耳中. 『丹心』”  
609)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4.  
“麝香:治氣閉耳聾. 眞麝香爲末, 以葱管吹入耳內, 後將葱塞耳內, 耳自明. 『回春』”  
610)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3.  
“蛇膏:治耳聾. 取蛇膏, 塞耳中, 神效. 『千金』”  
61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9.  
“治聾 … 又. 取蛇膏塞耳中, 神效.”  
612)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3.  
“鯉魚膽:取鯉腦髓, 綿裹塞耳, 亦治聾. 『直指』”

단단한 磁石과 穿山甲을 대워서 가루 낸 것 2分半을 새 솜에 싸서 귀를 막고 입속에 작은 生鐵을 머금고 있으면 귓속에서 비바람소리를 느끼는데, 이렇게 하면 곧 낫는다.<sup>613)614)</sup>

- 磁石을 곱게 갈아 綿으로 싸서 들리지 않는 귓속에 넣고, 별도로 針砂 가루를 들리는 귓속에 넣어 두면 저절로 통하여서 들리게 된다.<sup>615)</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石菖蒲 1寸과 巴豆肉 1알을 함께 찧어서 丸을 만들고 綿으로 싸서 귀를 막는데 하루에 한번 바꾸어 준다.<sup>616)</sup>

- 耳鳴과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 皮를 제거한 葶藶子 49알과 大棗肉 10개에 사람의 젖과 함께 고르게 찧는다. 매번 대추씨 크기 정도를 綿으로 싸서 귓속을 막는다. 뜨거움을 느낄 때까지 하루에 한번 바꾸어 준다. 이를 棗子錠이라 한다.<sup>617)</sup>

- 오래된 耳聾과 耳痛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巴豆肉 1냥과 松脂 3냥을 함께 찧어 대추씨 크기만 하게 만들어서 綿으로 싸서 귀를 막는데 하루에 한번 바꾸어 준다. <sup>618)</sup>

- 오래된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귀의 膽汁을 환자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귀에 떨어트리는데, 잠시 후에 귀의 膽汁이 아래쪽의 귀로 나온다. 처음에 떨어트릴 때에는 더 안 들리지만 만나절이 되어서야 효과가 있으며 30년 된 노인의 耳聾도 다스릴 수 있다. 다만 귀의 膽汁은 구하기가 어려우며 쥐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膽汁은 곧 사라진다. 혹은 매달 초 사흘이전에만 膽이 있다고 한다.<sup>619)620)</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芥子를 찧어서 가루를 내어 사람 젖을 타서 丸을 만들고 綿으로 싸서 귀를 막는데 하루에 두 번 바꾸어 준다.<sup>621)622)</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수고양이의 소변을 귓속에 떨어트리는데 왼쪽의 耳聾은 왼쪽에, 오른쪽의 耳聾은 오른쪽에 떨어트린다. 만약 고양이 소변을 보지 않으면 생강으로 고양이의 이빨을 문지르면 소변을 본다.<sup>623)</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잉어의 쓸개즙을 귀에 떨어트린다.<sup>624)625)</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烏公鷄의 기름을 綿으로 싸서 귀를 막으면 효과가 있다.<sup>626)</sup>

613)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2.

“磁石: 治久聾. 取緊磁石如豆大, 穿山甲燒爲末二分半, 右新綿裹了塞耳中, 口中含小生鐵, 覺耳內如風雨聲即愈. 『綱目』”

61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腎虛耳聾 靈磁石如豆大一塊同穿山甲煨末, 綿裹塞耳中, 口含生鐵一塊, 覺耳中如風雨聲, 即通.”

61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2.

“磁石: 又磁石生研細, 綿裹納聾耳中, 別用針砂末納不聾耳中, 自然通聽. 『直指』”

616)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2.

“菖蒲: 治耳聾, 石菖蒲一寸, 巴豆肉一粒, 合搗作丸, 綿裹塞耳, 日一易.”

617)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2.

“葶藶子: 治耳聾, 耳鳴. 葶藶子去皮四十九粒, 大棗肉十箇, 入人乳和搗令勻, 每取作棗核大, 綿裹塞耳中, 覺熱爲度, 日一易. 名棗子錠. 『得效』”

618)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3.

“巴豆: 治耳聾, 久聾, 耳痛. 巴豆肉一兩, 松脂三兩, 同搗勻作棗核大, 綿裹塞耳, 日一易. 『本草』”

619)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3.

“鼠膽: 治久聾. 取膽汁, 令病人側臥, 瀝汁入耳令盡, 須臾膽汁從下耳出. 初灌益聾, 半日乃差, 能治三十年老聾. 但鼠膽難得, 鼠纔死, 膽便消矣. 或云, 月初三日有之. 『入門』”

62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9.

“治聾 … 又, 老鼠膽汁滴耳中, 二三次效.”

621)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4.

“芥子: 治耳聾. 搗爲末, 人乳汁和丸, 綿裹塞耳, 日兩易 『本草』”

62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耳暴聾 芥子末, 人乳和丸, 綿裹塞, 日二易.”

623)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4.

“雄貓尿: 治耳聾. 取尿, 適入耳中, 左適左, 右適右. 如貓不放尿, 取生薑, 擦其齒即放尿. 『綱目』”

62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9.

“治聾 鯉魚膽滴耳.”

625)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563.

“鯉魚膽: 治耳聾. 取汁, 滴入耳中. 『本草』”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竹筒에 잉어의 腦를 담아서 찌면 녹게 되는데 이것을 귓속에 넣는다.<sup>627)</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雄黃과 石硫黃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綿으로 싸서 귓속을 막으면 수 개월을 듣게 된다.<sup>628)</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菖蒲와 또한 附子를 각각 2냥씩을 찧어서 가루를 내어 苦酒에 타서 丸을 만든다. 또한 대추씨크기 정도를 綿으로 싸서 누운 상태에서 귓속을 막는데 밤에 한번 바꾸어주며 열흘이 되어 누런 물이 나오면 곧 낫는다.<sup>629)</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껌질을 제거한 蓖麻子 100알과 껌질과 씨를 뺀 大棗 19枚를 찧어서 살구 씨 크기 정도의 丸을 만들어서 귓속에 넣는데 20일이면 효과가 있다.<sup>630)</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麝香 三釐를 (羚羊角으로 대신해서 가루를 내기도 한다. 먼저 귓속에 넣은 후에 좋은 燒酒를 2~3방울 귓속에 떨어트린다.<sup>631)</sup>
- 耳聾을 다스리는 경우에는 과 한줄기를 頭梢를 제거하고 管만을 사용하여 귓속에 삽입하여 그 氣를 통하게 하는데 잠시 후면 낫는다.<sup>632)</sup>

-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木香을 가루내어 술에 하룻밤 담그는데 이 술을 떨어트리고서 잠시 후에 꺼내기를 두세 번 하면 낫는다.<sup>633)</sup>
-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北細辛 가루 1錢을 黃蠟을 녹여서 丸을 쥐똥 크기 정도로 만들고 綿으로 싸서 귀를 막는다.<sup>634)</sup>
-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甘草와 生地黃을 갈아서 아주 곱게 가루를 내어 臘脂로 3分을 싸서 대낮에 귀를 막는다.<sup>635)</sup>
-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甘遂와 草烏를 갈아서 아주 곱게 가루를 내어 棉花로 3分을 싸서 저녁에 귀를 막으면 효과가 크다. 절대로 성을 내는 것을 금한다.<sup>636)</sup>
-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眞麝香 1~2分을 綿으로 싸서 귀를 막으면 하루 뒤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언제나 사용해도 실효하다.<sup>637)</sup>
-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生麻油를 하루에 3~5차례 적어 발라서 귓속의 막힌 것이 나오면 낫는다.<sup>638)</sup>
- 病後의 耳聾에는 生菖蒲즙을 떨어트린다.<sup>639)</sup>

62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9.  
“治聾 … 又, 烏公鷄脂綿裹塞耳效.”

62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9.  
“治聾 … 又, 以竹筒盛鯉魚腦, 蒸之令烱, 以灌耳中.”

62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9.  
“治聾 … 又, 雄黃、硫黃等分綿裹塞耳中, 數月聞.”

62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9.  
“治聾 … 又, 菖蒲、附子炮, 各二兩搗末, 以苦酒和丸, 又棗核許, 綿裹, 臥即塞耳中, 夜一易之, 十日有黃水出便瘥.”

63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治聾 … 又, 蓖麻子百粒, 去皮、大棗十九枚, 去皮核搗丸, 如杏仁大納于耳中, 二十日瘥.”

63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治聾 … 用麝香三厘, 或羚羊角代研末, 先入耳中, 然後用好燒酒滴兩三點入耳內.”

63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治聾 … 又用葱一棧去頭梢取管, 插入耳中, 以通其氣, 少頃即

愈.”

63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耳忽聾閉 木香研末酒浸一宿, 取酒滴入耳中, 少傾倒出, 二三次即瘥.”

63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兩耳聾閉 北細辛末一錢將黃蠟熔化爲丸, 如鼠糞大, 以綿裹塞耳, 一二次即愈, 切勿惱怒.”

63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兩耳聾閉 … 又, 甘草、生地研極細末, 臘脂包三分, 日間塞耳.”

63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兩耳聾閉 … 甘遂、草烏研極細末, 棉花包三分, 晚間塞耳甚效.”

63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兩耳聾閉 … 又, 眞麝香一二分綿包塞耳, 一日後耳中如雷鳴, 屢試神效.”

63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  
“耳塞聾閉 生麻油日點三五次, 候耳中塞出, 愈.”

63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耳聾에는 巴豆 2枚를 皮를 제거해서 졸인 것, 桃仁 2枚를 皮를 제거해서 졸인 것, 松脂 大豆만한 것을 찼어서 2알을 만들고 綿으로 싸서 귓속을 막는다.<sup>640)</sup>

(33)遺精

- 夢遺에는 紫花地丁草를 찼어서 膏를 만들어 배꼽에 붙이면 바로 멎는다.<sup>641)</sup>

- 夢遺에는 五倍子 1兩2錢을 醋에 개어 大黑豆 모양의 丸을 만든다. 저녁에 1丸을 배꼽 속에 넣고 작은 膏藥을 그 위에 덮는다. 낮에 붙여도 된다.<sup>642)</sup>

- 遺精에는 文蛤을 갈아 곱게 가루를 내고 女兒의 침에 개어 배꼽에 붙이면 바로 멎는다.<sup>643)</sup>

- 遺精의 治法: 五倍子를 갈아서 곱게 가루를 내고 女兒의 침에 개어 배꼽에 붙이면 바로 멎는다.<sup>644)</sup>

(34)脚氣

- 礬石湯은 脚氣衝心を 다스린다. 礬石 2냥을 漿水 1斗5升으로 3~5번 끓을 정도로 달여서 다리를 담그면 좋다.<sup>645)</sup>

- 脚氣腫痛에는 紫荊莖을 향아리 속에서 태워 연기를 내어 湧泉穴과 아픈 곳을熏하여 땀이 나게 하면 낫는다.<sup>646)</sup>

- 脚氣腫痛에는 白芷와 芥子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내어 생강즙을 섞어서 바른다.<sup>647)648)</sup>

- 脚氣腫痛에는 蓖麻잎을 찼서 감싸주는데 하루에 3번 바꾸어주면 낫는다.<sup>649)</sup>

- 脚膝浮腫에는 荷葉心과 藁本을 같은 양으로 하여 달여서 淋洗한다.<sup>650)</sup>

- 脚筋攣痛에는 木瓜 여러 枚를 술과 물을 각각 반반씩 문드리지게 끓여서 찼어 膏를 만든 다음 식기 전에 아픈 곳에 붙이고 綿으로 감싸는데 식으면 바꾸어주기를 하루에 3~5번 한다.<sup>651)</sup>

- 足上轉筋에는 黃蠟 반근을 녹여서 綢위에 펼쳐 놓고 환부의 크기에 따라 식기 전에 다리를 脚心까지 둘둘 감자마자 곧바로 양말을 신어서 감싼다. 식으면 바꾸어주고 아울러 양쪽 手心에 붙인다.<sup>652)</sup>

- 노인의 腿脚疼痛에는 술지게미를 끓여서 막 꺼낼 때에 식기 전에 腿足을 삽입하여 여러 차례 熏浴하면 통증이 멎는다.<sup>653)</sup>

p.61.  
“病後耳聾 生菖蒲汁滴之.”  
64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2.  
“耳鳴 … 又, 巴豆二枚, 去皮熬 桃仁二枚, 去皮熬 松脂大豆許 搗作二丸, 綿裹塞耳中.”  
64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0.  
“夢遺 紫花地丁草搗爲膏. 貼臍立止.”  
64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0.  
“夢遺 … 又. 五倍子一兩二錢 醋調爲丸. 如大黑豆樣, 點燈後, 用一丸填臍內, 以小膏藥蓋上, 日間取下亦可.”  
64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0.  
“遺精 文蛤研細末, 以女兒津調貼臍內, 立止.”  
644)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6.  
“遺精治法 … 一方, 用五倍子研細末, 以女兒津調, 貼臍內立止. 《種福堂方》”  
645)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원주. 2004. p.112.  
“礬石湯. 治脚氣衝心.  
礬石湯方: 礬石二兩 以上一味. 以漿水一斗五升. 煎三五沸. 浸脚良.”

64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2.  
“脚氣腫痛 … 又, 用紫荊莖于坛中燒烟, 熏涌泉穴及痛處, 使汗出愈.”  
64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2.  
“脚氣腫痛 … 又, 白芷、芥子等分爲末, 姜汁和涂之.”  
64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68.  
“脚氣腫痛 白芷、芥子等分, 爲末, 姜汁和, 涂之效. 《醫方摘要》”  
64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2.  
“脚氣腫痛 … 又, 取蓖麻葉蒸裹, 日三易, 卽瘥.”  
65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2.  
“脚膝浮腫 荷葉心、藁本等分煎湯淋洗.”  
65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2.  
“脚筋攣痛 木瓜數枚, 酒水各半煮爛搗膏, 乘熱敷痛處, 綿裹之, 冷卽換, 日三五度.”  
65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2.  
“足上轉筋 又, 黃蠟半斤 融化, 攤旧綢上, 隨患大小, 乘熱纏脚, 須當脚心, 便着袜裹之, 冷則隨換, 并貼兩手心.”

- 脚氣로 인해 빨갱게 붓고 걷지 않아도 다리가 아픈 경우에는 澤漆、忍冬藤、蜂房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매번 1냥을 물 5그릇에 3그릇이 되게 달여서 熏洗한다.<sup>654)</sup>
- 脚氣腫痛에는 蘇木과 忍冬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잘질하고 약간의 定粉을 넣어서 물 2과로 1斗5升이 되게 달인 후, 먼저 환부를 熏한 다음에 洗한다.<sup>655)</sup>
- 脚氣腫痛에는 소금으로 마찰하고 잠시 동안 熱湯으로 씻으면 신효하다.<sup>656)657)658)</sup>
- 脚氣痛楚에는 無名異가루를 녹인 牛皮膠에 개어 바르는데 자주 바꾸어준다.<sup>659)</sup>
- 脚氣로 끌어당기면서 아프거나 사타구니사이에 핵이 있는 경우에는 生草烏頭、大黃、木鱉子를 가루내고 생강즙으로 달여서 개어 붙인다.<sup>660)</sup>
- 寒濕으로 인한 脚氣에는 川椒 2~3升을 疎布囊에 담아서 매일 발로 밟는다.<sup>661)</sup>

- 脚氣로 다리가 붓는 것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에는 生黑附子 1개를 皮와 臍를 제거하여 가루를 내고 생강즙에 개어 膏처럼 만들어서 바른다. 藥이 마르면 다시 바르기를 부기가 사라질 때까지 한다.<sup>662)663)</sup>
- 脚氣로 정강이가 붓고 아픈 경우에는 蒴藿根을 갈아서 부순 다음 술과 식초 3분을 蒴藿根 1분과 함께 넣고 蒸熟하여 뜨겁게 한 다음, 부은 부위의 위에 다 封해서 감싸는데, 하루에 두 번이면 부기가 사라진다.<sup>664)</sup>
- 脚氣攻注에는 大田螺 생것을 짓찧어서 양쪽 사타구니위에 붙이면 곧 차가운 기운이 발까지 가는 것을 느끼면서 편안해진다. 또 丹田에 붙이면 소변을 이롭게 한다.<sup>665)</sup>
- 모든 脚氣에는 소금 3升을 蒸熟하여 나누어 감싼 다음, 벽 가까이에서 脚心이 뜨거울 정도로 발로 밟는다.<sup>666)</sup>
- 脚氣에는 食鹽으로 腿膝을 문지른 후에 씻으면 좋다.<sup>667)</sup>
- 脚氣上衝하여 腹脹滿悶한 경우에는 蓖麻葉을 쥔

65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2.  
“老人腿脚疼痛 燒酒糟初出時, 乘熱將腿足插入, 熏浴數次即止.”

65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1.  
“脚氣赤腫 行步脚痛. 貓兒眼睛草、鷺鷥藤、蜂窠等分. 每服一兩. 水五碗, 煎三碗, 熏洗之. 《衛生易簡方》”

65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1.  
“脚氣腫痛 蘇方木、鷺鷥藤分, 細銼, 入定粉少許, 水二斗, 煎一斗五升, 先熏後洗. 《普濟方》”

65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1.  
“脚氣疼痛 每夜用鹽擦腿膝至足甲, 淹少時, 以熱湯泡洗. 有一人病此, 曾用驗. 《救急方》”

657)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02.  
“脚氣腫痛 又, 以鹽搽痛處, 少時用熱水洗之, 神效.”

658)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  
“脚氣【熨熏】食鹽蒸熱踏之. 或擦腿膝後洗之, 并良.”

659)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1.  
“脚氣痛楚 無名異末, 化牛皮膠調塗之, 頻換. 《衛生易簡方》”

66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0.  
“脚氣製痛 或膀間有核. 生草烏頭、大黃、木鱉子作末, 姜汁煎茶調貼之. 《永類方》”

66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88.  
“寒濕脚氣 川椒二三升. 疏布囊盛之, 日以踏脚. 《大生全方》”

66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4.  
“脚氣腿腫 久不瘥者. 黑附子一個生, 去皮臍, 爲散, 生薑汁調如膏, 塗之. 藥乾再塗, 腫消爲度. 《簡要濟衆》”

663)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3.  
“脚氣腿腫久不瘥者 生黑附子一個去皮臍, 爲散, 生薑汁調如膏塗之. 藥乾再塗, 腫消爲度. 《簡要濟衆》”

66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0.  
“脚氣脛腫骨疼. 蒴藿根研碎, 和酒醋三分, 根下, 合蒸熟, 封裹腫上, 日二即消. 《千金方》”

66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64.  
“脚氣攻注 用生大田螺搗爛, 傳兩股上, 便覺冷趨至足而安. 又可傳丹田, 利小便. 《釋史》”

66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1.  
“一切脚氣 鹽三升, 蒸熟分裹, 近壁, 以脚踏之, 令脚心熱. 《食療本草》”

66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  
“脚氣【熨熏】食鹽擦腿膝後洗之, 并良.”

다음 찢어서 감싸는데 하루에 2~3차례 바꾸어주면 사라진다.668)

- 脚氣走痛에는 蘿菔을 달여서 씻는다. 그리고 햇볕에서 말린 蘿菔가루를 양말 속에 간다. 669)670)

- 脚氣에는 羊角을 태워서 갈아 술에 개어 붙이고 땀을 내면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는다.671)

- 脚氣攻注에는 田螺를 소금과 함께 절구에 찢어서 사타구니위에 붙이면 치료된다.672)

- 脚氣에는 麥麩를 식초로 썰서 뜨겁게 쪄한다.673)

- 脚氣에는 蠶沙를 썰서 뜨겁게 쪄한다.674)

- 脚氣에는 蒴藿根을 술과 식초로 썰서 뜨겁게 쪄한다.675)

- 脚氣에는 荊葉을 쥔 다음 뜨거운 상태로 누워서 땀을 낸다. 태워서 갈아 湧泉穴을熏한다.676)

- 脚氣에는 鍼砂를 川烏와 함께 가루 내어炒한 다음 감싸서 쪄한다.677)

668)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3.

“脚氣上衝腹脹滿悶 菴麻葉蒸搗裹之, 一日二三易即消. 《滙補》”

669)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3.

“脚氣走痛 蘿菔煎湯洗之, 仍以蘿菔晒乾爲末, 鋪袜內. 《聖濟總泉》”

670)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5.

“脚氣走痛 蘿卜煎湯洗之. 仍以蘿卜晒乾爲末, 鋪袜內. 《聖濟總泉》”

671)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

“脚氣【敷貼】羊角燒研酒調敷之, 取汗, 永不發.”

672)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

“脚氣【敷貼】田螺脚氣攻注, 同鹽杵敷股上, 卽定.”

673)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

“脚氣【熨熏】麥麩醋蒸熱熨.”

67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

“脚氣【熨熏】蠶沙蒸熱熨.”

675)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

“脚氣【熨熏】蒴藿根酒、醋蒸熱熨.”

676)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

“脚氣【熨熏】荊葉蒸熱臥之, 取汗. 燒研熏湧泉穴.”

677)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5)疝證

- 華佗의 諸疝初起를 다스리는 神方: 신선한 地骨皮、生薑 각 4냥을 진흙처럼 찢어서 絹으로 陰囊을 싸는데 비록 아주 가려울지라도 참아야 한다.678)

- 華佗의 熱疝을 다스리는 신방: 아픈 곳이 불과 같고 소변이 붉으며 대변이 힘들고 口乾하며 열을 싫어하는 것은 熱疝이다. 芙蓉葉、黃柏 각 3錢을 가루 내고 木鱉子를 갈아서 醋에 개어 陰囊에 바르면 아주 효과가 좋다.679)

- 疝氣로 한쪽이 축 늘어지고 小腸氣痛한 경우에는 棉子仁을 달여서 씻는다.680)

- 疝氣로 囊腫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硼砂 1분을 물로 갈아서 바르면 사라진다.681)

- 疝氣로 囊腫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에 있는 青蛙皮를 붙이면 낫는다.682)

- 疝氣로 한쪽이 축 늘어진 경우에는 煨牡蠣、良姜을 함께 가루 내어 침에 개어 바르면 즉시 사라진다.683)

- 疝氣로 한쪽이 축 늘어진 경우에는 苦楮樹葉을 항아리 속에 넣고 끓여서 먼저 熏한 후에 洗하는데 매일 여러 차례 하면 아주 효과가 있다.684)

p.81.

“脚氣【熨熏】鍼砂同川烏末炒包熨.”

678) 彭靜山點校. 華佗神醫秘傳.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10.

“華佗治諸疝初起神方: 鮮地骨皮, 生薑各四兩, 搗成泥, 絹包囊上, 雖極痒宜忍之.”

679) 彭靜山點校. 華佗神醫秘傳.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11.

“華佗治熱疝神方: 痛處如火, 溲赤便難, 口乾畏熱, 此熱疝也. 以芙蓉葉、黃蘗各三錢爲末, 木鱉子磨醋調塗囊上, 極效.”

680)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3.

“疝氣偏墜小腸氣痛 … 一方, 用棉子仁煎湯洗之. 《斗門方》”

681)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3.

“疝氣囊腫不消 硼砂一分水研, 塗之卽消. 《桂軒隨象》”

682) 淸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53.

“疝氣囊腫不消 … 一方, 取田間青蛙皮, 貼之自愈. 《袖珍方》”

68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5, 96.

“疝氣偏墜 又, 牡蠣煨、良姜共爲末, 用津唾調塗之, 立消.”

68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疝氣로 한쪽이 축 늘어진 경우에는 大茴香을 볶아서 뜨겁게 하고 두 개의 천에 나누어 싸서 교대로 바꾸어 찜한다.<sup>685)</sup>

- 疝氣로 한쪽이 축 늘어진 경우에는 石菖蒲, 柚子葉, 京茴香 각 1錢을 형체가 사라질 정도로 찜여서 술 주전자 속에 끓인 물 한 그릇과 함께 넣은 다음, 이 술 주전자를 가마 속에 넣고 물을 넣어 증탕한다. 옷을 입을 채로 환부에 찜하면 통증이 귀신같이 멎는다.<sup>686)</sup>

- 疝氣로 한쪽이 축 늘어진 경우에는 蓖麻子 7알을 밥을 넣고 찜여서 丸을 만들어 脚心에 붙이는데, 왼쪽의 통증은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의 통증은 오른쪽에 붙이며 양쪽의 통증은 양쪽에 붙인다.<sup>687)</sup>

**(36)陰腫**

- 飛絲가 음경을 휘감고 돌아 腫痛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威靈仙 2냥을 진하게 달인 즙에 담가 씻는다.<sup>688)</sup>

- 龜頭가 腫痛한 경우에는 兒茶와 氷片을 곱게 간 것 각 3分씩을 甘草물에 씻은 후에 바른다.<sup>689)</sup>

- 陰囊이 腫痛한 경우에는 煨한 枳殼을 소금에 넣고 철구로 문드러지게 찜여서 바른다.<sup>690)</sup>

- 陰囊이 腫痛한 경우에는 醋와 麵을 섞어서 바르면 효과가 있다.<sup>691)</sup>

- 陰囊이 腫痛한 경우에는 蔥白과 乳香을 찜여서 바르면 즉시 腫痛이 사라진다.<sup>692)</sup>

- 陰囊이 머리 만하게 부으면 馬鞭草를 찜여서 붙인다.<sup>693)</sup>

- 陰囊이 머리 만하게 부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雄黃, 甘草 각 1냥과 白礬 2냥을 함께 곱게 가루내어 매번 1냥씩을 끓는 물 5升으로 달여서 3升이 되게 하여 환부를 오랫동안 씻는다. 거품 따뜻한 물이 식을 때까지 씻으며 땀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낫는다.<sup>694)</sup>

- 陰囊이 머리 크기 정도로 부어서 초롱 만하게 붓고 아픈 경우에는 灶心土, 炒한 蒼朮, 煨한 牡蠣를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를 내서 紗로 자루를 만들어서 두드린다.<sup>695)</sup>

- 高환이 腫痛한 경우에는 牛屎를 태워 재를 내고 술에 타서 바르면 낫는데 환자로 하여금 모르게 하라.<sup>696)</sup>

- 高환 한쪽이 축 늘어져 아픈 경우에는 大黃을 醋에 타서 바른다.<sup>697)</sup>

“陰囊腫痛 煨葱入鹽杵爛塗。”

691)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3.

“陰囊腫痛 … 又, 以醋和麵塗之, 效.”

692)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3.

“陰囊腫痛 … 又, 蔥白、乳香搗塗, 即時痛止腫消.”

693)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3.

“陰腫如頭 又, 搗馬鞭草敷之.”

694)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3.

“陰腫如頭 … 又, 痛甚者, 雄黃 甘草各一兩 白礬二兩共爲細末, 每用一兩, 滾水五升, 煎至三升, 沖和, 洗患處良久, 再暖洗至冷, 候汗出即瘥.”

69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3.

“陰腫如頭 … 又, 腫痛如燈籠者, 灶口黃土 蒼朮炒 牡蠣煨, 各等分 爲末, 用紗作袋撲之.”

69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4.

“腎子腫痛 牛屎燒灰, 酒和敷之即愈, 勿令病人知.”

69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4.

p.95, 96.  
 “疝氣偏墜 … 又, 苦楮樹葉半斤煮滾放坛內, 先熏後洗, 每日數次, 甚效.”  
 685)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5, 96.  
 “疝氣偏墜 … 又, 大茴香炒熟, 作兩布包, 更換熨之.”  
 686)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5, 96.  
 “疝氣偏墜 … 又, 生石菖蒲、柚子葉、京茴香各一錢搗極融爛, 置酒壺內, 加開水一碗, 將壺入鍋內, 隔水燙滾, 于患處隔衣頻熨之 止痛如神.”  
 687)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5, 96.  
 “疝氣偏墜 … 又, 蓖麻子七粒和飯搗爲丸, 敷脚心, 左痛敷左, 右痛敷右, 雙痛雙敷.”  
 68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2.  
 “飛絲纏繞陽物, 腫痛不已 威靈仙二兩煎濃汁泡洗.”  
 68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3.  
 “龜頭腫痛 兒茶、氷片研細, 各三分, 甘草水洗後搽.”  
 69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3.

- 陰囊이 水腫같이 붓고 高환이 腫大되어 축축한 경우에는 灶心土 3升을 갈아 부수어서 炒하여 뜨겁게 한 후에 結상에 편다. 그리고 나서 川椒、小茴香 각 1냥을 가루 내어 그 윗면에 뿌리고서 陰囊을 따뜻하게 쬐는데, 식으면 다시 炒하기를 세 번하면 낫는다.<sup>698)</sup>

- 陰囊이 갑자기 腫大된 것으로 대부분 땅에 피곤하게 앉아서 風濕을 받거나 벌레나 개미에게 물려서 생긴 경우에는 蟬退 5錢을 물에 달여서 부은 곳을 씻는데 2~3번 하면 낫는다.<sup>699)</sup>

- 陰囊이 갑자기 腫大된 것으로 대부분 땅에 피곤하게 앉아서 風濕을 받거나 벌레나 개미에게 물려서 생긴 경우에는 雄黃과 枯礬을 茶에 개어 붙이면 붙이는 대로 효과가 있다.<sup>700)</sup>

#### IV. 考察

內病外治는 外治요법을 사용해서 內病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본 內病外治의 연구에 있어서는 36종의 病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의해서 外治가 內服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하나의 病證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 것을 보면 치료약물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內服약물과 外治요법을 결합할 수 있어서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효과가 신속함을 알 수 있다. 內服藥은 약물이 病證 부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비해

서 外治에 사용하는 약물은 病證부위와 가까운 곳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신속하다. 셋째는 적용한 病證이 넓었다. 본 연구에서 36종의 病證에 모두 사용한 것을 보면 다양한 病證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는 內服을 하지 않기 때문에 毒性이 있는 약물일 지라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禁忌사항도 적다. 다섯째는 사용하는 약물의 가지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약물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마지막으로 약을 만드는 제형법이 가루로 만들고 끓이는 등의 아주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우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外治요법은 지금까지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올 수 있었다. 혹자는 外治요법이 소외되었다고 보지만 外科學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외시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中醫外科學』에는 각 病證별로 外治요법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sup>701)</sup> 보면 外治요법의 활용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內病外治에 관한 外治요법은 문헌별로 내용이 散在되어 있으며 충분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여러 서적에서의 內病外治에 관한 내용을 한데 모아서 해석을 하였으며 문헌별 內病外治, 外治방법, 藥物별 치료한 病證, 外治를 통한 內治의 실현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文獻別 內病外治

##### 1) 『黃帝內經』

이는 戰國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醫書이다. 黃帝와 岐伯 등의 問答형식으로 쓰여졌으며 素問과 靈樞 각 9권씩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한의학의 이론과 함께 鍼灸·方藥·治療로 이루어져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內病外治하는 약물과 관련된 내용을 2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淳酒、蜀椒、乾薑、桂心 등의 약물로 熨法을 사용하여 寒痹를 다스리는 경우<sup>702)</sup>와 白酒、桂心 등의 약물로 塗法을 사

“腎子偏墜作痛 大黃和醋塗之.”  
698)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4.  
“陰囊腫如水腫, 腎子腫大潮濕 灶心土三升 研碎炒熱, 鋪甕上, 再以川椒、小茴香各一兩 研末, 撒在上面, 將陰囊熏湯, 冷則再炒, 三次愈.”  
699)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4.  
“陰囊忽然腫大, 多困坐地所受風濕, 或蟲蟻咬 着所致 蟬蛻五錢 水煎洗腫處, 二三次即愈.”  
700) 淸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4.  
“陰囊忽然腫大, 多困坐地所受風濕, 或蟲蟻咬 着所致 … 又, 雄黃、枯礬茶調敷, 隨敷隨效.”

701) 主編 顧伯康,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702)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175.

용하여 季春痺를 다스리는 경우<sup>703</sup>)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內病外治의 약물과 관련한 최초의 기재로 보아야 한다. 內病外治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山海經』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학서적을 위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寒痺를 다스리는 경우는 약물의 가지 수가 많아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2) 『傷寒論』

『傷寒雜病論』은 東漢의 末年인 서기 200~210년에 저술된 듯하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戰亂으로 모두 흩어져 버렸는데, 晉나라의 王叔和가 原書중 傷寒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고 그 이름을 『傷寒論』이라 한 것이다.<sup>704</sup>)

張仲景은 『素問』의 熱論에 있는 六經分類를 근거로 하여, 복잡한 外感病의 징후와 變化를 六經辨證이라는 비교적 완전한 이름으로 체계화 시켰다. 이 辨證에는 『內經』이 나온 후에 이룩한 臟腑나 經絡 및 病因 등에 관한 學說이나 診斷과 治療 등에 대한 지식도 잘 연계시키고 있고, 또한 汗、吐、和、溫、清、消、補로 표현되는 治法의 運用방법과 각 方劑에서 약물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잘 제시하고 있다.<sup>705</sup>)

“黃帝曰 藥熨奈何. 伯高答曰 用淳酒二十斤 蜀椒一升 乾薑一斤 桂心一斤 凡四種皆咬咀 漬酒中 用綿絮一斤 細白布四丈 并內酒中 置酒馬矢燭中 蓋封塗 勿使泄 五日五夜 出布綿絮 曝乾之 乾復漬 以盡其汁 每漬必晬其日 乃出乾 乾并用滓與綿絮 複布爲複巾 長六七尺爲六七巾 則用之生桑炭灸巾 以熨寒痺所刺之處 令熱入至于病所 寒復灸巾以熨之 三十遍而止 汗出以巾拭身 亦三十遍止 起步內中 無見風 每刺必熨如此 病已矣 此所謂內熱也”

703)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427.

“其病 足中指支脛轉筋 脚跳堅 伏兔轉筋 髀前踵 痠疝 腹筋急 引缺盆及頰 卒口僻 急者目不合 熱則筋縱 目不開 頰筋有寒 則急引頰移口 有熱則筋弛縱緩 不勝收故僻 治之以馬膏 膏其急者 以白酒和桂 以涂其緩者 以桑鈎鈎之 卽以生桑灰置之坎中 高下以坐等 以膏熨急頰 且飲美酒 噉美炙肉 不飲酒者 自強也 爲之三拊而已 治在燔鍼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 名曰季春痺也”

704) 傷寒論研究會. 傷寒論講義. 서울. 도서출판 경담. 1997. p.3.

705) 傷寒論研究會. 傷寒論講義. 서울. 도서출판 경담. 1997. p.5.

『傷寒論』에서는 便秘에 下劑를 사용하지 않고 蜜、土瓜根、大豬膽汁을 이용하여 導法으로 소통시키게 하는 外治法을 사용하고 있다.<sup>706</sup>) 內病外治에 관해서는 전체조문 가운데 이 1例만 나와 있다.

3) 『金匱要略』

『傷寒雜病論』에서 傷寒부분은 생략을 하고 雜病 내용만 취해진 것이다. 모두 25編에 262方의 方劑가 있다. 40여종의 內科雜病이 있으며 癰腫、腸癰、刀斧傷、浸淫瘡 등의 外科 병증이 있고 經、帶、雜病、妊娠 및 產後 등의 女科 병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漢代 이전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총결하고, 辨證論治 및 方藥配伍의 일부 기본원칙을 제공하였다.<sup>707</sup>)

『金匱要略』에서는 百合病<sup>708</sup>)、狐惑病으로 인한 肛門질환、婦人과의 月經病、小兒科의 蟲病、脚氣、頭風、救急의 질환(尸蹇, 卒死, 溺死, 中暈死)과 관련한 外治요법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小兒科와 婦人科의 內病外治는 『金匱要略』에서 처음 수록됨을 알 수 있다.

사용된 外治法으로는 洗、熏、納、吹、灌、涂、烙、浸漬、埋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前後陰과 관련한 질병은 熏洗、納 등의 방법을, 救急과 관련한 질환은 빠른 자극을 줄 수 있는 吹、灌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된 약물로는 礬石이 3례, 雄黃、酒、薤 등이 2례씩 사용되었으며 百合、苦參、杏仁、菖蒲、桂、附子、鹽、葶藶、皂莢、豬脂、灶中灰、小便、鷄血 등이 1례씩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附子、鹽과 礬石이 頭痛과 脚氣에서 각각 1例씩 사용되었다.

706) 傷寒論研究會. 傷寒論講義. 서울. 도서출판 경담. 1997. p.425.

“陽明病, 自汗出, 若發汗, 小便自利者, 此爲津液內竭, 雖硬不可攻之, 當須自欲大便, 宜蜜煎導而通之, 若土瓜根及大豬膽汁, 皆可爲導.”

707)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298.

708)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84.

“百合病, 一月不解. 變成渴者. 百合洗方主之.”

4) 『華佗神醫秘傳』

『華佗神醫秘傳』은 漢代에 華佗가 저술한 것을 唐代의 孫思邈이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病理秘傳, 臨床秘傳, 神方秘傳 및 內·外·婦·產·兒·眼·耳·鼻·齒·喉·皮膚·傷·結毒·急救·寄症·獸醫·制煉·養生服餌 등을 포함하여 모두 1103방이 실려 있다.<sup>709)</sup>

이 책은 外科서적으로서 아주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內病外治에 관한 내용은 아주 빈약하다. 『華佗神醫秘傳』에서 內病外治하는 내용은 各種癱瘓, 噤口痢, 虛寒腰痛, 背熱如火, 諸疔初起, 熱疔, 唇菌, 人中腫大 등의 병증을 다스리는 것으로 모두 8례이다.

사용된 外治法으로는 모두 貼敷요법과 塗包요법만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사용된 藥物로는 木鱉子가 2례 사용되었으며 川烏頭(炮), 紅海蛤, 蔥白, 糯米, 生附子, 地骨皮, 生薑, 芙蓉葉, 黃蘗, 蚯蚓, 吳茱萸, 醋, 生蒲黃, 黃連, 龍腦, 香油 등이 각 1례씩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病이 난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藥物을 貼敷하여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점이다. 附子를 발바닥에 붙여서 背熱을 다스리는 것, 蚯蚓, 吳茱萸, 醋를 반죽해서 발바닥에 붙여 唇菌을 다스리는 것, 川烏頭(炮), 紅海蛤, 蔥白을 이용해서 발바닥에 붙여서 各種癱瘓을 다스리는 것 등은 더 깊이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5) 『備急千金要方』

『備急千金要方』은 『千金要方』이라고도 하며 唐代 孫思邈이 7세기 中期에 저술한 것이다. 作者는 人命이 千金처럼 重하다 하여 『千金方』이라 名하였다. 卷1은 醫學總論과 本草, 制藥 등이고, 卷2~4는 婦人科病, 卷5는 小兒科病, 卷6은 七竅病, 卷7~10은 諸風, 腳氣, 傷寒, 卷11~20은 臟腑순서에 따라 일부 內科雜病을 排列했고, 卷21은 消渴, 淋閉 等症이며, 卷22는 疔腫癰疽이고, 卷23은 痔漏, 卷24는 解毒과 雜治, 卷29~30은 鍼灸孔穴의 主治로 되어 있다. 本

書에 실려 있는 醫論과 醫方은 비교적 계통적으로 『內經』 이후 唐代初期 이전까지의 醫學成果를 총괄 반영하고 있어서 科學的 價値가 비교적 높은 著作의 하나이다.<sup>710)</sup>

『千金要方』은 外治法을 아주 많이 논술하였으나 內病外治에 관한 자료로는 총44례를 찾아 볼 수가 있었다. 이 중 內科질환으로는 頭痛이 6례, 霍亂이 3례가 나와 있으며 小兒科가 10례이고 婦人科가 25례로 가장 많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霍亂만 3례가 사용되었다.

6) 『東醫寶鑑』

총 23卷으로 되어 있으며 朝鮮時代의 許浚 등이 1611년에 저술한 것인데, 중국 明代이전의 醫學著書를 선별해서 分類編纂하여 만들었다. 전체를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編, 鍼灸編의 5編으로 나누고, 각 編을 다시 細目으로 세분하여 많은 病證의 證候, 病因, 治法 등을 기술하였다. 그 가운데 湯液編에서는 本草를 논술하였고, 鍼灸編에서는 針灸法 및 經絡腧穴을 소개하였다.<sup>711)</sup>

『東醫寶鑑』에서 內病外治에 어느 정도의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外治學 서적이 아니고 綜合醫學 全書이다 보니 총 94례가 실려 있었으며 그 중 45례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다른 醫書들과는 달리 耳鳴, 耳聾만 17례가 실릴 정도로 많이 실려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中風이 10례, 頭痛이 6례 순이었다.

7) 『本草綱目』

明代의 李時珍이 편찬한 것으로 1596년에 간행되었다. 本書는 作者가 明代이전의 本草學 성취를 계승하고 총결한 것을 토대로 藥農, 民醫, 사냥꾼, 어부 등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대량의 藥物학 知識을 폭넓게 결합시키고 동시에 각종 저서 800여종을 참고하고 장기간에 걸친 각고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수십 년간 편집한 藥物學 저서이다. 卷1~2에는 各家의

710) 漢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7.

711)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532.

709) 彭靜山點校. 華佗神醫秘傳.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 2.

本草學序例를 수록하였고, 卷3~4에는 증후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을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卷5이후에는 藥物을 天水類、地水類、火類、土類 등 62部類로 나누어 수록하고, 약물 1892종이 실려 있으며, 처방 1000여수와 삽화 1000여 幅이 담겨 있다. 각 약물은 釋名、集解、正誤、修治、氣味、主治、發明、附方 등의 항목으로 나열하였다. 책의 내용 중에는 과거 본초학의 오류를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비교적 과학적인 약물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본서는 내용이 매우 광범하여 본초뿐만 아니라 生物、化學、地理、天文、地質、採鑛에서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어 세계적인 博物學 저서라고 할 수 있다.<sup>712)</sup>

『本草綱目』에서 특징적인 것은 臨床저서가 아닌데도 앞부분의 百病主治編에서는 病證을 각기 辨證해서 세분화시켰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感冒에는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感冒를 風寒과 風熱로 나누어서 치료법을 배속시켰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本草綱目』에 內病外治方이 252례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병증별 빈도수는 頭痛 48례、血證 22례、脚氣 21례、痺證 19례、痢疾 15례、便秘 15례 順으로 사용되었다.

8) 『急救廣生集』

『急救廣生集』은 『得生堂外治秘方』이라고도 하는데 1803년에 程鵬程이 지은 清代의 저명한 外治法全書이다. 程鵬程은 수십 년의 노력 끝에 內外治法 3천 여方を 수집하였다. 이 책에서는 각종서적과 필기가 490여종에 달하였는데 모두 각각의 출처를 기록하였다. 引用서적은 『月令』、『老子訓』 등의 경서, 『內經』、『傷寒』、『本經』、『千金』、『外臺』 등 10여부의 醫書 및 『傳家寶』、『修養集說』、『乾坤生意』 등 책이 刊行되어 희귀본이나 이미 소실된 책들의 내용도 인용되어 있다.<sup>713)</sup>

『急救廣生集』은 內科의 25개 병증에 골고루 분

포되어 총 111례가 사용되었으며 병증의 빈도수로는 血證 13례、痢疾 9례、頭痛 9례、黃疸 8례、汗證 8례의 順으로 사용되었다.

9) 『外治壽世方』

『外治壽世方』은 清代의 鄒存淦이 지은 것으로 1877년 刊行되었는데 外治壽世方初編과 外治壽世方續編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初編은 病的 종류、人體部位 및 婦人、小兒、急救、雜治 등에 따라 62門으로 되어 있으며 2400여수가 실려 있다. 續編은 外治에 사용하는 膏藥이나 丹藥이 80여종이 실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續編은 큰 의미가 없어서 初編만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다.<sup>714)</sup>

『外治壽世方』은 본 연구에서 252례가 사용되었으며 『本草綱目』과 용례빈도수가 비슷하면서 한두 病證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증에서 용례가 골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治療하는 內科병증으로는 頭痛 24례、耳鳴·耳聾 22례、傷寒 19례、癰閉 16례、痢疾 13례、陰腫 13례、泄瀉 12례、瘡疾 12례의 順으로 사용되었다.

종합해 보건데 약물을 이용한 內病外治는 『黃帝內經』에서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용례가 풍부해짐을 알 수 있었다. 외치법을 많이 논술한 『千金要方』에서는 內病外治에 관한 예가 그다지 많이 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약물을 이용한 內病外治의 토대를 마련한 醫家は 李時珍이다. 李時珍은 『本草綱目』에 250여례나 內病外治의 용례를 실었으니 『本草綱目』은 本草전문서적일 뿐만 아니라 內病外治의 전문서적이라 할 수 있다. 『外治壽世方』도 內病外治藥物의 용례가 250여례로 많이 실려 있으며 內病外治의 용례가 病證마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內病外治藥物의 전문서적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文獻들에 대해서 內病外治하는 약물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712)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804.

713)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

714)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0 點校說明란에 기재됨.

	內經·傷寒·金匱	千金要方	東醫寶鑑	本草綱目	華佗	急救廣生	外治壽世
1.感冒				1			1
2.咳嗽				2		3	3
3.哮喘							4
4.項強			4				3
5.癩證			1	3		1	
6.傷寒			1	12		7	19
7.汗證			1	6		8	5
8.胸痛						4	
9.血證				22		13	5
10.嘔吐				1		3	3
11.呃逆				3		1	4
12.泄瀉				7		2	12
13.痢疾				15	1	9	13
14.霍亂		3	1	10		4	6
15.腹痛			1	3		3	9
16.便秘	1(傷寒)			15		2	8
17.蟲證				1			1
18.脇痛				2			6
19.黃疸			2	7		8	5
20.積聚				7		2	4
21.鼓脹							5
22.頭痛	1(金匱)		6	48		9	24
23.中風			10	9	1	1	8
24.瘧疾				14		3	12
25.水腫				4			7
26.淋證				2		4	4
27.癰閉				13		5	16
28.腰痛				3	1	5	8
29.痺證	1(內經)		2	19			
30.痿證							2
31.中暑				2			4
32.脚氣	1(金匱)			21		3	8
33.耳鳴·耳聾			17			7	22
34.遺精						1	3
35.疝證					2	3	5
36.陰腫							13

표 2. 文獻別 病證분포현황

病證별로 용례를 살펴보면 頭痛이 67례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耳鳴·耳聾이 38례, 傷寒이 37례, 血證이 37례, 痢疾이 28례, 脚氣가 28례, 癰閉가 27례, 中風이 25례, 瘧疾이 25례, 便秘가 21례, 痺證이 20례, 泄瀉가 18례, 霍亂이 15례 등의 順이다. 표 3.

가장 용례가 많은 頭痛에 風이 자주 등장하였으며 頭痛과 傷寒의 용례가 다양했다는 것은 그 당시 外感病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病證은 분류상 한 개씩 나열할 수밖에 없지만 인체에 나타나는 病證은 실제로 2~3개씩 중복되어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病證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끼리 연결을 시켰을 때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병증은 頭痛-傷寒-咳嗽, 痢疾-泄瀉-腹痛 등의 병증으로 이러한 病證에 外治藥物의 활용이 크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두세 가지의 病證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는 각각의 病證에 해당하는 약물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의 病證에 해당하는 방법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효과도 빠르다. 이것이 內病外治藥物의 장점이다.

用例가 적은 病證은 다른 醫書들을 더 연구하여서 더 많은 用例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中風은 用例가 25례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口眼喎斜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中風에 있어서 口眼喎斜 이외의 證에 사용된 用例도 함께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病證	藥物用例	病證	藥物用例
1.頭痛	67	19.水腫	11
2.耳鳴·耳聾	38	20.汗證	10
3.傷寒	37	21.疝證	10
4.血證	37	22.咳嗽	9
5.痢疾	28	23.脇痛	7
6.脚氣	28	24.呃逆	7
7.癰閉	27	25.淋證	6
8.中風	25	26.嘔吐	6
9.瘧疾	25	27.中暑	6
10.便秘	21	28.癰證	5
11.痺證	20	29.鼓脹	5
12.泄瀉	18	30.項強	4
13.霍亂	15	31.遺精	4

14.腰痛	14	32.胸痛	4
15.黃疸	14	33.哮喘	4
16.腹痛	14	34.痿證	2
17.陰腫	13	35.蟲證	2
18.積聚	11	36.感冒	2

표 3. 病證별 用例數

## 2. 外治方法

### 1) 病證별 外治方法

일반적으로는 각 病이 발생하는 부위와 그 주위에 外治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간혹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感冒에 있어서는 약물을 臍內에 填하는 방법과 약물을 手心에 塗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모두 땀을 나게 하기위한 방법이다.

咳嗽에 있어서는 약물을 가슴이나 등을 마찰하거나 약물을 咽喉로 吸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약물을 納入下部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는데 이는 肺는 大腸과의 表裏관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哮喘에 있어서는 약물을 塞鼻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약물을 足心에 敷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項強에 있어서는 약물을 項部位에 敷, 熨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이용해서 베개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癰證은 鼻部에 약물이 들어가게 하는 약물을 吹와 灌하는 방법과 약물로 전신을 마찰하거나 목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傷寒에 있어서는 傷寒의 증상이 다양하므로 그 다양한 증상에 따라 外治法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汗證은 대부분 약물을 臍中에 貼, 填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몸에 粉, 洗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약물을 乳上에 塗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胸痛에 있어서는 약물을 이용해서 가슴을 두드리는 방법은 보편적이나 약물을 精明穴과 小眼角에 點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足心에 塗하는 방법으로 胸痛을 다스리는 것은 독특한 방법이다.

血證에 있어서 衄血은 약물을 鼻部에 塞, 吹, 滴,

灌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尿血은 약물을 敷臍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吐血은 약물을 胸口에 塗하는 방법과 足を 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吐血衄血을 다스리는데 足心에 大蒜을 貼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이는 下部의 足心에 따뜻한 약물을 사용해서 上部의 熱을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嘔吐에 있어서는 약물을 鼻部에 塞, 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약물로 胸口를 扞찰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吐血에서 보았듯이 위장질환은 약물로 胸部를 扞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다스리며 吐血에서와 같이 足心에 貼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다스린다.

呃逆은 氣가 上逆한 것이니 약물로 熏, 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上逆하는 氣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泄瀉, 痢疾, 霍亂과 便秘는 小大腸의 이상으로 약물을 臍와 腹部에 貼敷·熨하거나 약물을 肛門에 納入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간혹 약물을 足心과 眉心에 貼敷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蟲證은 肛門에 塞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등을 扞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脇痛은 脇部에 敷하거나 熨하는 방법만을 사용하였다.

黃疸에 있어서는 鼻部에 嗅·吹·納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小腹이나 臍上에 貼敷하는 방법과 全身을 扞찰시키거나 목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積聚는 통증부위에 貼敷하거나 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鼓脹은 患部주위에 있는 臍中에 貼하는 방법을 熏洗·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頭痛은 鼻部를 熏·嚙·納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患部를 貼敷·塗·摩하는 방법과 머리에 있는 穴인 太陽穴과 印堂穴을 사용하였다.

中風에 있어서는 口眼喎斜를 다스리는 치료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口眼喎斜이외의 眞中風의 治療例는 적었다. 口眼喎斜에 있어서는 얼굴·눈·코·입 등의 부위에 따른 外治法을 사용하였다. 그 외는 각 성시킨다는 의미로 送鼻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었다. 이 가운데에서 急性을 다스리는 방법이 많은 반면에 慢性을 치료하는 예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더 많은 서적들을 참고하여서 慢性적인 中風을 다스리는 外治法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瘧疾에 있어서는 全身의 모든 부위를 활용해서 外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背脊·鼻孔·膝·虎口·印堂·耳鼻 등, 藥物外治의 범위와 사용법이 瘧疾의 急性·慢性을 막론하고 폭넓은 것을 알 수 있다.

水腫이 腹部에 심하면 肛門에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다리에 水腫이 심하면 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얼굴에 水腫이 심하면 嚙鼻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洗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淋證과 癰閉에 있어서는 小腹을 熨·熏洗하거나 臍中을 貼敷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尿道에 吹·挿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腰痛은 주로 허리에 약물을 貼敷와 熨·塗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痺證과 痿證에 있어서는 통증부위에 약물을 塗·熏·洗·貼敷·熨·裹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痺證과 痿證의 형태가 風寒濕熱 등의 여러 가지 病邪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中暑에 있어서는 약물이 鼻部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약물을 가슴에 붙이는 방법과 臍中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急性의 病은 코로 흡입하는 것이 치료 속도가 아주 빠르다. 몸에 열이 날 때에는 가슴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肺氣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熱을 식히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臍中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中暑로 인해 大小便이 不通한 경우에 사용한 경우이다.

脚氣에 있어서는 다리에 약물을 熏洗하거나 敷·熨·塗·擦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耳鳴과 耳聾에 있어서는 약물을 耳部에 塞·吹하거나 滴·納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遺精에 있어서는 藥物을 貼臍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疝證과 陰腫은 약물을 患處에 塗·洗·熏, 熨·敷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病證에 있어서는 각 病證과 관계가 있는 經絡穴位와 질병이 직접 나타나는 부위나 그 주위에 약물이 흡수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일부의 病證에 있어서는 한의학의 일반적인 방향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哮喘에 있어서 足心에 敷하는 방법, 汗證에 있어서 약물을 乳上에 塗하는 방법, 胸痛에 있어서 약물을 精明穴과 小眼角에 點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足心에 塗하는 방법, 血證과 嘔吐에 있어서 足心에 大蒜을 貼하는 방법, 泄瀉痢疾霍亂便秘에 있어서 약물을 足心에 貼하는 방법과 泄瀉에 있어서 眉心에 貼하는 방법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外治를 통한 內治의 실현

吳尙先은 『理論駢文』에서 “外治의 이치는 곧 內治의 이치이고, 外治하는 약물 또한 곧 內治하는 약물이다”<sup>715)</sup>라고 하였다. 이는 外治에 사용된 약물들의 효능이 內治했을 때의 효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病證에 사용된 약물들이 病證을 다스릴만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 本草서적을 통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나온 약물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咳嗽, 呃逆, 水腫, 淋證, 癰閉, 腰痛, 痺證, 痿證만을 살펴본다.

咳嗽에 사용된 약물들은 款冬花, 白果, 麻黃, 蘇子, 白芥子, 蘿卜子, 南星, 木鱉子, 巴豆, 生薑 등이다. 款冬花, 白果, 麻黃, 蘇子, 白芥子, 蘿卜子, 南星 등은 化痰止咳平喘, 解表藥<sup>716)</sup>에 속하니 능히 咳嗽을 다스릴 수 있다. 罌粟殼과 五倍子是 收澀藥에 속하는데 罌粟殼은 斂肺止咳의 효능<sup>717)</sup>, 五倍子是 斂肺降火的 효능<sup>718)</sup>을 지니고 있으니 모두 咳嗽에

사용할 수 있다. 木鱉子是 『本草備要』<sup>719)</sup>와 『本草綱目』<sup>720)</sup>에서 “利大腸”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木鱉子是 款冬花와 함께 사용되어서 서로 表裏관계를 이루어 肺와 大腸을 함께 다스린 것을 알 수 있다. 巴豆는 『湯液本草』에서 “開通閉塞”, “可以通腸”<sup>721)</sup>이라 하였으니 表裏관계에 의해 咳嗽을 다스림을 알 수 있다.

呃逆에 사용된 약물들은 生薑, 麻黃, 黃蠟, 乳香, 硫黃 등이다. 呃逆을 다스릴 수 있는 약물은 生薑뿐이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呃逆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물을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을 이용해서 呃逆을 다스림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기를 들어 마셔서 上逆하는 氣를 下降시키고자 함이다.

水腫에는 葫蘆, 蠅蛄, 赤小豆, 蔥, 巴豆, 楸葉, 刺蒺藜, 茄根, 荷葉 등이 사용되었다.

葫蘆은 『長沙藥解』에 “療水腫”<sup>722)</sup>이라고 나와 있다. 蠅蛄(土狗)는 『日華子本草』에 “治水腫”<sup>723)</sup>.

『本草綱目』에 “利大小便, 通石淋”<sup>724)</sup>이라 하였다. 赤小豆는 『神農本草經』에 “主下水”<sup>725)</sup>, 『食療本草』에 “治療脚氣及水腫, 腹大鼓脹”<sup>726)</sup>이라 하였다. 蔥은 『食療本草』에 “利小便”<sup>727)</sup>이라 하였다. 巴豆는 『神農本草經』에 “利水穀道”<sup>728)</sup>라 하였다. 楸葉은 『中藥大辭典』에 “消腫”<sup>729)</sup>이라 하였다. 刺蒺藜

715) 何清湖·周慎 主編, 中華醫書集成·理論駢文,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1.  
716)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1, 6.  
717)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319.

718)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318.  
719)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17.  
720) 李時珍 編著,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38.  
721)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p.152, 153.  
722) 新編中藥大辭典(卷下),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3, p.2365.  
723) 日華子本草·蜀本草,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87.  
72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9.  
725) 孫星衍 撰, 神農本草經(卷二), 集文書局, p34  
726) 孟詵 著, 食療本草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120.  
727) 孟詵 著, 食療本草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149.  
728) 孫星衍 撰, 神農本草經(卷三), 集文書局, p.20.  
729) 新編中藥大辭典(卷下),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杜蒺藜)는 『聖惠方』에 “治通身水腫”, 『本草從新』에 “瀉肺氣勝濕”<sup>730</sup>이라 하였다. 茄根은 『本草綱目』에 “散血消腫”<sup>731</sup>이라 하였다. 荷葉은 『本草求真』에 “治陽水浮腫”<sup>732</sup>이라 하였다. 水腫을 다스린 약물들 대부분이 利水의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淋證. 癃閉에서는 食鹽, 瓦松, 胡椒, 白礬, 猪膽, 甘遂, 韭白, 萹苳, 鳳仙花, 酒, 蝸牛, 滑石, 蔥白, 肉桂, 蒲黃, 雄黃, 車前草, 苧麻根, 蓖麻仁, 土瓜根, 螻蛄, 田螺, 皂角 등이 사용되었다.

食鹽은 『日華子本草』에 “通大小便”<sup>733</sup>이라 하였다. 瓦松은 『泉州本草』에 “利小便”<sup>734</sup>이라 하였다. 胡椒는 『本草從新』에 “快膈消痰”<sup>735</sup>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白礬은 『本草備要』에 “通大小便”<sup>736</sup>이라 하였다. 猪膽은 『本草綱目』에 “通小便”<sup>737</sup>이라 하였다. 滑石과 車前草는 利水藥<sup>738</sup>이며 甘遂는 逐水藥<sup>739</sup>이다. 萹苳는 『本草求真』에 “治乳汁不通, 小便閉塞”<sup>740</sup>이라 하였다. 鳳仙花는 『西藏常用中草藥』에 “利尿”<sup>741</sup>라 하였다. 酒는 『本草備要』에 “和血行氣, 暖水臟”<sup>742</sup>. 『本草從新』에 “利小便”<sup>743</sup>이라 하였고, 『日華子本草』에 “通血脈, 下

氣, 暖水臟”<sup>744</sup>라 하였다. 蝸牛는 『本草綱目』에 “利小便”<sup>745</sup>이라 하였다. 蒲黃은 『神農本草經』에 “利小便”<sup>746</sup>이라 하였다. 雄黃은 『本草崇原』에 “稟土氣而勝水毒”<sup>747</sup>이라 하였다. 苧麻根은 『本草從新』에 “治小便不通”<sup>748</sup>이라 하였다. 蓖麻仁은 『日華子本草』에 “治水脹腹滿”<sup>749</sup>이라 하였다. 土瓜根은 『滇南本草』에 “利小便”<sup>750</sup>이라 하였다. 螻蛄는 『日華子本草』에 “治水腫”. 『本草綱目』에 “利大小便, 通石淋”<sup>751</sup>이라 하였다. 田螺는 『食療本草』에 “清熱利水”<sup>752</sup>라 하였다. 皂角은 『日華子本草』에 “消痰”<sup>753</sup>이라 하였다. 大蒜은 『滇南本草』에 “興陽道, 泄精, 解水毒”<sup>754</sup>이라 하였고 『本草綱目』에 “利大小便”<sup>755</sup>이라 하였다. 淋證과 癃閉에 사용된 약물들 대부분이 小便을 通하게 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腰痛은 生薑, 川烏, 桂心, 白檀香, 吳茱萸, 食鹽, 酒, 蠶沙, 天麻, 烏頭, 黑豆, 芥菜子, 糯米 등이 사용되었다.

生薑은 『本草匯言』에 “散風寒”<sup>756</sup>이라 하였고 『食療本草』에 “治療轉筋”<sup>757</sup>이라고 하였다. 川烏는 『珍珠囊』에 “去寒濕風痺, 血痺”<sup>758</sup>라고 하였

1983. p.2191.

730)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52.  
73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7.  
732)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7. p.131.  
733) 日華子本草·蜀本草. 安徽科學技術出版社. 合肥市. 2005. p.232.  
734) 新編中藥大辭典. 新文豐出版公司印行. 臺北市. 1983. p.540. 卷上.  
735) 吳儀洛. 本草從新. 杏林書院. 서울. 1972. p.159.  
736)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209.  
73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18.  
738)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138, 139.  
739)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103.  
740)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서울. 1997. p.263.  
741) 新編中藥大辭典(卷下).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3. p.2418.  
742)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182.  
743)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202.

744) 日華子本草·蜀本草.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230.  
74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4.  
746) 孫星衍 撰. 神農本草經(卷一). 集文書局. p.27.  
747) 張志聰.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97.  
748)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69.  
749) 日華子本草·蜀本草.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05.  
750) 蘭茂. 滇南本草. 昆明. 雲南科技出版社. 2004. p.262.  
75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9.  
752) 孟詵 著. 食療本草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114.  
753) 日華子本草·蜀本草.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42.  
754) 蘭茂. 滇南本草. 昆明. 雲南科技出版社. 2004. p.579.  
75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7.  
756) 倪朱謀. 本草匯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605.  
757) 孟詵 著. 食療本草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6.  
758) 新編中藥大辭典(卷上).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3. p.272.

다. 吳茱萸는 『神農本草經』에 “除濕血痺. 逐風邪”759)라고 하였다. 食鹽은 『名醫別錄』에 “堅筋骨”760)이라고 하였다. 絲瓜子는 효능에 있어서腰痛과 무관하나 술과 함께腰痛에 사용하였다. 酒는 『本草拾遺』에 “通血脈. 散濕氣”761). 『本草求真』에 “通經活脈”762)이라 하였다. 蠶沙는 『名醫別錄』에 “主風痺”763)라 하였다. 天麻는 『本草匯言』에 “活腰膝. 驅大人濕痺之病”764)이라 하였다. 烏頭는 『神農本草經』에 “除寒濕痺”765)라 하였고 『東醫寶鑑』에 “治風寒濕痺”766)이라 하였다. 黑豆는 『本草匯言』에 “能潤腎燥”767). 『本草從新』에 “除熱祛風. 活血. 消腫止痛”768)라 하였다. 芥菜子는 『日華子本草』에 “治腰痛腎冷”769)이라 하였다. 糯米는腰痛을 다스리는 효능은 없으나糯米로 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溫經通絡하게 하여腰痛을 다스릴 수 있었다. 腰痛에 사용된 약물들 대부분이 祛風寒濕, 止痛의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痺證과 痿證은 酒, 白礬, 黃明膠(牛皮膠), 桑葉, 艾葉, 大蒜(獨蒜), 蜈蚣, 醋, 豹皮, 芥菜子 등이 사용되었다. 痺證과 痿證에 사용된 약물은 대부분 祛風寒濕痺, 通絡止痛하는 효능이 있는 약물들이다. 白礬은 『日華子本草』에 “除風去勞”770)라 하였다. 黃明膠는 『本草綱目』에 “風濕走注疼痛”771)이라 하였다. 桑葉은 『日華子本草』에 “通關節”772)이라

하였다. 艾葉은 『本草綱目』에 “逐冷除濕”773)이라 하였다. 大蒜은 『名醫別錄』에 “除邪痺毒氣”774)라 하였고 『本草拾遺』에 “除風濕. 宣通溫補”775)라 하였다. 蜈蚣은 通絡止痛하는 효능이 있어서 風濕頑痺에 사용한다. 醋는 『隨息居飲食譜』에 “養肝, 強筋, 暖骨”776)이라 하였다. 豹皮는 『蜀本草』에 “主冷痺脚氣”777)라 하였다. 痺證과 痿證에 사용된 약물들 대부분이 祛風寒濕의 효능과關節을 이롭게 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건데 咳嗽에 사용된 약물들은 肺에 작용하여 止咳의 효과, 水腫, 淋證, 癰閉에 사용된 약물들은 利尿, 利尿의 효과, 腰痛에 사용된 약물들은 祛風寒濕과 止痛의 효과, 痺證과 痿證에 사용된 약물들은 祛風寒濕과關節을 이롭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外治에 사용된 약물들의 효능이 內治했을 때의 효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嘔逆처럼 약물의 효능과는 상관없이 外治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病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다.

## V. 結論

韓醫學에서는 內科질환을 다스릴 때에 藥과 鍼灸 위주의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外治法으로 다스려야 좋을 때가 있다. 內科에서 外治療法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黃帝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備急千金要方』, 『東醫寶鑑』, 『本草綱目』, 『華佗神醫秘傳』, 『急救廣生集』, 『外治壽世方』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759) 孫星衍 撰. 神農本草經(卷二). 集文書局. p.22.  
 760)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15.  
 761) 新編中藥大辭典(卷中).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3. p.205.  
 762)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7. p.210.  
 763)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86.  
 764) 倪朱謀. 本草匯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20.  
 765) 孫星衍 撰. 神農本草經(卷三). 集文書局. p.5..  
 766) 대한형상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2192.  
 767) 倪朱謀. 本草匯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535.  
 768)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194.  
 769) 日華子本草·蜀本草.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209.  
 770) 新編中藥大辭典(卷上).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3. p.107.  
 77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6.  
 772) 日華子本草·蜀本草.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32.  
 77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07.  
 774)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12.  
 775) 新編中藥大辭典(卷上).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3. p.120.  
 776) 新編中藥大辭典(卷下).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3. p.2489.  
 777) 日華子本草·蜀本草.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453.

內病外治에 관한 기록은 『黃帝內經』에서 시작되었으며 內病外治의 用例가 가장 많이 실린 것은 250여례가 실린 『本草綱目』과 『外治壽世方』이다. 그래서 『本草綱目』은 本草전문서적일 뿐만 아니라 內病外治의 전문서적이라 할 수 있으며 『外治壽世方』은 內病外治의 用例가 36종의 內科病證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서 內病外治藥物의 전문서적이라 할 수 있다. 총 36종의 內科病證을 다스리는 內病外治하는 약물은 총 300여종이며 약물은 草木류에만 국한되지 않고 禽獸류, 昆蟲류, 穀食류, 糞尿, 蟲, 돌 등 다양한 약물이 여러 가지 病證에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病證에 폭넓게 사용되면서도 용례가 많은 약물은 酒, 薑, 鹽, 醋, 蔥, 大蒜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 위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의 內病外治藥物에 관한 임상례를 살펴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의 例와 똑같이 사용된 것은 1 例였을 뿐, 많은 약물이 본 연구에서 치료했던 예와 다르거나 본 연구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약물들이 새롭게 사용되었다. 이는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非科學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새롭게 발전시켜가는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치료한 內科病證을 多用度 순으로 살펴보면 頭痛, 耳鳴·耳聾, 傷寒, 血證, 痢疾, 腳氣, 癱閉, 中風, 瘧疾, 便秘, 痺證, 泄瀉, 霍亂, 腰痛, 黃疸, 腹痛 등의 순이다. 실제로 病證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病證은 頭痛-傷寒-咳嗽, 痢疾-泄瀉-腹痛 등의 病證으로 이러한 病證들에서 外治藥물의 활용이 크다고 사료된다. 또한 약물을 足心에 敷貼하여 哮喘, 胸痛, 嘔吐, 血證, 泄瀉, 痢疾, 霍亂, 便秘 등의 여러 病證을 다스린 것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機轉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外治에 사용된 약물들의 효능이 內治했을 때의 효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吳尙先이 『理淪駢文』에서 “外治의 이치는 곧 內治의 이치이고, 外治하는 약물 또한 곧 內治하는 약물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外治요법으로 內科病證을 다스리기 위해 문헌적인 고찰을 통하여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문헌을 통하여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시켜서 약물을 이용한 內病外治의 체계적인 확립을 시켜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鄭在書 譯註.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85. p.2.
2.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대구.金星印刷社. 2001. p.2.
3. 清·鄒存淦. 外治壽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5, 6, 7, 8, 9, 11, 12, 13, 15, 2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4, 35, 38, 39, 40, 42, 43, 44, 45, 46, 47, 48, 49, 50, 52, 53, 54, 55, 56, 57, 58, 59, 61, 62, 66.
4.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 7, 8, 11,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3, 44, 45, 46, 47, 48, 50, 51, 52, 53, 58, 59, 60, 71, 72, 73.
5. 清·程鵬程. 急救廣生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30, 31, 33, 35, 37, 38, 40, 44, 46, 48, 49, 50, 53, 54, 57, 59, 60, 61, 66.
6. 대한형상의학회 감수.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5. p.7, 8, 11, 12, 23, 25, 30, 32, 35, 37, 38, 40, 41, 42, 52, 53, 54, 55, 56.
7. 彭靜山點校. 華陀神醫秘傳.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1, 42, 50, 60, 65.
8. 唐·孫思邈撰. 備急千金要方.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3, 23, 24.
9. 傷寒論研究會. 傷寒論講義.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7. p.2, 25, 64.
10.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 대구.

- 청운인쇄. 2006. p.2, 50, 63.
11.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2, 58, 64
  12.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64, 65, 66.
  13. 漢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14.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15. 蔡炳允. 漢方外科. 서울. 高文社. 1987.
  16.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醫道韓國社. 1976.
  17. 孫星衍 撰. 神農本草經. 集文書局. 출판년도불명.
  17.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71, 72, 73, 74.
  18.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71, 72.
  19.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73, 74.
  20.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72, 73.
  21. 寇宗奭. 本草衍義. 서울. 醫聖堂. 1994
  22.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9. p.72, 73.
  23. 趙佶. 聖濟總錄 精華本. 北京. 科學出版社. 1998.
  24. 賀菊喬·楊志波. 中華醫書集成·劉涓子鬼遺方(第13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26. 李東建 編著. 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1996. p.32.
  27. 新編中藥大辭典.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3. p.71, 72, 73, 74.
  28. 倪朱謀. 本草匯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73.
  29. 孟詵 著. 食療本草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71, 72, 73.
  30. 張志聰.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72.
  31. 蘭茂. 滇南本草. 昆明. 雲南科技出版社. 2004. p.72, 73.
  32.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71, 72.
  33.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p.71.
  34. 何清湖·周慎 主編. 中華醫書集成·理淪駢文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71.
  35. 李柏 主編. 疼痛中藥外治奇術大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36. 劉少林. 劉光瑞. 中國民間敷藥療法.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6.
  37. 張驃 主編. 常見病外治小方.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2002.
  38. 陳志農 編著. 內病外治敷貼靈驗方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39.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40. 金昌玟外. 서울. 完譯中藥大辭典. 정담. 1999
  41. 主編 張伯輿. 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p.5.
  42. 吳震西·吳自強. 中醫內病外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43. 吳淑華·徐兆山. 內科疾病中醫外治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